

2021

정책연구 2021-07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방안

연구진 조원지 · 배균기 · 이병훈

Jeonbuk Institute



정책연구 2021-07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방안



연구진 및 연구 세부 분담

연구책임 조원지 | 부연구위원 | 연구총괄, 제1장~5장

공동연구 배균기 | 부연구위원 | 제3장 4절 일부, 제5장 일부

이병훈 | 전문연구원 | 제2장 1절, 제2장 2절 일부

자문위원 공석기 |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선임연구원

정민철 | 협동조합 젊은협업농장 이사

김휘승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부 부장

박용범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이사

연구관리 코드 : 21JU06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의 의견으로서
전북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목 차 | Contents

제1장 연구개요	1
1. 연구배경 및 목적	3
2. 생활역량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6
3. 연구내용 및 방법	12
4. 연구 추진체계	14
제2장 전북 귀농귀촌 및 교육 현황	15
1. 전북 귀농귀촌 현황	17
2.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체계	35
3. 전북 귀농귀촌교육의 과제	59
제3장 사례조사	63
1. Life Skills for Europe(LSE)	65
2. 충남 삶기술학교	69
3. 홍성 평민마을학교	75
4. 농촌생활기술학교	78
5.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82
6. 시사점	85
제4장 환경분석 및 전문가조사	87
1. SWOT분석	90
2. 전문가조사	102
3. 시사점	110

제5장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115
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개념 및 목적	117
2.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121
참고문헌	149

표목차 | Contents

〈표 2-1〉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요	37
〈표 2-2〉 맞춤형 공모교육	38
〈표 2-3〉 청년귀농 장기교육	38
〈표 2-4〉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39
〈표 2-5〉 농업교육포털(전라북도 오프라인교육)	40
〈표 2-6〉 농업인적자원개발센터 오프라인교육	42
〈표 2-7〉 농업인대학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	43
〈표 2-8〉 시·군 농업기술센터교육	44
〈표 2-9〉 귀농귀촌인 및 신규농업인/청장년층 대상 교육	45
〈표 2-10〉 청년(예비)농업인 대상 교육	46
〈표 2-11〉 농업인대학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	47
〈표 2-12〉 영농기술 및 가공 관련 교육	48
〈표 2-13〉 농기계·안전 및 농업경영	49
〈표 2-14〉 농촌관광교육	50
〈표 2-15〉 정보화 및 기타	51
〈표 2-16〉 전북 학교형 귀농·귀촌교육	53
〈표 2-17〉 전북 창업농 및 농업기술교육	54
〈표 2-18〉 마을융화교육	54
〈표 2-19〉 전북 농업 외 실용교육	55
〈표 2-20〉 농식품인력개발원 귀농귀촌 교육과정	58
 〈표 4-1〉 SWOT분석	 95
 〈표 5-1〉 농촌생활역량 교육영역	 123
〈표 5-2〉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유형	133
〈표 5-3〉 농촌생활역량교육 평가지표	147

■ 그림목차 | Contents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14
〈그림 2-1〉 시도별 귀농인 현황 (2020년)	17
〈그림 2-2〉 전북 귀농인 추이 (2016년~2020년)	18
〈그림 2-3〉 시·군별 귀농인 규모	18
〈그림 2-4〉 남녀별 시·군 귀농인 규모	19
〈그림 2-5〉 시·군별 귀농인의 성별구성	19
〈그림 2-6〉 연령별 시·군 귀농인구	20
〈그림 2-7〉 시·군별 귀농인의 연령구성	21
〈그림 2-8〉 시도별 귀촌인 현황 (2020년)	22
〈그림 2-9〉 전북 귀촌인 추이 (2016년~2020년)	22
〈그림 2-10〉 시·군별 귀촌인 비율	23
〈그림 2-11〉 성·지역별 귀촌인 분포	24
〈그림 2-12〉 지역별 남녀 구성비	24
〈그림 2-13〉 연령·지역별 귀촌인 규모	25
〈그림 2-14〉 지역별 귀촌인의 연령구성	27
〈그림 2-15〉 귀농 동기	28
〈그림 2-16〉 귀촌 동기	28
〈그림 2-17〉 귀농인의 농업 이외 경제활동	29
〈그림 2-18〉 농업 이외 경제활동 사유	29
〈그림 2-19〉 농업 이외 경제활동의 어려움	30
〈그림 2-20〉 향후 하고 싶은 경제활동	30
〈그림 2-21〉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귀촌인의 경제활동	31
〈그림 2-22〉 귀촌 후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	31
〈그림 2-23〉 귀농인의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 이수여부	32
〈그림 2-24〉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기관	32
〈그림 2-25〉 귀농·귀촌교육 개선방향	32

〈그림 2-26〉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33
〈그림 2-27〉 귀촌인의 귀농·귀촌 교육 이수여부	33
〈그림 2-28〉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	34
〈그림 2-29〉 귀촌인의 귀농·귀촌교육 강화 내용	34
〈그림 2-30〉 귀촌인의 귀농·귀촌교육의 개선사항	34
〈그림 2-31〉 귀농귀촌교육기관 체계	35
〈그림 2-32〉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과정	57
〈그림 3-1〉 생활기술과 결과	66
〈그림 3-2〉 삶기술학교의 추진방향	70
〈그림 3-3〉 삶기술학교	73
〈그림 3-4〉 평민마을학교 운영단체 체계도	75
〈그림 3-5〉 평민마을학교	77
〈그림 3-6〉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비전	78
〈그림 3-7〉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79
〈그림 3-8〉 기관별 역할체계	83
〈그림 4-1〉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101
〈그림 5-1〉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125
〈그림 5-2〉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프로그램	126
〈그림 5-3〉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128
〈그림 5-4〉 청년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130
〈그림 5-5〉 플래닛 완주	132
〈그림 5-6〉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체계	133
〈그림 5-7〉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조직구성	136
〈그림 5-8〉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140
〈그림 5-9〉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거점지역 구성	141

1

장

연구개요

Jeonbuk Institute

-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생활역량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3. 연구내용 및 방법
 4. 연구 추진체계

제 1 장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 귀농귀촌은 은퇴 후 제 2의 삶에 대한 도시민 기대의 산물로 인식되었으나, 최근 다양한 연령과 계층들이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실현하고자 농촌으로 이주하면서 귀농·귀촌의 동기와 유형은 다양해지고 있음
 - 마상진(2018) :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
 - 유학열(3022) : 전업귀농형, 은퇴귀농형, 농촌지향형, 노후휴향형, 도시출퇴근형
 - 이민수·박덕병(2012) : 경제적 성공, 전원적 삶, 가족생활, 도시생활회피, 영농승계
- 교육은 도시민이 농촌을 이해하고 농촌사회에 적응·정착을 위한 하나의 주요 과정으로, 예비 귀농귀촌인과 초기 정착민들을 대상 중앙 단위 및 지자체 단위 교육과정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음
- 현재 귀농귀촌을 위한 교육은 농업·농촌사회 이해를 시작으로 창업농을 위한 품목교육, 농업기술, 귀농사례, 정책 및 제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
- 이후, 농업부문 기초 교육은 비농업부문에서 가공, 유통, 마케팅 등 농업과 관련한 농외활동 교육 등으로 이어지고 있음
- 최근 농업활동 이외 분야에서 농촌생활에 대한 목적과 기대를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은 개인의 정보 수집 역량과 네트워크에 따라 결정되고 있음
- 농업 중심의 귀농귀촌 교육제도에서 농촌사회에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농촌사회에 정착해야 하는지에 대한 제도 및 교육 정보를 습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농촌은 생산을 위한 공간이 아닌 개인의 일터, 삶터, 쉼터로서 일상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귀농귀촌인을 농촌사회의 인적자원이 아닌 농업분야의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은 귀농귀촌 교육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생태학적 관점에서 사회는 개인을 둘러싼 환경들과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개인과 사회 모두가 유지와 발전이 이루어짐(한경혜 외, 2014)
-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심리학적 환경들로 구성된 농촌사회는 생산주의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개인과 개인, 개인과 환경간의 상호작용과 상호의존적인 관계와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생활역량은 개인의 삶의 질 증진과 관련이 있음
- 현재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 중심 교육들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 농업·농촌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귀농귀촌인 관심과 농촌사회에서의 삶의 다양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어려움이 존재하며, 농촌사회의 생활인으로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춰 나가며 농촌에서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실현해 갈 수 있는 기회 마련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귀농귀촌교육이 다양한 기관에서 진행되면서 귀농귀촌을 준비하거나 희망하는 도시민들은 자신의 니즈에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을 탐색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함
- 또한,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사하거나 특색 있는 교육을 파악하여 자신의 귀농귀촌과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교육인지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됨
- 중앙 차원과 지자체 차원 다층적인 귀농귀촌 교육채널들은 귀농귀촌인이 현재 어떠한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교육들이 자신에게 유용한지를 스스로 적절하게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농촌 지역사회에 적응·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에 대한 교육 정보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어떠한 교육이 유용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함
- 자신들이 살아갈 농촌지역에 대한 특성 이해와 함께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데 필요한 교육 참여에 가이드를 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는 어떠한 교육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일원화된 교육채널과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도움을 제공할 수 있는 가이드가 필요하며, 이들을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이 연구는 귀농귀촌 유형의 다양화되고 있는 현재, 일률적인 농업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도시민들이 농촌사회에서 원활한 적응·정착과 자신의 역량을 발휘 가능한 귀농귀촌교육 변화와 전복과 지역사회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함
- 농업·농촌사회의 다양화는 현재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과 농촌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육 현황을 파악·진단하고 귀농귀촌교육 사례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 교육시스템의 필요성을 확인함
- SWOT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의 교육방향, 교육영역, 체계 등에 대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논의하며, 이들 결과를 통해 농업 중심에서 벗어나 농촌사회에서 나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역량을 위한 교육개발과 교육체계 운영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생활역량 개념 및 선행연구 고찰

가. 생활역량 개념

- 역량(competency, competence)은 사전적 의미로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힘과 그 정도’로 정의하고 있으며, 유사 단어는 ‘능력’과 ‘기술’이 있으며, 능력과 기술은 역량의 하위 영역에 해당함¹⁾
 - 능력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기술은 ‘재주 또는 솜씨, 대처방법이나 능력’을 의미함
- White(1959)에 따르면 특정 상황, 여건에서 수행하는 능력(행동, 사고, 태도 등)으로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되는 능력을 의미함(윤명희·김진화, 2008; 재인용)
- Baron과 Markman(2003)은 역량을 ‘다양한 여건 속에서 개인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성이자 기술의 조합’으로 정의함
- 생태학적 관점에서 인간은 물리적·생물학적·사회적 환경 안에 생존하며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경제정치, 심리적 배경에서 인간의 행동과 발달이 진행됨(한경혜 외, 2014)
-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적인 환경에서부터 거시적 환경에서 개인이 일상을 보내며, 수행하게 되는 행동, 태도, 사고 등에 대한 다양한 정의가 이루어졌음
- 국내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개인이 놓인 다양한 환경을 경험하며 다양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동을 ‘생활역량(life competency)라고 이병림(1987)은 정의하였으며, 노현미(1999)는 ‘다양한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며, 인지적, 언어적, 사회·정서적 능력 등이 복합적 개념’으로 강조함
- 이종강(2004) 연구에서는 생활역량을 ‘삶의 인지, 사회·정서, 신체, 예술 등 종합적인 부문에서 발생하는 일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정의함

1) 표준국어대사전

- 박선희(2005)연구의 경우, 생활역량은 ‘일상 전반에 필요한 능력으로, 그 하위영역으로 운동능력, 지적능력, 사회적능력, 인성 등을 포함하고, 윤명희와 김진화(2008)는 개인이 주어진 여건에 적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의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행동,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생활역량을 정의함
- 생활역량은 자연스럽게 키워지는 능력이 아닌 학습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내리고 있어, 이 연구에서 생활역량은 ‘생활에 필요한 학습된 능력’으로 정의함
- 농촌 사회는 단순히 먹거리 생산을 위한 공간이 아닌 자연환경, 인공환경²⁾, 사회적 문화의 총체로서 귀농귀촌은 물리적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으로 이주를 하는 과정임
- 농촌사회로 유입되는 도시민, 즉 귀농귀촌인은 정착을 위한 탐색과 준비단계에서 농업활동 및 농촌사회 이해를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련 교육을 받고 있음
- 귀농·귀촌 정보 및 교육은 주로 창업농과 농업인으로 농촌사회 정착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제공하고, 농촌사회 적응에 주체적인 입장이 아닌 농업을 배우며 적응·정착을 위한 내용으로 구성하고 있음
- 농촌사회는 귀농·귀촌인에게 주요 삶터로, 농업활동뿐만 아니라 농외 경제활동, 가정관리, 교제 및 참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발생하는 복합공간으로 농촌사회 적응과 정착은 도시와 다른 일상의 변화에 준비 및 교육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 적응하고 정착하는 것은 농촌 일상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활동과 도전에 필요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함

2) 인공환경은 인간의 생존, 유지, 목적 달성을 위해 자연환경이 변형되는 것으로 그 예로 거주지, 경작지, 도로 등이 해당됨(한경혜 외, 2014)

- 농촌생활역량은 개인이 농촌생활을 위한 능력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개인이 살고 있는 공동체와 지역사회의 삶의 질과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을 볼 수 있으며, 농촌생활역량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지역사회 간 협력과 연대를 이룰 수 있는 도구가 될 것임
- 영농활동에 치중된 귀농·귀촌 교육과 기술은 귀농·귀촌인이 일상활동을 수행하며 농촌사회에 적응, 정착하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음
- 귀농·귀촌교육은 농업교육을 넘어 농촌사회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동, 사고, 태도 등을 교육을 통해 익히고 농촌사회 구성원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음

나. 귀농귀촌 선행연구 고찰

1) 귀농귀촌 유형

- 귀농귀촌은 1990년대 말 IMF로 인한 도시민의 농촌으로 이주가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등장하고, 귀농귀촌인의 귀농 동기와 유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증가함
- 이들 연구들은 귀농귀촌 유형에 따른 인구사회학적 특성, 사회경제적 특성, 만족도, 유형별 정책 수요, 경제활동 등과의 관계를 살펴봄
- 우선, 귀농귀촌 동기와 유형을 구분한 연구는 다음과 같음
 - 귀농자의 귀농동기를 살펴본 박영일(1998) 연구는 실직, 패적인 환경, 부모 권유 등을 귀농자의 동기로 제시한 반면, 귀농을 희망하는 도시민은 희망적 영농, 전원생활, 노후대책 등을 강조함
 - 귀농귀촌 실태를 살펴본 유학열(2010) 연구의 경우, 이주목적, 거주형태, 가계, 영농현태 등을 통해 귀농귀촌 유형을 구분한 결과 농업을 전업으로 하고자 이주하는 ‘전업귀농형’, 퇴직 또는 은퇴 후 겸업 형태의 영농 활동을 위한 ‘은퇴귀농형’, 도시생활의 회피에 따른 전원생활과 농촌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이주한 ‘농촌지향형’, 은퇴 후 휴양 또는 요양을 목적으로 한 ‘노후휴양형’, 인근 도시로 출퇴근을 하고자 하는 ‘도시출퇴근형’으로 나타남
 - 이민수와 박덕병(2012)의 연구는 귀농귀촌자의 동기, 태도, 행태를 살펴보았으며, 귀농귀촌 동기는 경제적 성공 추구, 전원적 삶 추구, 가족생활 추구, 도시생활회피 추구, 영농승계 추구의 5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이에 따라 유형을 4개로 구분하였으며, 기업가형, 소규모창업형, 전원형, 영농승계형이 해당됨
 - 귀농귀촌유형에 따른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김성학과 서정원(2014)은 귀농귀촌인의 정착 동기로 ‘자신과 가족 건강’을 중요하게 여겼으며, 그 외 생태적 공동체 삶, 산촌생태마을 인지, 전원생활, 은퇴 후 여가생활 등을 언급되었음
 - 시기별 귀농귀촌 과정, 경제활동, 지역사회활동 등의 변화를 살펴본 마상진 외(2015)연구에서 시기별(2008년 이전, 2009~2010년, 2011~2012년, 2013~2014년) 귀농귀촌 동기를 살펴본 결과 전원생활이 가장 높은 비중

을 차지한 이유였으며, 다음으로 도시생활에 회의로 나타났지만 전원생활은 시기별로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공동체 가치는 귀농귀촌의 동기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인의 장기추적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귀농귀촌을 유형화하고 유형별 특성을 살펴본 마상진(2018) 연구에 따르면, 은퇴·전원형, 대안가치형, 생계형, 경제형으로 구분하였으며,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성, 귀농전 사회경제적 지위, 준비기간, 귀농귀촌패턴 등과의 관계를 살펴봄

2) 귀농귀촌 교육

- 귀농귀촌은 삶의 물리적 공간이 전환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농촌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도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농촌생활에 적응·정착하기 위해 귀농귀촌교육을 진행되고 있음
- 귀농귀촌교육을 주제로 하는 연구들은 교육체계 구축,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요인, 효과 등에 대한 주제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음
 - 김부성(2012)은 교육과정과 기관 현황들을 통해 귀농귀촌교육체계를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 국가, 공공, 민간 기관에서 산재되어 운영되고 있어 교육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함
 - 마상진(2012)의 연구에서 초기 영농활동을 하고 있는 귀농귀촌인들의 영농과 지역참여 실태 살펴본 결과, 비농업 분야 경험을 바탕으로 농외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귀농귀촌 교육요구와 관련하여 기간, 장소접근성, 교육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보여줌
 - 유상오(2012)의 연구는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을 진단한 결과, 귀농귀촌교육을 통해 농업·농촌에 대한 시각의 변화와 귀농 의향이 증가로 교육의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분산된 귀농귀촌교육체계의 문제를 지적하며, 교육체계의 재편에 대한 필요성을 제안함
 - 채상현(2013)은 귀농귀촌교육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귀농귀촌교육수료생의 영농정착여부를 살펴본 결과, 교육이 귀농귀촌 준비여부, 귀향여부, 소득 등에 영향을 미쳤으며, 정책 및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함

- 귀농귀촌교육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마상진·김경인(2016) 연구에서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일수를 통해 파악한 교육 참여 정도는 예비 귀농귀촌교육 참여 시간, 신규 귀농귀촌인, 지역 내 귀농귀촌 자치모임의 활성화 정도, 농업생산자 조직 참여 여부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준비과정부터 정착초기까지가 귀농귀촌교육의 적절한 시기와 효과 증진 가능한 시기임을 확인할 수 있음
- 퇴직 예정자를 대상으로 귀농어·귀촌 인식과 관련 교육 현황을 살펴본 박성택 외(2020) 연구는 귀농어·귀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함께 실행 의지가 높게 나타났으며 귀농귀촌을 위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이들 연구들에서 주목한 귀농귀촌교육은 농업 관련 교육기관에서 농업 관련 정보 제공과 농업기술 학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어, 다양한 이주 동기를 가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내용 및 체계로는 한계가 있음

3. 연구내용 및 방법

- 귀농귀촌교육은 농업인 육성을 위한 교육으로서, 다양한 동기를 가지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활역량을 제시하는 다양한 교육과 이를 제공·운영할 수 있는 교육기관 또는 조직이 부재함
- 일상의 변화를 경험하는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 사회적 관계 등에 대한 대응과 해결할 수 있는 생활역량 제고를 위해 실용적 교육 학습을 통해 농촌사회에서 적응·정착과정이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교육적 지원이 필요함
- 또한, 귀농귀촌인의 생활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 이 연구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적응·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역량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의 방향, 영역, 체계 등을 설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세부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원활하게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역량의 개념을 이해하고 귀농귀촌인의 이주 동기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정착과 교육 간 관계를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통해 파악하고자 함
- 둘째, 전북의 귀농귀촌인구와 함께 귀농귀촌인의 교육활동을 살펴보고, 귀농귀촌을 위한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 교육의 현주소와 한계를 논의하고자 함
- 셋째, 귀농귀촌의 인식 변화에 따른 농업 이외 부문인 생활역량 교육과 교육 운영을 위한 체계와 관련된 사례조사를 통해 귀농귀촌교육의 변화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함

- 넷째, SWOT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해 전북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역량교육과 교육기관·조직의 필요성, 교육의 방향, 교육운영 및 관리에 대한 방향을 파악하고자 함
- 마지막으로, 이들 결과를 통해 전북 귀농귀촌인의 적응과 정착을 위해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을 갖추기 위한 교육 방향·개발과 운영·관리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4. 연구 추진체계

○ 다음은 연구방법에 따라 연구 추진 절차를 도식화하였음

구분	주요내용	연구방법
1단계 문제의식	• 농업·농촌에 대한 인식 변화와 귀농귀촌의 동기의 다양화 •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구성 및 한계 파악 • 다양한 교육기관 교육의 차별성 부족	문제의식과 정리
2단계 논리검토	• 생활역량의 개념 이해 및 귀농귀촌 동기의 다양화에 따른 귀농귀촌교육의 한계 극복 방안 모색 필요 • 중앙 및 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교육 파악 및 진단을 통한 교육의 한계성 파악 및 개선 필요 • 귀농귀촌교육 정보제공 및 운영기관의 한계를 극복 가능한 방안 모색 필요	선행연구 행정자료 사례조사
3단계 SWOT분석 및 전문가조사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역량 교육 방향 전환의 필요성 진단 • 귀농귀촌인 농촌생활역량교육을 위한 교육 및 교육 기관 필요성 파악 • 농촌생활역량교육의 방향, 영역, 운영 및 관리 관련 주요 이슈 파악	SWOT분석 및 전문가조사
4단계 지원 방안 구상	• 농촌생활역량교육과 운영 비전 및 방향	방향구상
5단계 방안 제안	• 농촌생활역량교육 목표 및 운영체계 • 운영 및 관리방안	방안제안

〈그림 1-1〉 연구 추진체계

2

장

전북 귀농귀촌 및 교육 현황

Jeonbuk Institute

-
1. 전북 귀농귀촌 현황
 2.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체계
 3. 전북 귀농귀촌교육의 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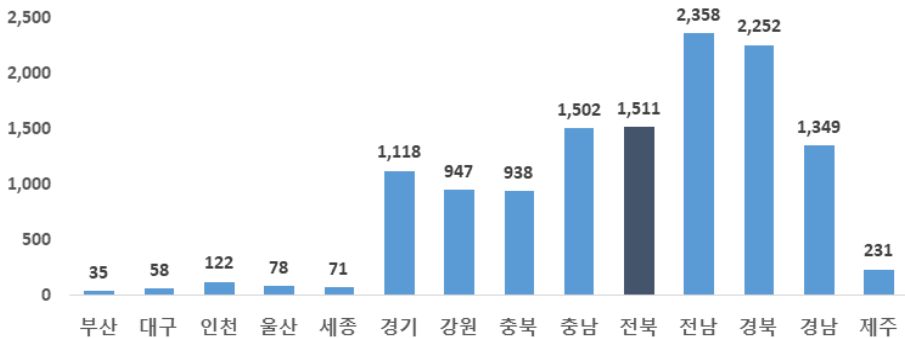
제 2 장 전북 귀농귀촌 및 교육 현황

1. 전북 귀농귀촌 현황

가. 귀농귀촌 현황³⁾

-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귀농인 규모는 12,570명으로 전년 대비(11,504명) 1,066명 증가하였으며, 시도의 경우 귀농인은 전남이 2,35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2,252명, 전북 1,511명, 충남 1,502명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은 전국에서 3번째로 귀농인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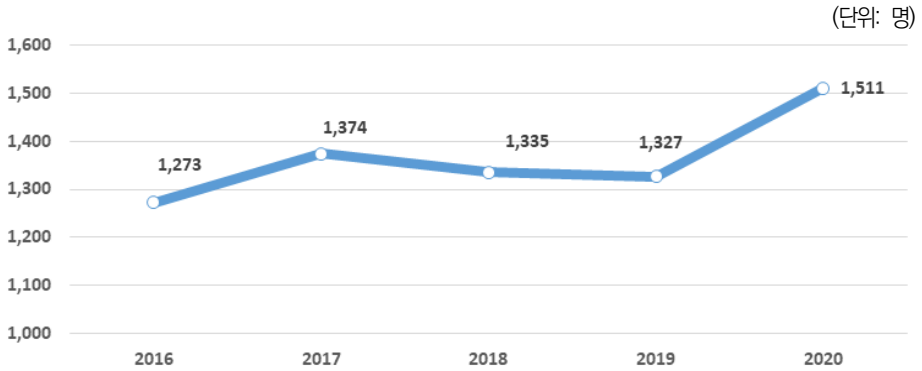
(단위: 명)



〈그림 2-1〉 시도별 귀농인 현황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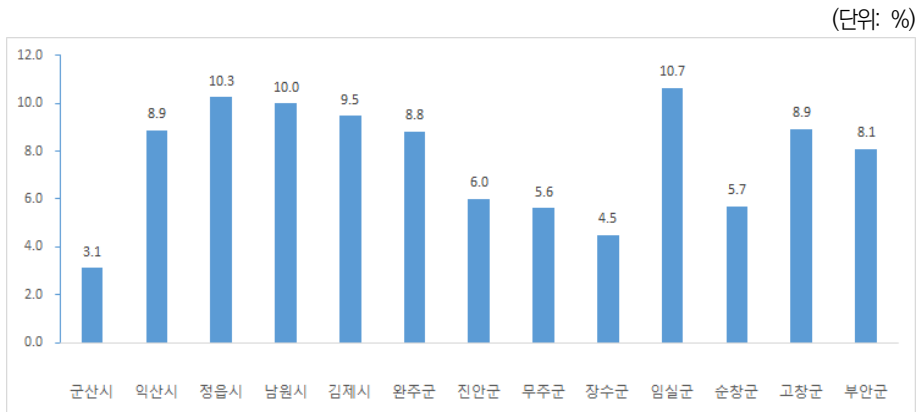
- 전북으로 유입되는 귀농인은 1,300선을 유지하다가 2020년 귀농인은 2019년 1,327명에서 1,511명으로 전년대비 13.9% 증가함

3) 통계청(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그림 2-2〉 전북 귀농인 추이 (2016년~2020년)

- 2020년 기준, 전라북도 각 시·군별 귀농인 규모를 살펴보면, 귀농인 1,511명에서 10.7%인 161명이 임실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정읍시 155명(10.3%), 남원시 151명(10.0%), 김제시 143명(9.5%)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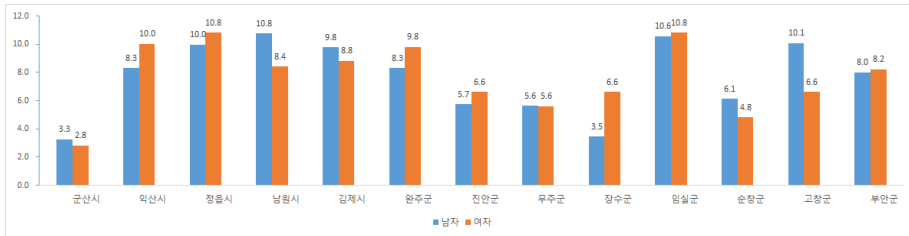


〈그림 2-3〉 시·군별 귀농인 규모

- 각 시·군별로 남성과 여성의 귀농인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남성 귀농인 1,012명이 10.8%에 해당되는 109명이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임실군이 107명(10.6%), 고창군 102명(10.1%), 정읍시 101(10.0%)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전체 499명 중 정읍시와 임실군이 각각 54명으로 전체 21.6%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시는 50명(10.0%), 완주군 49(9.8%), 김제시 44명(8.8%) 등 순으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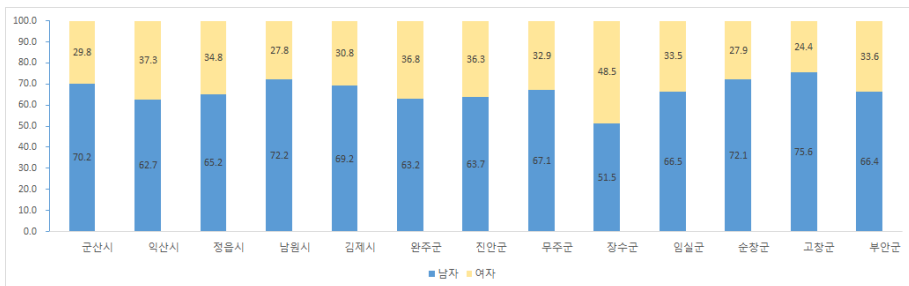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4〉 남녀별 시·군 귀농인 규모

- 각 시군별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남녀 귀농인의 비율을 살펴본 결과, 고창군의 경우, 남성은 75.6%, 여성은 24.4%로 남성이 비율이 가장 큰 지역이었음
- 장수군의 경우 남성은 51.5%, 여성은 48.5%로 남녀 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남성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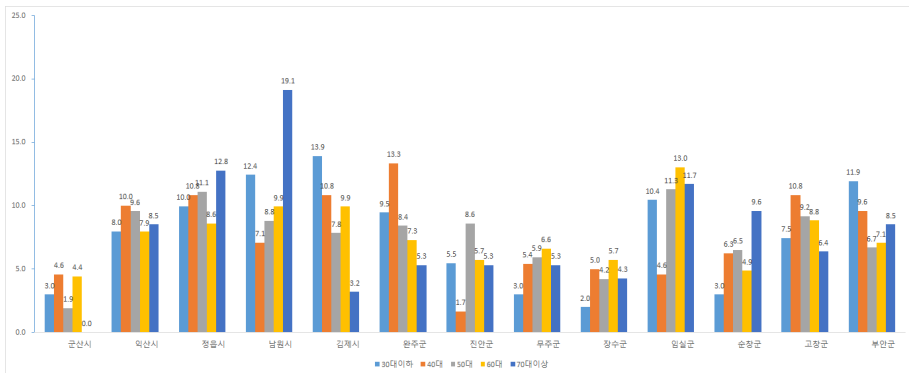


〈그림 2-5〉 시·군별 귀농인의 성별구성

- 전체 귀농인을 연령별 시·군 귀농인 분포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귀농인은 전체 201명 중 13.9%인 28명이 김제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원이 12.4%인 25명, 부안이 11.9%로 24명 등 순으로 집계됨

- 40대의 경우, 240명 중 완주군이 13.3%(32명)이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이 각각 10.8%(26명)로 나타남
- 50대 귀농인을 살펴보면, 임실군은 전체 523명 중 11.3%(59명)의 비율을 보였으며, 정읍이 58명으로 11.1%로 나타남
- 60대 귀농인 453명 중 임실군에 13.0%인 5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남원과 김제는 각각 9.9%로 45명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귀농인은 전체 94명중 19.1%인 18명이 남원시로 이주하였으며, 정읍은 12.8%인 12명, 임실은 11.7%인 11명 등으로 집계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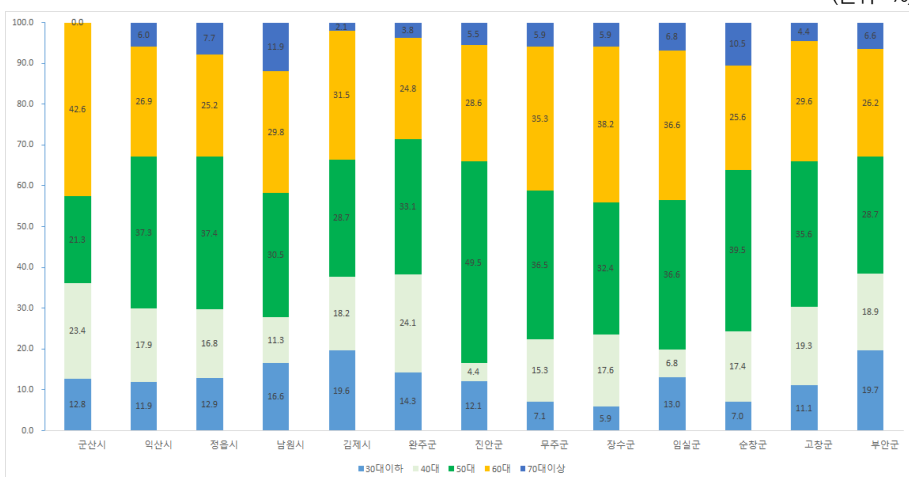


〈그림 2-6〉 연령별 시·군 귀농인구

- 각 시·군별 연령구성 정도를 살펴본 결과, 군산시는 절반 가까운 42.6%가 60대였으며, 40대와 50대는 각각 23.4%와 21.3%로 나타났으나, 30대 이하는 가장 낮은 비율인 12.8%로 나타남
- 익산시의 경우 50대, 60대, 40대, 30대 이하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비율은 37.3%, 26.9%, 17.9%, 11.9% 등으로 나타남
- 정읍시 귀농인의 연령구성을 살펴보면, 50대가 37.4%로, 다음으로 60대가 25.2%, 40대가 16.8%, 30대 이하가 12.9% 등으로 나타남
- 남원시는 50대와 60대가 각각 30.5%, 29.8%로 나타났으며, 30대 이하와 40대는 16.6%와 11.3%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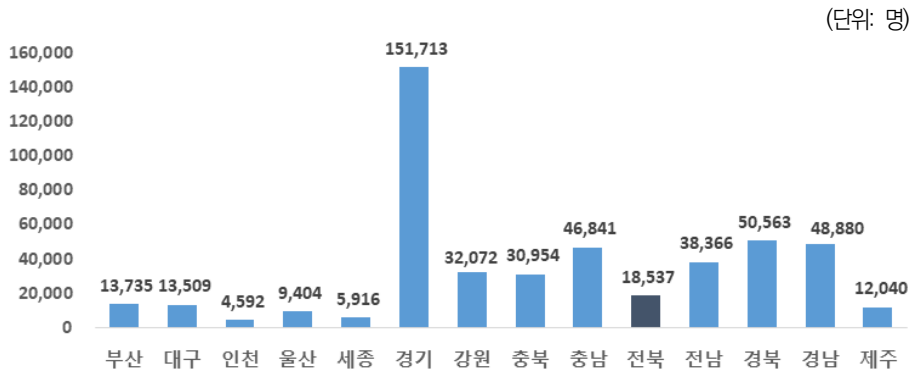
- 김제시의 경우, 60대, 50대, 30대 이하, 40대 등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그 비율은 각각 31.5%, 28.7%, 19.6%, 18.2% 등이었음
- 완주군은 50대, 60대, 40대, 30대 이하 등 순으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33.1%, 24.8%, 24.1%, 14.3% 등이었음
- 진안군은 50대가 49.5%로 귀농인의 절반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8.6%, 30대 이하가 12.1% 등 순으로 나타남
- 무주군 귀농인의 경우, 연령별 비중은 50, 60대, 40대 등 순으로, 그 비율은 36.5%, 35.3%, 15.3% 등으로 나타남
- 장수군의 연령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60대가 38.2%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50대가 32.4%, 40대가 17.6% 등 순으로 나타남
- 임실군은 50대와 60대가 각각 36.6%로 전체 73.2%를 차지함
- 순창군은 50대, 60대, 40대 순으로 각각 39.6%, 25.6%, 17.4%였으며, 고창군 또한 50대, 60대, 40대 순으로 각각 35.6%, 29.6%, 19.3%로 나타남
- 마지막으로 부안군은 50대, 60대, 30대 이하, 40대 순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비율은 28.7%, 26.2%, 19.7%, 18.9%이었음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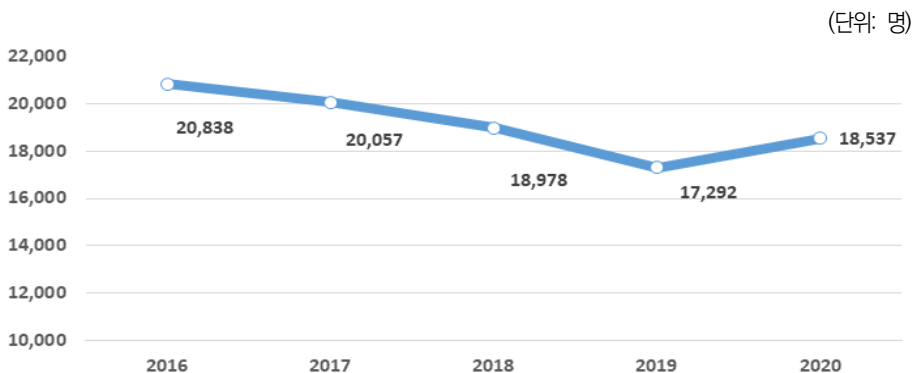
〈그림 2-7〉 시·군별 귀농인의 연령구성

- 2020년 기준 귀촌인 규모는 2019년 444,464명보다 32,658명 증가한 477,122명으로 나타났으며 시도별 귀촌인 규모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151,71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 50,563명, 경남 48,880명, 충남 46,841명 등 순으로 나타남
- 전북으로 유입된 귀촌인은 2020년 18,537명으로, 전국에서 8번째로 집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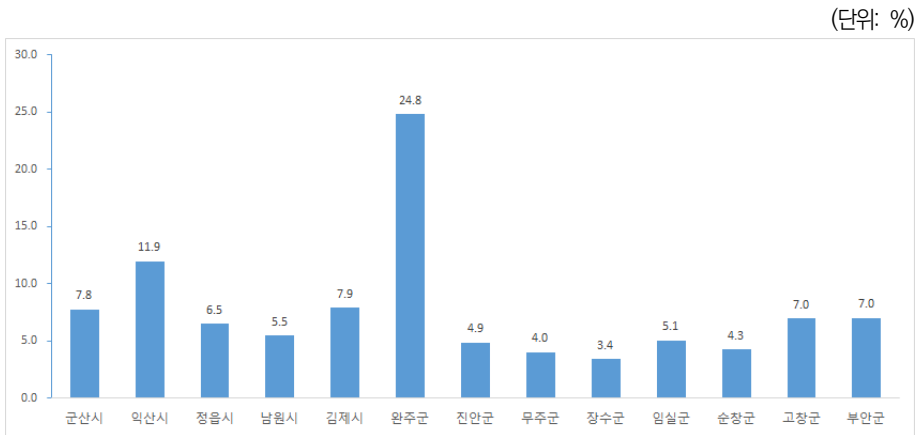
〈그림 2-8〉 시도별 귀촌인 현황 (2020년)

- 전북 귀촌인 규모는 지난 5년간 2016년 20,838명에서 2019년 17,292명으로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였으나 2020년 기준 전년 대비 7.2% 증가한 18,537명으로 집계됨



〈그림 2-9〉 전북 귀촌인 추이 (2016년~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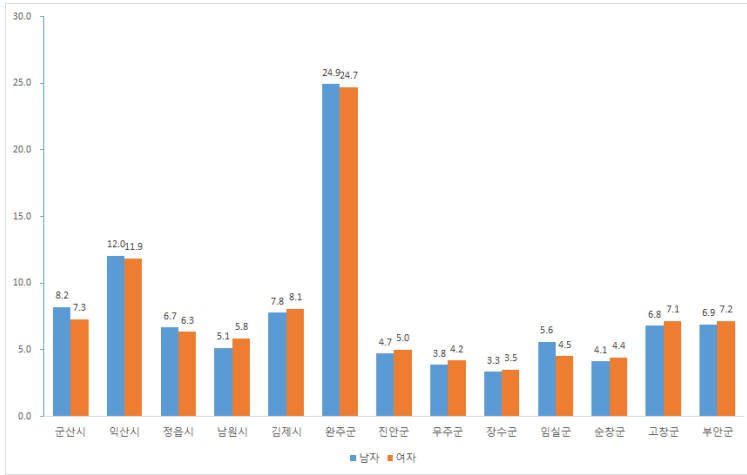
- 2020년 기준 전북으로 이주한 귀촌인의 규모를 살펴보면 전체 18,537명 중 완주군 귀촌인이 4,601명으로 전체 중 24.8%를 차지하였으며, 익산시가 1,070명(11.9%), 김제시 727명(7.9%), 군산시 659명(7.8%) 등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0〉 시·군별 귀촌인 비율

- 성별·지역별 귀촌인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남성 귀촌인은 전체 9,508명 중 24.9%인 2,371명이 완주군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익산시가 1,144명(12.0%), 군산시 778명(8.2%) 등 순으로 나타남
- 여성의 경우, 전체 9,029명 중 24.7%인 2,233명이 완주군에 밀집해 있었으며, 다음으로 익산시가 11.9%(1,070명), 김제시 8.1%(727명)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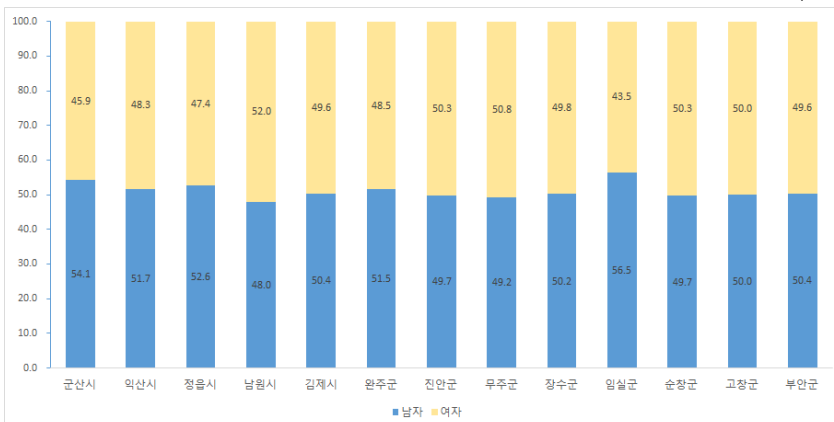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1〉 성·지역별 귀촌인 분포

- 각 지역별로 남녀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남성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은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부안군으로 나타났으며, 여성의 비율이 50%가 넘는 지역은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순창군으로 나타남
- 고창군의 경우, 남녀 비율이 동일했으며, 임실군은 타 지역에 비해 남녀 비율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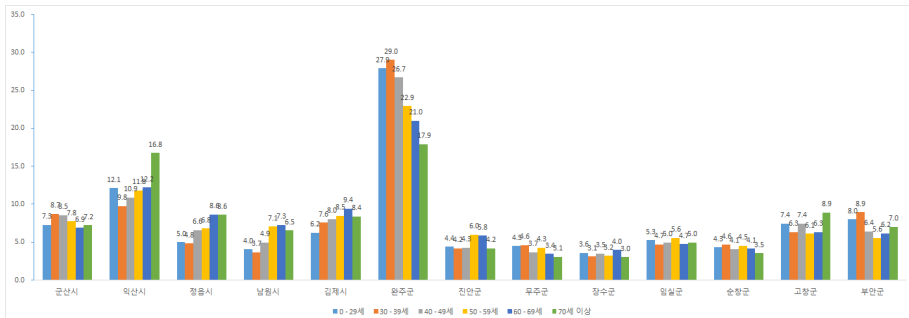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2〉 지역별 남녀 구성비

- 연령에 따른 귀촌인의 지역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29세 이하 귀촌인 3,961명 중 27.9%인 1,105명이 완주군에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익산시가 12.1%인 480명으로 나타남
- 30대의 경우, 완주군이 전체 중 29.0%(912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은 익산시 9.8%(307명), 부안군 8.9%(281명) 등으로 나타남
- 40대 또한 전체 중 26.7%(792명)이 완주에 가장 높았으며, 익산시가 10.9%(322명), 군산시 8.5%(253명) 등 순으로 나타남
- 50대의 경우, 22.9%인 852명이 완주군으로 귀촌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시 11.8%(439명), 김제시 9.4%(315명) 등 순으로 비율을 보임
- 60대 귀촌인의 경우, 21.0%(600명)가 완주군으로 이주했으며, 익산시가 12.2%(348명), 김제시 9.4%(269명), 정읍시 8.6%(246명) 등 순으로 나타남
- 70세 이상 또한 전체 중 17.9%인 340명이 완주군으로 이주하였으며, 다음으로 익산시가 16.8%(318명)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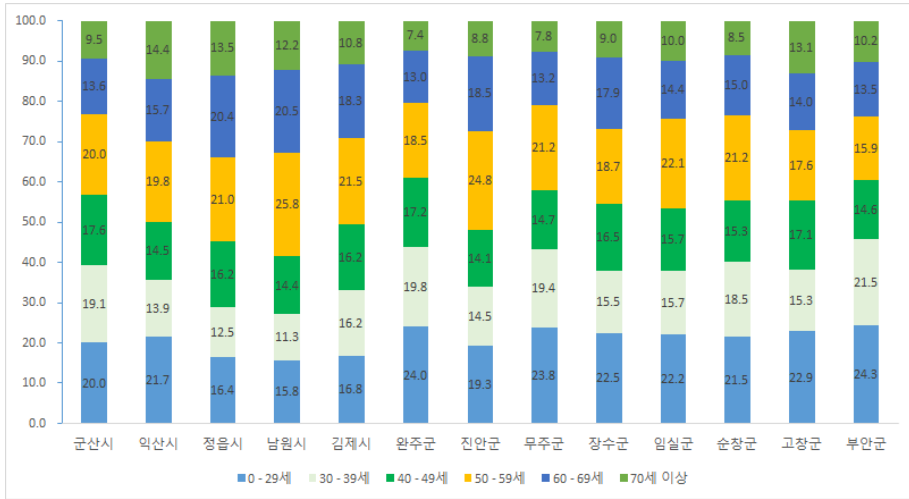


〈그림 2-13〉 연령·지역별 귀촌인 규모

- 각 시·군별 연령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군산시는 29세 이하와 50대가 가장 높은 비율로 각각 20.0%를 차지하였으며, 30대는 19.1%, 40대 17.6% 등 순으로 나타남

- 익산시의 경우, 29세 이하 귀촌인이 21.7%로 높은 비율을 보이며, 50대가 19.8%, 60대 15.7% 등 순으로 나타남
- 정읍시는 50대, 60대, 29세 이하 등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그 비율은 각각 21.0%, 20.4%, 16.4% 등이었음
- 남원시는 50대가 전체 중 25.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60대가 20.5%로 나타남
- 김제시 또한 50대가 21.5%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60대가 18.3%, 29세 이하 16.8%, 30,40대가 각각 16.2%를 차지함
- 완주군의 경우 29세 이하 귀촌인이 24.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30대가 19.8%, 50대 18.5%, 40대 17.2% 등 순으로 나타남
- 진안군의 귀촌인 전체 중 50대가 24.8%를 차지하였으며, 29세 이하는 19.3%, 60대 18.5% 등 순으로 나타남
- 무주군은 29세 이하가 귀촌한 비율은 23.8%였으며, 50대가 21.2%, 30대가 19.4%, 40대가 14.7% 등 순으로 나타남
- 장수군은 29세 이하의 비율은 22.5%, 50대 18.7%, 60대 17.9%, 40대 16.5% 등 순으로 나타남
- 임실군은 29세 이하, 50대가 각각 22.2%, 22.1%였으며, 3,40대의 비율은 각각 15.7%이었음
- 순창군은 29세 이하는 21.5%, 50대 21.2%, 30대 18.5% 등 순으로 보여줌
- 고창군의 경우, 29세 이하, 50대, 40대, 30대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그 비율은 22.9%, 17.6%, 17.1%, 15.3%이었음
- 부안군의 귀촌인 전체 중 24.3%는 29세 이하였으며, 21.5%는 30대, 15.9% 50대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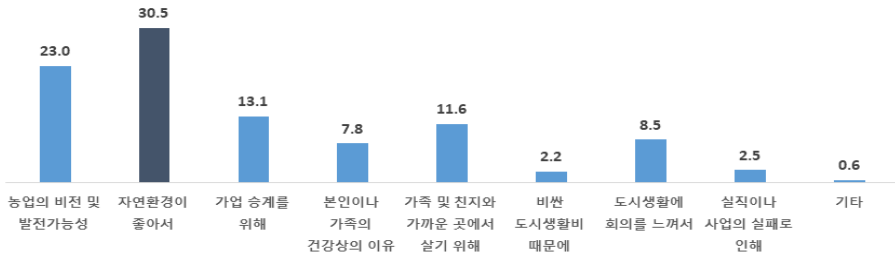


〈그림 2-14〉 지역별 귀촌인의 연령구성

나. 귀농귀촌 특성⁴⁾

-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한 도시민 2,038명은 귀농 동기를 ‘자연환경이 좋아서(30.5%)’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업의 비전 및 발전가능성(23.0%)’, ‘가업 승계를 위해(13.1%)’, ‘가족 및 친지와 가까운 곳에서 살기 위해(11.6%)’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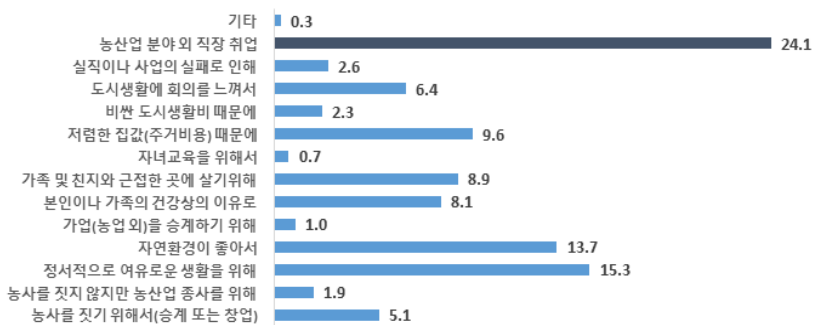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5〉 귀농 동기

- 귀촌의 경우, 동기 1순위로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24.1%)’을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생활을 위해(15.3%)’, ‘자연환경이 좋아서(13.7%)’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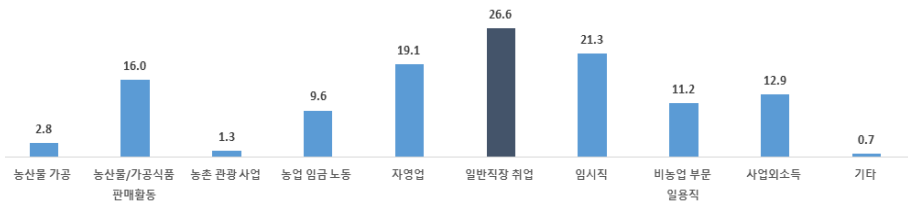


〈그림 2-16〉 귀촌 동기

4)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 농업 이외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귀농인 50.1%가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일반직장 취업(정규직)이 26.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임시직 21.3%, 자영업 19.1%, 농산물·가공식품 판매가 16.0%, 사업외소득 12.9%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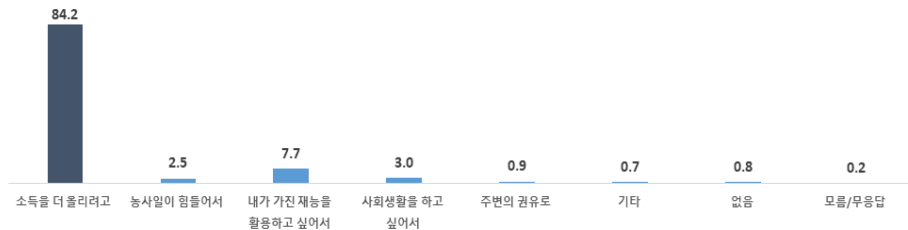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7〉 귀농인의 농업 이외 경제활동

- 농업 생산활동 이외에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이유로 귀농인의 대다수 (84.2%)가 ‘추가 소득’을 위한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이외 ‘내가 가진 재능 및 경력을 활용하고자(7.7%)’ 등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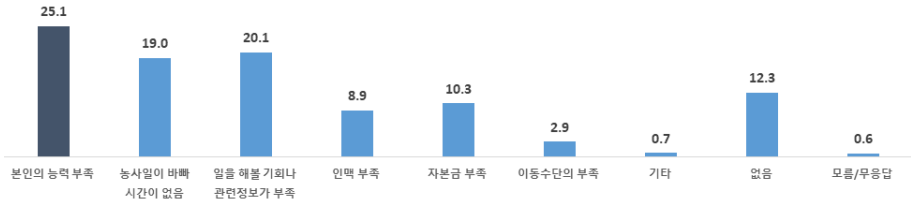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8〉 농업 이외 경제활동 사유

- 농업활동 이외 경제활동에 참여하는데 어려운 이유로 ‘본인의 능력부족 (25.1%)’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기회 또는 정보 부족(20.1%)’, ‘농사일로 시간부족(19.0%)’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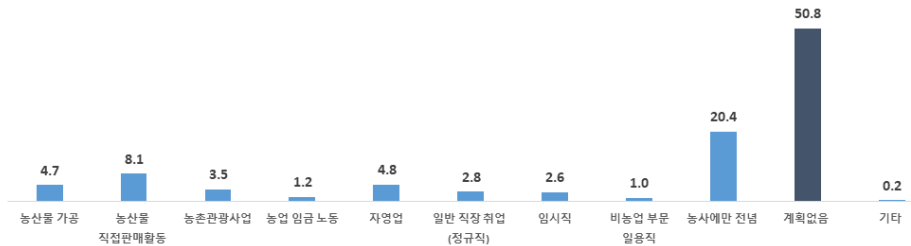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19〉 농업 이외 경제활동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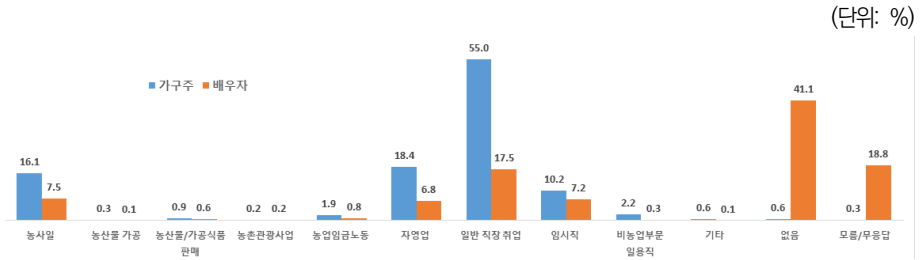
- 귀농인이 향후 희망하는 경제활동을 살펴보면, ‘계획 없음’이 50.8%를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농사에 전념(20.4%)’로 응답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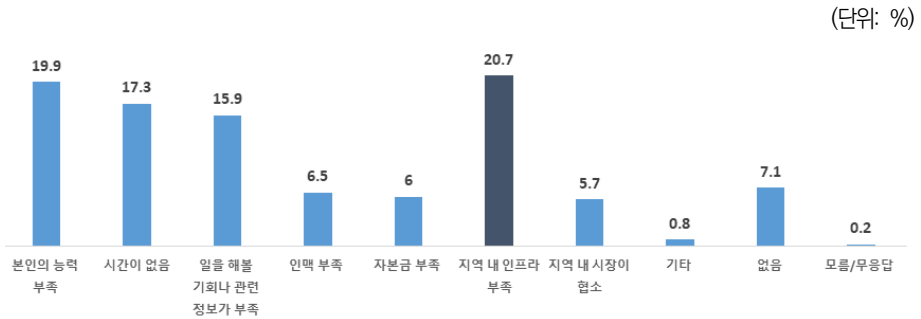
〈그림 2-20〉 향후 하고 싶은 경제활동

- 귀촌인의 88.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경제활동은 가구주의 경우 ‘일반 직장 취업’이 55.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자영업’이 18.4%, ‘농사일’ 16.1% 등 순으로 나타남
- 배우자의 경제활동을 살펴본 결과, ‘활동을 하지 않음(없음)’이 41.1%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림 2-21〉 현재 수행하고 있는 귀촌인의 경제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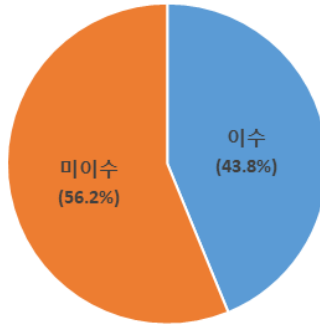
- 귀촌 후 경제활동 참여에 경험하는 어려움은 ‘지역 내 인프라 부족 (20.7%)’, ‘본인 능력 부족(19.9%)’, ‘시간 없음(17.3%)’, ‘일을 해 볼 기회나 정보 부족(15.9%)’ 등으로 나타남



〈그림 2-22〉 귀촌 후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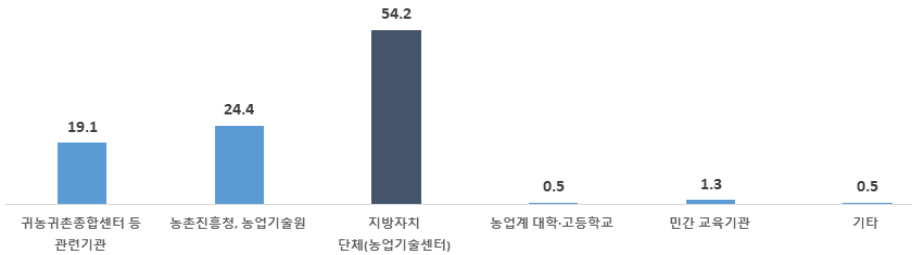
- 귀농인의 귀농·귀촌 교육 이수와 관련하여, 오프라인 교육 이수 여부를 살펴보면, 절반 이상(56.2%)이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은 지방자치단체(농업기술센터)에서 절반 이상인 54.2%가 교육을 받았으며, 농촌진흥청·농업기술원 24.4%, 귀농귀촌종합센터 등 관련 기관 19.1%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그림 2-23〉 귀농인의 귀농·귀촌 오프라인 교육 이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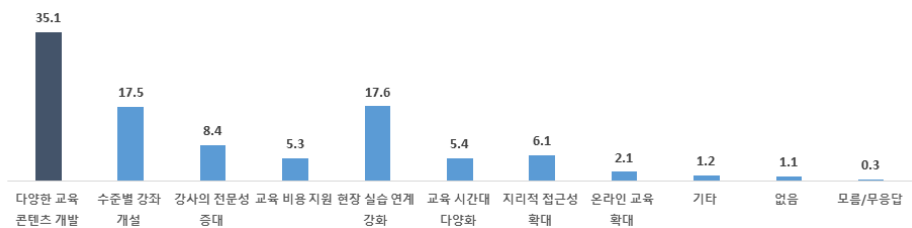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24〉 오프라인 교육을 받은 기관

- 귀농인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35.1%)’, ‘현장실습 연계 강화(17.6%)’, ‘수준별 강좌 개설(17.5%)’ 등을 귀농귀촌교육 개선요인으로 언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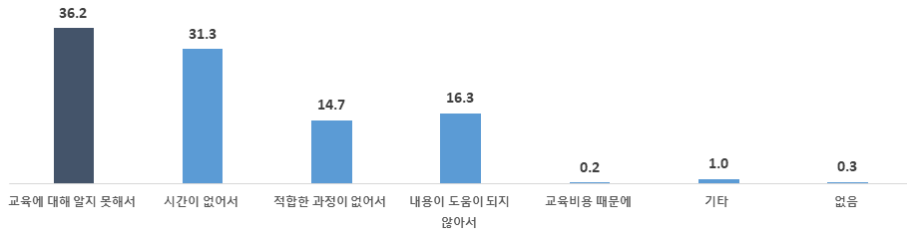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25〉 귀농·귀촌교육 개선방향

- 귀농인은 교육 받지 않은 이유로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36.2%)’를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시간 부족(31.3%)’,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아(16.3%)’, ‘적합한 과정이 없어서(14.7%)’ 등 순으로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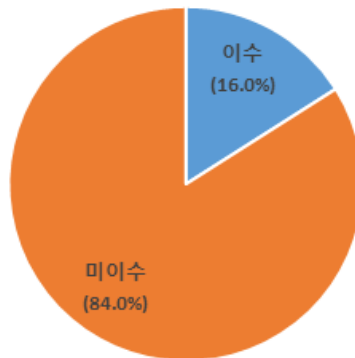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26〉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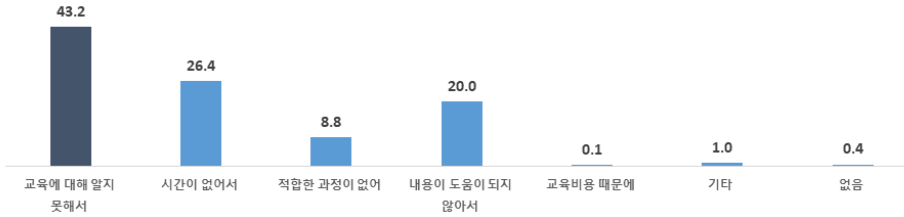
- 귀촌인의 절반 이상인 84.0%가 귀농귀촌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받지 않은 이유로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43.2%)’가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없어서(26.4%)’, ‘내용이 도움이 되지 않아서(20.0%)’, ‘적합한 과정이 없어서(8.8%)’ 등 순으로 응답함

(단위: %)



〈그림 2-27〉 귀촌인의 귀농·귀촌 교육 이수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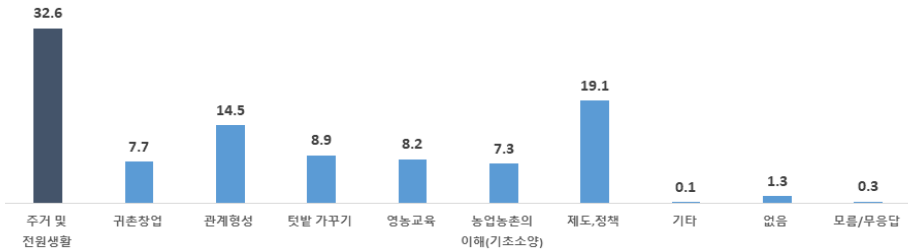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28〉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

- 귀촌인이 생각하는 귀농·귀촌교육 강화를 위한 내용으로 ‘주거 및 전원생활(32.6%)’, ‘제도, 정책(19.1%)’, ‘관계형성(14.5%)’, ‘텃밭가꾸기(8.9%)’ 등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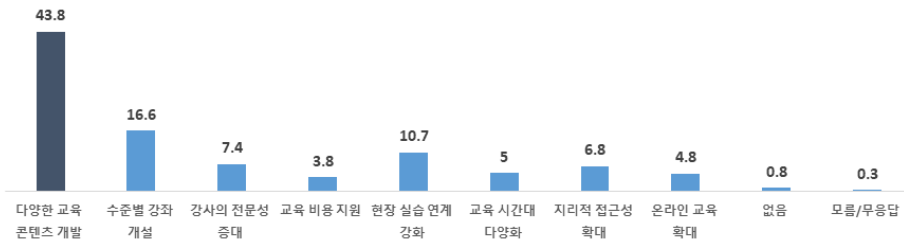
(단위: %)



〈그림 2-29〉 귀촌인의 귀농·귀촌교육 강화 내용

- 개선 부문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43.8%)’로 강조하였으며, ‘수준별 강좌개설(16.6%)’, ‘현장 실습연계 강화(10.7%)’ 등 순으로 나타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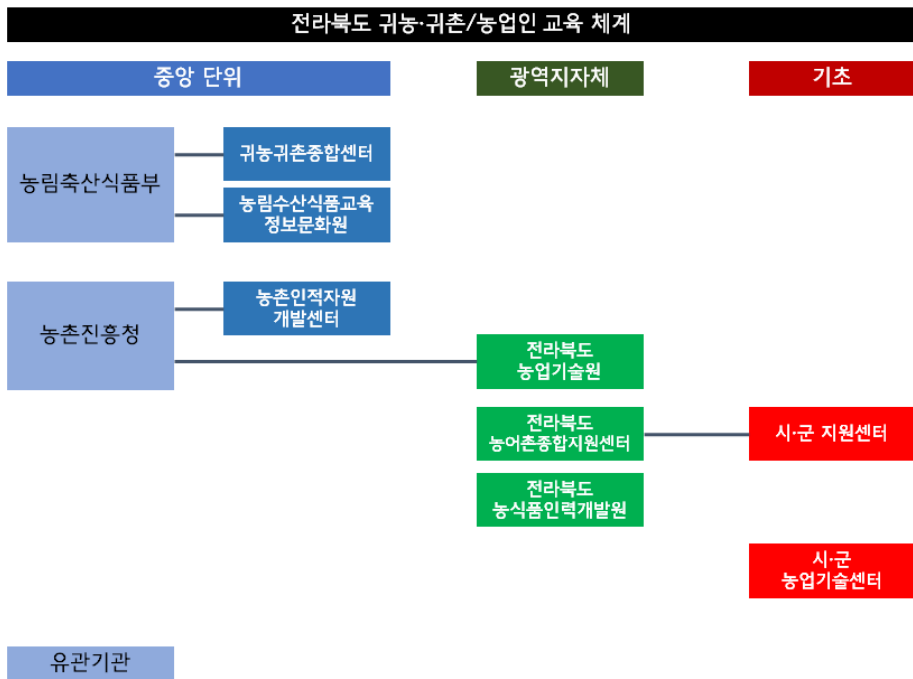


〈그림 2-30〉 귀촌인의 귀농·귀촌교육의 개선사항

2.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체계

가.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추진체계

-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은 중앙단위와 지자체 단위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중앙단위 교육은 농림축산식품부 귀농귀촌종합센터와 농림수산식품교육정보문화원, 농촌진흥청 농촌인적개발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음
- 전북 차원의 교육추진체계를 살펴보면, 지방단위 교육은 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귀농·귀촌),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수행되고 있음



〈그림 2-31〉 귀농귀촌교육기관 체계

나. 중앙기관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1) 귀농귀촌종합센터

- 귀농귀촌종합센터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 등을 대상 온·오프라인교육을 상담 및 정보제공을 함께 수행하는 기관임
- 오프라인교육으로 ‘귀농귀촌아카데미’, ‘맞춤형 공모교육’, ‘청년귀농 장기교육’,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현장실습교육(WPL)’, ‘농업·농촌 탐색교육’, ‘영농 근로 체험교육’ 등이 수행되고 있음
- 귀농귀촌아카데미
 - 귀농귀촌아카데미는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및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론 및 사례 중심의 기초소양교육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교육과정은 12시간 ‘기본공통과정’과 2시간 ‘유형특화과정’으로 구성되어 귀농귀촌종합센터(서울aT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유형특화과정은 소그룹강의로 진행되고 있으며, 귀농귀촌 적응을 위한 사회적 변화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족 및 사회관계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에서 영농창업 관련 농업과 농업 이외 활동과 관련 교육이 지역별에서 운영되고 있음

〈표 2-1〉 귀농귀촌아카데미 교육과정 개요

교육 과정	교육 시간	교육내용	세부과정	교육내용
기본 공동 과정	12	귀농귀촌 초기 어려움 해소를 위한 입문자 필수정보와 기초소양교육	4050세대 중장년 과정	4050세대 영농창업 준비 지원 (삶의 변화관리, 농산업 리스크 매니지먼트 및 창업설계·계획서 작성 등)
			2030세대 청년 과정	2030세대 영농창업 준비 지원 (농업농촌이해, 청년창업농 지원정책, 혁신적인 창업농 아이템, SNS활용 유통·마케팅·우수사례 등)
			여성 과정	여성농업인 방향성 제시 (농촌여성 삶의 이해, 여성농업인 관련 필수교육, 경영설계, 우수사례 교육)
유형 특화 과정	2	귀농귀촌 유형별 전문가 단기특강 지원(탐색, 준비, 생활, 기술, 경영 등 기초이론과 사례 관련 교육)	귀농 특화과정 (예비귀농인)	영농기술 학습, 농업경영마인 및 전략, 창업농 아이템, 농업법인 농산물 유통 등 기초설계와 실전 이해
			귀촌 특화과정 (예비귀촌인)	농촌생활기술, 소규모창업, 농촌일자리, 치유농업·사회적농업 등 다양한 대안농업 이론과 사례 학습

○ 맞춤형 공모교육

- 청년창업인(만 40세 미만), 전직창업농(4050대), 은퇴창업농(60대 이상), 장애인창업(장애인), 귀촌(연령 구분 없음)을 관심·준비자를 대상으로 농업 창업 및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교육
- 교육과정별 교육기관, 주제, 교육시간, 모집인원은 상이하고, 교육비는 70% 국고 지원하고 30%는 자부담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3월동안 전라북도에서 운영된 교육과정을 정리함
- 청년창업농 : 농산업 최신트렌드, 청년창업농을 위한 경영자 마인드, 재무 회계, 창업농 아이템 등
 - 전직창업농 : 삶의 변화 관리, 비즈니스 마인드, 농산물 유통전략, 농촌 가족생활
 - 은퇴창업농 : 은퇴와 농업인으로 변화, 보건의료, 자산관리, 재테크 등

- 장애인 : 귀농과 치유농업, 정착 및 역귀농 사례 등
- 귀촌 : 농촌생활 적응기술, 농촌일자리 탐색, 지역문화와 여가 생활, 참여하는 지역공동체, 소규모 친환경 영농 등

〈표 2-2〉 맞춤형 공모교육

교육유형	시·군	인원	시간	교육내용
전직창업농	정읍	30	160	30평도제식전직창업농
귀촌	완주군	20	38	농부 생활기술학교(영점, 목공, 전기, 배관)

- 청년귀농 장기교육
- 만 40세 미만 귀농 희망 청년 대상으로 정착을 위한 실습 중심 장기 체류형 교육과정
- 교육기간은 6개월 이내로 총 450~1,000시간이 이루어지고 전국 11개 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 교육내용은 복합농업 활동과 농촌생활을 통해 직접 학습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별 상이하며, 교육비는 국비 70%지원 되며, 농식품비 지원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을 인정함
- 다음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 3월까지 진행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음

〈표 2-3〉 청년귀농 장기교육

시·군	인원	시간	교육내용
익산	5	464	예비귀농청년 대상 장기체류형 특용작물교육 (감초, 도라지, 황기, 백수오, 지초 등)
김제	10	450	청년귀농인과 함께하는 딸기 스마트팜 교육
임실	5	467	청년장기실습(유기농토마토, 애오박, 버섯 등)

-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 농촌지역 주소지 이전 후 5년 이내로 또는 농산업 창업경험이 없는 경우 7년 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산업 창업을 위해 창업 중심 실무교육을 지원하는 교육임

- 교육기간은 총 80~100시간이 되며, 교육비는 320,000원으로 국고 70%가 지원되고 농식품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귀농·영농 교육시간이 인정이 됨
- 교육내용
 - (이론) 농산업 창업 환경 이해, 실무요령, 전략 수립, 사업자등록 프로세스 등
 - (컨설팅) 창업 아이템 구체화 지원
 - (과제수행) 토론, 견학, 실습, 사례 분석 등
- 다음은 지난 2020년부터 현재 3월까지 진행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음

〈표 2-4〉 귀촌인 농산업 창업교육

시·군	인원	시간	교육비	교육내용
진안	28	40	170,00	농촌생활기술학교 - 보일러·용접·트랙터 관리, 농촌적정기술, 주택 마련 및 관리, 농촌일자리탐색, 지원정책 및 사기피해 방지, 친환경 포도/표고버섯, 설계 및 컨설팅
진안	15	100	450,000	전통4대장류(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
진안	15	100	450,000	자연발효식초, 발효청제조, 과정 (식초, 곡주, 과실주, 발효청, 창업아이템, 경영, 창업준비 등)

○ 현장실습교육장(WPL)

- 선도농업인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핵심 노하우를 후발농업인에게 전수하는 현장 실습형 교육형으로 전국대표실습장은 9개소, 지역품목실습장은 113개임
- 교육비는 귀농인은 국고지원률이 70%, 농고·농대생 100%, 청년농업인 80%이고 교육내용은 농업의 경우 수도작, 특작, 채소, 과수 등, 축산은 낙농, 양돈, 양계, 한우, 말, 흑염소, 곤충 양봉 등, 기타로 ICT첨단기술, 6차 산업이 해당됨
- 전북은 대표실습장은 진안, 지역은 15개 지역품목실습장이 있음

2) 농림수산물교육정보문화원

- 농어업 인적자원 육성, 농식품·농어촌 촉진, 농어촌 문화의 가치 확산·홍보, 농어업경영체의 역량 제공 등을 위해 농림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⁵⁾
- 농림수산물교육정보문화원은 온라인교육과 집합교육을 농업교육포털 (AgriEDU)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종합센터와 달리, 귀농귀촌인 뿐만 아니라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온오프라인 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영농기술, 경영, 비농업부문(유통, 마케팅 등), 정책 이해 농촌생활(외국근로자와의 상호작용, 여성농업인정책 이해, 지역주민과의 관계 등)에 대한 온라인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다음은 2020년에서 현재까지 전라북도에서 운영된 오프라인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2-5〉 농업교육포털(전라북도 오프라인교육)

대상	시·군	인원	시간	교육비	교육내용
귀농 귀촌	진안	24	40	170,000	(농촌 생활기술 학교) - (생활)귀촌설계·컨설팅, 지역주민과의 화합, 지원정책, 사기피해 방지, 농촌사회경제, 지역문화·여가생활, 농가체험 - (영농)소규모 친환경경영농(표고버섯, 딸기, 포도), 농기계 운전 - (적정기술)
	김제	15	605	2,032,000	(청년귀농 장기교육) - (딸기)육묘와 재배기술 현장 실습, 품목탐색, 신소득작목 탐색, 주민과의 교류방법 등
농업인	익산	10	450	1,920,000	(성공하는 청년창업농을 위한 약용작물 스마트팜 교육) - 작물선정, 재배기술 습득, 토양이해, 친환경농업을 위한 현장교육, 1·2·3차 농촌융복합산업 이해 및 실습, 한국식품클러스터진흥원 견학

5)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86%8D%EB%A6%BC%EC%88%98%EC%82%B0%EC%8B%9D%ED%92%88%EA%B5%90%EC%9C%A1%EB%AC%B8%ED%99%94%EC%A0%95%EB%B3%B4%EC%9B%90>

3)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⁶⁾

- 농촌진흥청 소속으로 농진청 소속공무원·농촌진흥사업 종사 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 향상과 농업인 교육훈련 등을 위해 2019년 2월 26일 설치되었으며, 현재 전북 전주시에 위치하고 있음
-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역시 온·오프라인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농업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함
- 농업인의 경우 농업경영 전문역량, 스마트농업기계 관련 정책지원 등 전문적인 기술과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이 있음
- 집합교육은 공무원교육, 농업인교육, 스마트농업 기계교육, 정보화·통계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 농업인교육
 - 농업인 대상교육은 농업기술과 품목별 전문기술을 주 교육내용으로 하는 '전문역량'과 취·창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지원'을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음
 - '전문역량' 분야 '농업경영'은 농생명산업 및 진로, 농업경영 융복합, 브랜드 및 디자인, 유통, 정보화, 공감·소통대화능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품목별 전문기술'은 식량, 축산, 채소, 환경, 과수, 곤충, 특작 등이 해당됨
 - 2021년 교육훈련계획에서 오프라인 교육을 재정리함

6) 농촌진흥청 농촌인력자원개발센터(2021). 2021년 교육훈련계획

〈표 2-6〉 농업인적자원개발센터 오프라인교육

분류		과정명	인원	일수	교육비	교과목
농업인전면교육	농업경영	가업승계농소통 (강의,토론)	40	2	무료	◆ 커뮤니케이션스킬(가업승계농 부자간 소통방법) ◆ 공감능력 배양(역지사지 이해하기) ◆ 세무회계(경영승계 관련 세무 이해) ◆ 사례공유(갈등 사례 공유 및 토의) ◆ 기타
		청년농업인육성 (강의,실습,토론,견학)	40	2	무료	◆ 청년농업인 육성 정책방향(청년농업육성 정책 이해와 미래비전 제시) ◆ 디지털농업과정(노지 디지털농업 연구개발 및 농업 빅데이터 활용 현황, 디지털농업 기계의 이해와 실습, 디지털농업 활용 우수 비즈니스 모델 사례) ◆ 핵심기술과정(쌀산업교육, 발작물 품종 선택 및 고품질 기술, 품종전시포 견학) ◆ 경영전략수립과정(푸드비즈니스, 경영교육, 유통, 포장디자인교육, 2021 식품시장 트렌드 등 마케팅 전략 과정) ◆ 문제해결과정(자금, 기술, 정책 등 복합적 문제해결 과정)
		청년농업인축산산업 (한우) (강의)	20	2	무료	◆ 고급육 생산(한우 자가 TMR 제조 방법) ◆ 분뇨자원화(가축분뇨 퇴비 제조 원리, 퇴비화기술, 부속도관리 등) ◆ 축산스마트팜(ICT융합 축사 환경제어, 생체관리 시범사업 등) ◆ 역량강화(한우 승계농 경영마인드 제고 방안) ◆ 가축개량(한우품종 및 개량관리) ◆ 사양관리(송아지, 육성우, 비육우, 번식우 관리 등) ◆ 사례발표(한우 명인에게 듣는 승계농 정착사례) ◆ 기타
정책지원	스마트농업기계	운전기능현장실무 (강의,실습,토론)	20	5	무료	◆ 농업기계안전(농업기계 안전사고 현황과 사례) ◆ 기종별 운전기술(트랙터, 경운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 기타

다. 시·군 농업기술센터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대학,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교육, 신규농업인교육, 소비자교육, 농업기계교육 등이 운영되고 있음
- 농업인대학은 크게 품목 중심과 기능 중심으로 나뉘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으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농정시책과 영농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을 포함한 전문교육을 포함하고 있음
- 농업인대학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6개월에서 1년까지의 교육기간 동안 진행됨
- 농업인대학은 15개의 과정 중 귀농귀촌인 대상으로 ‘귀농귀촌’ 교과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음
- 새해농업인실용교육과정은 농업기술, 농촌자원, 농업경영의 전문성을 역량강화하기 위한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음

〈표 2-7〉 농업인대학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교육명	분류	과목명	교육기간
농업인대학	품목중심	식량작물	6개월 ~ 1년
		과수	6개월 ~ 1년
		채소	6개월 ~ 1년
		특용작물	6개월 ~ 1년
		화훼	6개월 ~ 1년
		조경	6개월 ~ 1년
		축산	6개월 ~ 1년
	기능중심	친환경	6개월 ~ 1년
		관광	6개월 ~ 1년
		경영	6개월 ~ 1년
		도시민생활원예	6개월 ~ 1년
		유통·가공	6개월 ~ 1년
		자격증	6개월 ~ 1년
		귀농·귀촌	6개월 ~ 1년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공통	농정시책	6개월 ~ 1년
	전문	영농기술	6개월 ~ 1년
		농촌자원	6개월 ~ 1년
		농업경영	6개월 ~ 1년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신규농업인 교육, 소비자 대상 교육, 농업기계 교육이 또한 운영되고 있음
- 신규 농업인 양성을 위해 기초·현장실습과 창업지원 교육이 운영되는데, 기초·현장실습은 영농정착기술교육, 선도농가입주 현장실습교육을, 창업 지원은 신규농업인 창업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시·군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계현장실무와 농업기계순회교육(임대사업운영 포함)을 통해 농업기계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교육내용에 따라 교육은 1일에서 7개월 동안 진행됨

〈표 2-8〉 시·군 농업기술센터교육

교육명	분류	과정명	교육기간
품목별 교육	준전업농 중심	품목별상설교육	1~5일
		당면과제 현장교육	1~5일
		수출품목교육	1~5일
		경영·마케팅	1~5일
		GAP교육	1~5일
	중소농 중심	농식품가공	1~5일
		경영·정보화	1~5일
		농약안전관리	1~5일
신규 농업인교육	기초, 현장실습	영농정착기술교육	1~4주
		선도농가입주 현장실습교육	3~7개월
	창업지원	창업지원	신규농업인 창업지원
농업기계 교육	시·군	농업기계현장실무	1~2일
		농업기계순회교육	1일

- 전북 내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농업기술, 농산물가공, 농업경영, 농촌관광 등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을 상이하게 구성되어 있음
-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과정은 농업·농촌이해를 시작으로 농창업 관련 교육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영농이론, 현장실습, 소양교육을 주 교육내용으로 한 ‘귀농학교’가 14개 시·군 농업기술센터 중 절반 이상이 운영하고 있음

- 그 외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한 센터별 자체 교육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농 관련, 현장교육 등이 해당함
- 5년 이내 귀농인 또는 청장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교육은 기초영농과 현장실습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음

〈표 2-9〉 귀농귀촌인 및 신규농업인/청장년층 대상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귀농 귀촌인	귀농학교	영농이론, 현장실습, 소양교육	무료	8개 ⁷⁾
	귀농귀촌인 품목별교육·현 장교육	천연발효식초, 생활목공예, 허브응용교육	무료	고창
		품목별 농식품 교육	무료	고창
		선도농가를 통한 작목별 이론 교육 및 실습	무료	김제
	농업경영	농업경영마케팅, 사업성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법	무료	김제
	귀농창업	농업분야 스타업 창업교육	무료	김제, 순창 임실
신규 귀농인 /청장년층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교육	귀농을 위한 농업농촌 이해, 토양포장관리, 작물 생리, 농기계, 품목별 재배기술 등	무료	임실, 정읍 진안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연수생 희망 작목별 선도농가 협력 현장실습 추진	무료	군산, 부안 순창, 임실
	친환경 농업인대학	친환경 토양관리, 해충관리, 미생물관리, 농기계실습	무료	전주

- 다음은 청년농업인 또는 (예비)농업인 대상 교육과정은 농업에 대한 이해와 함께 농업·비농업부문 창업 관련 경영 역량 강화, 성공사례 제시 등에 대한 교육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들 교육들은 시·군별 자체 교육내용을 개발하여 운영되고 있음

7) 고창, 군산,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전주, 정읍

〈표 2-10〉 청년(예비)농업인 대상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청년 (예비) 농업인	청년농업인 기술창업 역량강화	기초소양, 창업기초, 기술사업화, 온라인마케팅	무료	순창
	유기농업 기능사반교육	작물재배, 토양관리, 유기농업일반	무료	순창
	승계농교육	승계농 갈등 극복사례, 사례 등	무료	완주
	농업기술원 연계 귀농창업과정	농산업비즈니스 전략, 농기업 1인창업 특강, 휴먼브랜드, 귀농창업 성공사례 벤치마킹	무료	임실
	청년농업인 역량강화 기술교육	6차산업, 들녘경영체 등 컨설팅, 사진촬영 기법 및 편집, 사회적기업, 농업법인 등 컨설팅	무료	전주
	식량산업 청년농업인교육	스마트농업, 푸드비즈니스, 기획전시회 및 박람회, 맞춤형 컨설팅, 토론회	무료	진안

- 농업인 대상 교육은 앞서 제시된 시·군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교육 과정을 반영한 교육들로 일부 센터에서 개발한 교육내용을 제외하고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업이 개설·운영하고 있음
- 농업인대학과 새해농업인실용교육 경우, 특히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영농기술 및 농업경영 관련 교육이 6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인대학의 경우 시·군별 다양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데, 주로 관광, 경영, 생활원예 등 기능 중심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표 2-11〉 농업인대학 및 새해농업인실용교육

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농업인	농업인 대학	농촌개발대학 명품농업대학	치유체험, 전자상거래, 저탄소농업기술, 토양진단, 친환경농업, 6차 산업화, 현장견학	자부담 (10만원)	고창, 남원
		신소득 작목과정	신소득 작목과정	무료	군산
		농업농촌 혁신대학	친환경농업전문가, 시설하우스 블루베리, 현장강사양성	무료	순창
		품목별 재배기술/ 현장실습	과수, 채소, 식량작물	무료	장수, 정읍 진안
		치유농업	원예, 산림, 동물, 치유 등 이론 및 실습교육	무료	장수
	새해 농업인 실용 교육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품목별 재배기술, 마케팅 등 과정	무료	남원, 임실 장수, 전주 정읍, 진안

-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은 주로 영농기술, 가공, 농기계·안전, 농업경영, 농촌관광, 정보화, 생활기술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영농기술과정은 신규농업인 대상 기초기술부터 친환경농업, 농산물관리 등과 관련 교육들이 지역별 다양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 가공 및 경영의 경우, 지역 자원을 활용한 가공상품 개발·관련 가공 식품 창업, 식품안전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농식품 가공창업교육은 6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쌀 생산량이 높은 전북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쌀을 활용한 교육이 다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음

〈표 2-12〉 영농기술 및 가공 관련 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농업인	영농기술	향토산업 육성산업	GAP인증 이해 및 인증신청을 위한 신청서 작성과 현장컨설팅	무료 김제, 임실
		농업기술 전문교육	토양관리, 미생물활용, 세무지식, 시설하우스안전	무료 군산
		신규농업인 영농기초기술	영농기초기술	무료 남원
		친환경농가 병충해방제 실습교육	친환경농업 약제별 이론 효과 사례, 방제약제 사용시물에 따른 효과감소 증가 이론	무료 순창
		고온성 GCM 자재활용교육	친환경농업의 필요성 및 효과, 농업미생물 효과, 고온배양 GCM 효과 및 활용	무료 순창
		농산물우수 관리제도 (GAP)교육	농산물우수관리제도 교육	무료 완주, 장수
	가공·경영	식초문화 아카데미	발효식초 제조기술 습득	자부담 (20만원) 고창
		쌀가루활용 능력향량	쌀을 활용한 실습교육 (떡케이크, 경단 등)	무료 김제, 군산 부안, 임실 진안
		농식품 가공창업과정 (기초,심화)	식품산업이해, 식품가공이론, 유형별 가공실습, 마케팅	무료 고창, 순창 완주, 익산 임실
		HACCP팀장	HACCP 관리방법	무료 김제 진안
		치유·체험농장 치유식 프로그램개발	발효식품 상품개발, 향토음식 상품개발, 차문화 이해, 퓨전학식상품개발, 팜파티개발, 핑거푸드 상품개발	무료 김제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농산물을 활용한 식품교육	무료 무주
		지역농산물 가공교육	요리실습/자격증	무요 부안 진안
		식문화 활용 및 식농체험 학습	식문화 활용 및 식농체험학습 프로그램, 아동요리지도방법 이론과 실습	무료 전주

- 농기계운전 및 안전, 농업경영 교육은 아래 (표 2-13)과 같음
- 농기계운전 및 안전은 농기계 안전 운전, 농작업 안전을 위한 교육과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소형건설기계와 농업용 드론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자격·면허증 취득 교육과정이 다양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음
- ‘작지만 강한 농업경영체’이라고 칭하는 강소농이 규모는 적으나 역량 개발을 통해 경영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경영관련 역량교육, 컨설팅, 상품기획 등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다수의 센터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임

〈표 2-13〉 농기계·안전 및 농업경영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농업인	농기계·안전	농업용 드론 자격취득 과정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교육	자부담 (33%)	고창, 군산 김제, 익산 임실, 진안
		소형건설기계 면허증 취득교육	이론 및 실습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무료	군산, 김제 익산, 전주 진안
		농기계 순회수리 안전교육	수명연장과 이용율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		남원, 임실
		농기계 안전교육	소형트랙터 이론 및 실습교육	무료	순창
		농작업 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교육	재난종합체험, 위기탈출체험, 상처지혈 및 응급처치교육, 심폐소생술, 농작업안전교육	무료	익산
	농업 경영	강소농 경영개선 교육육성	경영개선 역량 향상 교육, 경영진단, 맞춤형 컨설팅, 자율모임체 활동지원, 상품기획, 친환경교육, 디자인컨설팅	무료	고창, 군산 남원, 부안 순창, 완주 익산, 임실 정읍

- 다음은 체험농장 및 운영자를 위한 교육은 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관리, 교사양성, 안전교육, 농장 품질인증 등 관련 교육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다수 기초자치단체에서 교육농장 교사양성반이 운영되고 있음

- 그 외 체험농장 운영자 역량강화, 농장품질 관리, 교육 안전 등 경영을 위한 교육이 주를 이루고 있음

〈표 2-14〉 농촌관광교육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농업인	농촌관광	지역단위 농촌관광 아카데미	체험운영자를 대상으로 농촌관광 전문역량 강화	무료	김제
		교육농장 교사양성반 (기초/심화)	농촌교육농장의 이해, 안전한 교육환경, 학교교육 과정 이해	무료	김제 무주 완주 임실 장수
		참봉활용 체험전수교육	부안참봉을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전수	무료	부안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컨설팅·교육	품질인증 필수요소, 제출서류·프로그램 작성 및 검토	무료	완주 임실
		농촌체험관광 운영자 응급처치교육	응급처치 목적 및 행동요령, 상황별 응급처치	무료	진안
		생활문화 기술학교	농촌체험관광 해설사, 우리떡 지도사, 천연염색	무료	정읍

- PC, SNS , 동영상 등을 활용하여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컴퓨터, 유튜브, SNS를 사용,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관련 교육이 다수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이 진행되면서 진안의 경우 지식재산권 전문교육이 스마트스토어교육과 함께 운영되고 있음

- 그 외 마을만들기 활성화를 위한 리더 역량 강화 교육과 농촌과학기술의 예로 목공, 머신퀵트, 식물 가드닝, 정리수담 등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활과학기술 중 일부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을 하고 있음

〈표 2-15〉 정보화 및 기타

대상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비	비고
농업인	라이브커머스 크리에이터 양성	라이브커머스 이해, 촬영기법 실습 및 생방송 진행	무료	고창, 남원 순창
	스마트스토어 교육	사례 및 마케팅, 상품관리, 판매정산 관리, 농장디자인	무료	고창, 군산 무주, 완주 전주, 진안
	상품리플릿 제작하기	스마트폰 카메라 설정, 사진 보정, 텍스트다루기, 출판	무료	고창
	정보화교육	사진촬영, 스마트스토어, 유튜브활용, 컴퓨터활용	무료	김제, 남원 무주, 완주 임실, 전주 정읍
	지식재산권 전문교육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해, 상품 및 서비스업 브랜드 중요성, 침해사례, 침해예방을 위한 대책	무료	진안
	역량 강화	마을만들기 활성화 리더역량 강화교육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센터소개, 마을만들기 이해, 리더십, 리더 자세와 역할, 마을공동체사업 의미와 방향	무료	군산
	생활 기술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창업교육 목공, 머신퀼트, 식물가드닝, 정리수납, 홈카페마스터, 치유농업, 토탈공예	자부담 (자격증)	부안, 순창

- ‘시·군 농업기술센터’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업인으로 정착을 위한 농업과 농창업 관련 기초교육과 현장실습, 경영 등의 이론 및 실습 중심 교육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이 농촌사회 인적자원으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은 소수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리더 역량 강화, 생활과학기술교육 및 창업이 해당될 수 있음
- 또한, 대다수의 교육의 대상은 농업인으로, 농업과 비농업부문 활동과 창업, 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이론과 실습 교육들이 운영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교육은 부안과 순창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과학 기술교육으로 볼 수 있음

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및 농업인 교육

1)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및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

-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는 생생마을만들기, 농촌관광, 귀농귀촌, 농촌유학 등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전북 농촌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 예비 귀농귀촌인 대상 전북 지역 소개와 귀농귀촌 기초 등 이론교육, 농장 견학, 체험 실습 등 현장교육, 영농교육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귀농귀촌 교육은 서울사무소 또는 지역 관련 기관·단체에서 운영하는데, 귀농귀촌 기초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 대상으로 귀농귀촌 시 필요한 기초 정보(농지, 작물 선택, 가공 등)를 제공하는 이론교육으로, 교육비는 3만원임
- 현장교육은 귀농귀촌 희망자를 대상으로 전북 13개 시·군 지원센터(협의회)에서 신규 농업인 및 귀농귀촌인 농장, 농촌융복합산업(6차), 임시거주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장체험은 전라북도 농어촌종합지원센터, 시·군 현장교육은 각 시·군 지원센터를 통해 운영됨
- 전라북도 귀농·귀촌지원센터는 2021년 기준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서 운영되며,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교육은 ‘귀농귀촌학교’, ‘창업농 및 농업기술교육’, ‘마을융화교육’, ‘농업 이외 실용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귀농귀촌학교
 - ‘귀농귀촌학교’는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이론과 현장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귀농귀촌학교는 귀농귀촌 입문 교육과정으로서 다수의 시·군이 운영되고 있음
 - 일부 시·군의 경우,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귀농귀촌교육이 운영되고 있으며, 귀산촌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
 - 남원의 경우, 여성과 청년을 위한 귀농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며, 임실은 은퇴예정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화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 남원과 진안은 귀산촌을 중심으로 귀산촌학교가 운영되고 있음

〈표 2-16〉 전북 학교형 귀농·귀촌교육

교육명	대상	주요내용	비고
귀농귀촌 학교	예비 귀농귀촌인	이론 및 현장실습 교육 제공	정읍
여성귀농학교	여성 귀농귀촌인	여성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원
청년귀농 귀산촌학교	청년 귀농귀촌인	청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남원
귀농산촌 입문학교	예비 귀농귀촌인	산촌생활입문 교육 및 주민 워크샵 등 귀농산촌교육 및 상호이해 교육 프로그램	진안
진안 아주심기학교	귀농귀촌인	농사입문, 농촌생활실용, 지역정착 귀농촌 선배와 함께하는 워크숍 등	진안
현장실습 학교운영	예비 귀농귀촌인	예비 귀농귀촌인 현장 체험교육 진행	부안, 임실
귀농학교	귀농귀촌인	귀농 및 귀촌 정착을 위한 귀농학교 운영	장수
귀농귀촌 교육 (은퇴예정자)	귀농귀촌 희망 은퇴예정자	은퇴예정자 귀농귀촌 현장실습 교육	임실
예비귀농귀촌인 현장실습 학교	예비 귀농귀촌인	현장 체험교육	부안
귀농체험(현장실 습)학교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을 위한 지역탐색 투어	완주, 무주

○ 창업농 및 농업기술교육

- 귀농귀촌교육은 ‘전업농·창업농’을 위한 이론 및 실습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전업농을 위한 교육은 작목뿐만 아니라 성공사례분석, 농기계교육, 농약 관련 교육 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음
- 무주와 부안의 경우, 농산업 분야에서 창업을 희망하는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음

〈표 2-17〉 전북 창업농 및 농업기술교육

교육명	대상	주요내용	비고
농산업 창업교육	귀농귀촌인	농산업 분야 창업을 위한 교육 추진	무주, 부안
귀농귀촌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인	작목별 이론 교육 및 실습 교육	김제
예비 귀농인 학습	예비 귀농귀촌인	귀농교육 및 성공사례발표 등	무주
귀농귀촌 교육	귀농귀촌인	초기 귀농귀촌인 대상 농기계, 성공사례 교육 등	무주
농기계 기술교육	귀농귀촌인	농촌생활에 필요한 소형특수 농기계기술학교	임실
귀농인 농기계 실습 교육	귀농귀촌인	귀농인의 농기계조작을 위한 교육	부안
귀농초보 농촌 체험/농기계교육	예비 귀농귀촌인	농촌 안착을 위한 작물 교육 및 농기계 교육 및 실습 실행	익산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지역민	농기계교육(LS엠트론기술), 천연농약교육	군산

○ 마을융화교육

- 마을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원활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음
- (찾아가는) 마을융화교육은 귀농귀촌인과 선주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유튜브 교육, 현장방문, 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표 2-18〉 마을융화교육

교육명	대상	주요내용	비고
마을융화교육	귀농귀촌인	귀농·귀촌인이 지역민과의 융화를 통해 지역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증진	군산, 무주
마을단위 찾아가는 융화교육	귀농귀촌인, 지역민	마을단위 융화교육, 체험프로그램 등	정읍, 군산

○ 농업 이외 실용기술교육

- 다수 지자체에서는 농업 이외 실용기술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과의 화합과 융화를 위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실용기술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 실용기술교육 영역은 취미부터 직업 관련 기술까지 다양하며, 시·군별로 차별화된 교육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음
- 또한 농업 활용한 치유농업, 농산물 가공이 등과 직·간접적인 교육이 일부 시·군에서 진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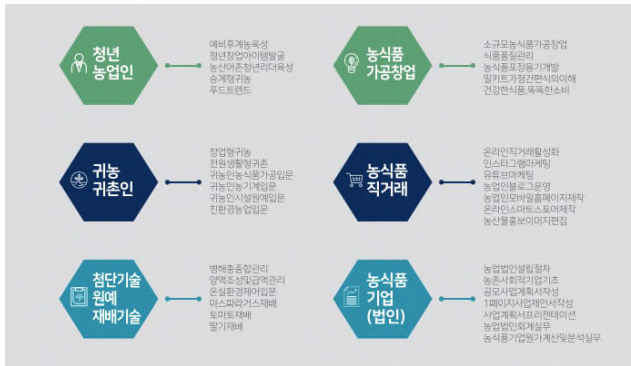
〈표 2-19〉 전북 농업 외 실용교육

교육명	대상	주요내용	비고
농촌살이 적정기술	귀농귀촌인	치유농업, 사업계획서 작성, 갈등관리, 리더 양성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남원
지역민과 함께하는 실용교육	귀농귀촌인, 지역민	스마트스토어 실용교육, 오순도순 실용교육, 천연염색 실용교육	정읍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교육, 목공기초, 생활인문학	군산
		목공기술교육, 가족공예, 보일러교육	임실
		농기계, 목공예, 전기용접, 정보화 등	남원
		핸드커피 실용교육, 트리클라이밍, 도자기	김제
		농촌생활기술교육, 천연화장품, 용접심화교육	완주
		농산물 활용한 알코올 발효와 식초 발효에 대한 기초이론과 실습	진안
		용접, 목공예, 바느질, 제과제빵, 공예	무주
		제과제빵, 에코힐링교육, 다육이체험	부안

2)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⁸⁾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귀농귀촌, 가공, 유통, 축산, 농기계 등 농업 관련 모든 분야의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한 종합교육기관임
- 전북 농식품인력개발원은 농업·농촌 여건,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교육수요에 대응하여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음
- 2021년은 사람·환경 중심의 삼락농정 전문 인력 양성, 스마트 농업 기술혁신 및 실용농업 육성, 농촌융복합산업 확대, 시장변화 대응 유통·마케팅 교육 강화, 수요자 중심 교육환경 중심을 전략으로 ‘삼락농정 미래인력’, ‘과학영농’, ‘농식품 가공’, ‘농식품 유통’, ‘농촌체험관광’, ‘축산’, ‘농업마이스터대학’ 7개 분야 130개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삼락농정 미래인력 양성’분야 총 23개 교육과정은 청년리더·후계농육성, 다양한 농산업 간접체험을 통한 안정적인 귀농귀촌인 정착, 농생명산업 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과학영농’분야, ‘축산’분야 교육과정은 스마트농업 기술혁신 및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축종별·유형별 전문교육, 실습 중심 교육 등을 목적으로 각각 35개, 12개가 운영되고 있음
- 다음은 농업인의 농식품가공 역량 강화, 농식품가공 트렌트 반영한 교육, 다양한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산업 관련 21개 ‘농식품가공’과 5개 ‘농촌체험·관광’ 교육과정이 운영됨
- 마지막으로, ‘농식품 유통’분야의 20개 교육과정은 농식품 경영체 설립 및 경영실무, 온라인 활용 교육, 유통마케팅 전문 인력 역량 강화 등을 주제로 하고 있음
-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교육대상과 농식품산업 과정에 따라 교육과정을 분류할 수도 있음

8) <https://agriacademy.jeonbuk.go.kr/index.php>



〈그림 2-32〉 농식품인력개발원 교육과정

- 교육대상은 청년농업인, 귀농귀촌인, 농식품기업으로 구분하여 ‘청년 농업’의 경우, ‘예비후계농 육성’, ‘청년창업아이템발굴’, ‘농산어촌청년리더육성’, ‘승계형귀농’, ‘푸드트렌드’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개설되어 있음
- 귀농귀촌인은 ‘창업형귀농’, ‘전원생활형귀촌’, ‘귀농인농식품가공입문’, ‘귀농인농기계입문’, ‘친환경농업입문’을, 농식품기업은 ‘농업법인설립절차’, ‘농촌사회적기업기초’, ‘공모사업계획서 작성’, ‘1페이지 사업제안서작성’, ‘사업계획서 프리젠테이션’, ‘농업법인회계실무’, ‘농식품기업원가계산및분석실무’ 등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농식품산업 주제에 따라, 첨단기술원예재배기술은 ‘병해충 종합관리’, ‘양액조성 및 급액관리’, ‘온실 환경 제어 입문’, ‘아스파라거스 재배’, ‘토마토 재배’, ‘딸기 재배’ 등, 농식품가공창업은 ‘소규모 농식품 가공창업’, ‘식품품질관리’, ‘농식품포장용기개발’, ‘밀키트가정간편식의 이해’, ‘건강한 식품, 똑똑한 소비’ 등, 농식품 직거래는 온라인 활용 ‘온라인직거래 활성화’, ‘인스타그램마케팅’, ‘유튜브마케팅’, ‘농업인블로그 운영’, ‘농업인 모바일홈페이지 제작’, ‘온라인스마트스토어 제작’, ‘농산물홍보이미지편집’ 등을 중심으로 함
- 농식품인력개발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비)귀농귀촌인 및 희망자를 직접 대상으로 한 교육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함

〈표 2-20〉 농식품인력개발원 귀농귀촌 교육과정

분류	교육명	주요내용
삼각농정 미래인력 양성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 작목 탐색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의 재배현황 및 관련사업 이해
	창업형 귀농	창업형 귀농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정보 제공
	승계형 귀농	승계형 귀농자에 대해 효율적으로 정착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전원생활형 귀촌	전원생활 귀촌자의 농촌 탐구 및 기초 영농기술 정보제공으로 농촌과 융화되는 귀촌 생활 영위 방안 모색
	농업기술업 연계 귀농창업	신규농업인(귀농)의 창업역량 강화 (귀농창업 교육 및 정보제공, 설계지원 등 실천역량 강화)
	귀농인 농식품 가공 입문	주요 농식품 가공기술 및 성공사례 제시, 선진지 견학 등을 통한 귀농인 가공 마인드 형성 및 활성화
	귀농인 농기계 입문	귀농농업인에게 소형농업기계 위주로 운전조작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효율적인 영농정착도모
	귀농인 시설원에 입문	시설원예의 이해와 생산기술 습득
	귀농인 고추재배	고추재배 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귀농인 토마토 재배	토마토재배 기술습득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귀농인 딸기 재배	딸기 재배 기술 습득을 통한 농업소득 향상
	우수 경영체 벤치마킹	청년농업인의 경영체 한단계 도약을 위한 경영진단 및 우수경영체 CEO의 노하우 습득을 위한 기회제공
과학영농	토양분석 및 미생물 활용 환경	미생물 퇴비 제조 활용 기술 습득을 통한 저비용 친환경 농산물 생산
	시설원에 첨단기술 공동실습	예비농업인 실습과 재배 생산 실습능력 향상
농촌체험·관광	팜 카페 마스터	농촌복합문화공간의 영역확대로 농촌관광 활성화 및 신소득 가치 창출
축산	양봉 관리 기초	철저한 사양관리와 질병 예방 및 봉군관리 등 기술습득으로 양봉농가 수익증대

3. 전북 귀농귀촌교육의 과제

-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의 동기는 전업농·창업농뿐만 아니라 농촌의 환경, 정서적 안정, 농산업 분야 이외 경제활동 등으로 나타남
- 귀촌인의 경우, 경제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지역 내 인프라 부족, 본인의 능력 부족, 일을 해 볼 기회나 관련 정보 부족으로 응답하였음
- 귀농인이 응답한 귀농귀촌교육 개선방향은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현장실습 연계 강화, 수준별 강좌 개설, 지리적 접근성 확대 등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 교육에 대해 정보 부족, 시간 부족, 적합한 과정 없음, 내용이 도움 되지 않음 등으로 나타남
- 귀촌인의 경우, 교육을 받지 않는 비율이 전체 중 절대 다수였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이유로 교육정보 부족, 도움이 되지 않음 등을 제시함
- 또한, 강화할 교육내용을 주거 및 전원, 귀농귀촌 제도 및 정책, 관계형성, 텃밭 가꾸기 등으로 응답하였으며, 귀촌인 또한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 수준별 강좌 개설, 현장 실습 연계 강화 등이 개선사항으로 나타남
- 2020년 귀농어·귀촌인 통계에 따르면 전북 귀농인의 규모는 전국에서 4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귀촌인은 8번째로 나타났으나, 전북으로 이주하는 귀농인과 귀촌인은 상대적으로 귀촌인의 규모가 귀농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귀농귀촌교육은 귀농인 중심의 교육과 귀촌인을 포함한 농업 외 교육들이 각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농업 이외 교육은 지역별로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귀촌과 관련하여 지역적 특성을 살펴보면, 지역별 귀농귀촌의 규모와 성별, 연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음

- 특히 전북에서 완주군으로 이주하는 귀촌인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컸으며, 반면 장수군은 전체 중 3.4%로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성별로 살펴보았을 때, 남성과 여성 모두 완주군으로 귀촌하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다음으로 익산시로 나타났으나, 남녀 모두 귀촌인 중 가장 낮은 비중을 차지하는 지역은 장수군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각 지역의 귀농귀촌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은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음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귀촌인이 완주군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9세 이하, 30대, 50대, 70세 이상은 장수군이 가장 낮았으며, 60대는 무주군으로 나타남
- 지역 내 연령 비율 또한 지역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29세 이상이 높은 비율을 보이는 지역은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으로 나타났으나, 50대는 정읍시, 남원시, 진안으로 나타남
-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의 지역적으로 귀농귀촌의 규모와 성별, 연령별 차이를 보이며,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구성과 내용에 대한 수요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음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앙 및 지자체 단위의 귀농귀촌교육은 농업기술, 창업농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음
- 최근 증가하고 있는 청년과 여성을 위한 특화 교육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나, 계층별 특화교육 또한 농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2020년 귀농귀촌 실태조사'의 결과는 귀농귀촌교육의 정보 부족, 다양하지 않은 교육 콘텐츠 등으로 귀촌인의 귀농귀촌교육 낮은 이수율을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전북 귀촌인의 교육 참여도도 낮을 것으로 예측 가능함
- 귀농귀촌인의 니즈와 교육욕구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해 다양한 기관의 교육들이 유사한 주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

서 교육의 대상이 확대될 수 있도록 교육의 콘텐츠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하지만 차별화되지 못하고 있는 교육과 교육체계는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에 적응·정착을 위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귀농귀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각 지역의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에 대한 파악과 진단뿐만 아니라 지역 내 다양한 계층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들을 개발·운영이 필요함
- 귀농귀촌교육 및 체계를 재정비하고 전북 내 농업 이외 교육의 원활하고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 시스템은 전북 내 농업 이외 교육을 총괄하고 지역에서 추진 중인 교육들을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함
- 귀농귀촌교육이 물리적 공간의 교육기관에서 개발·운영이 되었으나 전북과 지역사회 내에서 귀농귀촌인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나 사회적 관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형화된 교육과정과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이 함께 운영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함

3

장

사례조사

Jeonbuk Institute

-
1. Life Skills for Europe(LSE)
 2. 충남 삶기술학교
 3. 홍성 평민마을학교
 4. 농촌생활기술학교
 5.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6. 시사점

제3장 사례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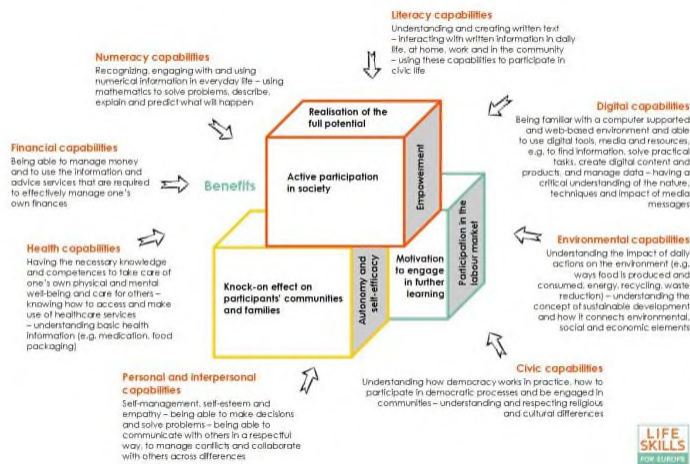
- 농업인 양성이라는 국내의 획일화된 귀농귀촌교육과 운영조직을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하여 현재 귀농귀촌교육 여건을 진단하고자 함
- 농업 한 분야에 치중되어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시스템에서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다양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 운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생활에 필요한 능력, 농업 이외 교육 및 운영체제와 관련 사례를 살펴보고자 함

1. Life Skills for Europe(LSE)⁹⁾

- LSE는 유럽으로 이주한 이들 또는 유럽사회에서 취약계층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기술을 종합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임
- LSE는 유럽 성인교육협회(European Association For The Education of Adults, EAEA)와 UN의 Erasmus+ Programme가 공동으로 개발되어 성인교육 유럽협회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LSE’는 유럽의 사회적 약자, 이주자, 난민 등의 생활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프로젝트로 이들이 학습과 서비스 접근 기회, 사회참여, 문화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이들의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 타인과의 상호작용, 건강 및 사회서비스 정보와 이해, 가족역량, 문화 간의 언어와 행동 증진을 위한 기본적인 디지털 기술들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LSE는 1) 평생교육에서 성인들의 참여를 높이고, 2) 약자들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관계를 형성하고, 3) 생활기술을 교육받는 이들의 사회적 적응을 높이며, 4) 유럽에 사회참여를 위한 비정규화된 교육을 만들어 가는데 목표로 하고 있음

9) <https://eaea.org/project/life-skills-for-europe-lse/?pid=3396>

- 또한, 1) 성인교육에게 생활기술을 습득하고 발전시키고, 2) 앞서 언급한 그룹이 사용할 수 있는 수단과 지원을 제공하고, 3) 유럽 이주과정에 배우는 생활기술들을 증진시키며, 4) 공동체, 지역, 국가 차원의 생활기술 전략이 만들어지고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 유럽에서 생활기술접근은 유럽으로 이주한 이들이 생활기술을 높이고, 개인의 삶, 가족,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들이 임파워먼트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적합한 교육을 제공함
- 생활기술을 생존을 위한 기본적인 기술 이상의 것으로, ‘특정 사회, 문화, 그리고 환경 여건에서 생활과 일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의 구성요인으로 정의하였으며, 생활기술의 유형은 현실에서 개인의 욕구에 따라 나타나는 것이라 하였음



〈그림 3-1〉 생활기술과 결과

- 8개 생활기술을 ‘읽고 쓰는 능력’, ‘디지털 능력’, ‘환경적 능력’, ‘시민 능력’, ‘개인 및 대인관계 능력’, ‘건강 능력’, ‘경제적 능력’, ‘산술능력’으로 구분함
- 읽고 쓰기 능력: 문자텍스트를 읽고 쓰는 능력으로, 일상, 집, 직장, 그리고 커뮤니티에서 문자로 된 정보를 쓰고 읽으며, 시민사회 참여에 사용되는 능력을 의미함

- 디지털 능력: 디지털 도구, 미디어, 자원을 사용할 수 있고 컴퓨터와 웹기반 환경에 익숙해지는 능력으로, 그 예로 정보를 찾고,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내용을 만들고 데이터를 생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미디어메시지, 기술을 이해하고 익히는 것을 들 수 있음
 - 환경적 능력: 일상 활동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그 예로 생산되고 소비되는 푸드, 재활용, 쓰레기 감소, 에너지 등이 해당되고, 지속가능한 발달의 개념과 사회, 경제, 환경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임
 - 시민 능력: 어떻게 민주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민주주의 과정과 커뮤니티에 어떻게 참여하는지를 이해하고, 종교적,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능력을 의미함
 - 개인 및 대인관계 능력: 자기조절, 자존감, 공감으로, 의사결정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 존중하는 태도로 다른 이들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것, 갈등을 중재하고, 협력할 수 있는 능력 등을 포괄함
 - 건강 능력: 자신과 타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 헬스케어 서비스 이용에 접근하는 방법, 기본적인 건강정보 등을 의미함
 - 경제적 능력: 돈을 관리하고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와 어드바이스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 산술능력: 일상에서 수치정보를 인식하고 다루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수학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예측하는 능력 또한 포함함
- 이러한 능력 취득을 통해 ‘잠재력 인식’, ‘사회에 적극적 참여’, ‘임파워먼트’, ‘참여자의 커뮤니티와 가족에 미치는 효과’, ‘자율성과 자기효능감’, ‘학습 참여에 대한 동기부여’, ‘노동시장 진입’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옴
- 교육은 ‘teaching-learning’ 관점에서 사용될 수 있는 도구는 다양하며, 그 예로 비디오, 컴퓨터 게임, 교재, 스포츠 활동, 실생활 재료 등으로 이루어짐
- LSE를 위한 학습체계와 관련하여 영어, 덴마크어, 슬로베니아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등 버전으로 매뉴얼이 제공되고 있음

- 일상을 살아가는데 생활기술은 다양한 부문에서 필요함을 강조하며, 이와 관련한 종합적인 기술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해야 하는 귀농귀촌인에게 농업기술 이외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능력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LSE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이들, 유럽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생존의 문제를 넘어 개인의 삶, 가족, 지역사회에서 임파워먼트를 강화하기 위한 교육이라면,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지역 생활, 문화, 사회 등을 학습하여 습득한 생활역량을 통해 자기효능감과 임파워먼트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이 또한 필요함
- 게임, 영화, 그리기, 읽기 등 다양한 도구를 활용하여 생활기술교육이 이루어지며, 교수자의 툴 가이드와 교육 매뉴얼 등이 제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부문의 생활역량 교육 운영, 교육의 질 관리, 평가 등을 위한 매뉴얼을 개발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LSE는 개인의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생활기술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하며 국가차원의 새로운 문화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본적인 기술인 언어를 제외하고 일상에서 필요한 생활기술 분야로 디지털, 환경, 시민, 개인 및 대인관계, 건강, 경제 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에서 도시민이 농촌생활에서 적응하기 위해 개인을 둘러싼 환경과의 원활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을 포괄할 수 있는 생활역량을 미시·거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2. 충남 삶기술학교¹⁰⁾

- 삶기술학교는 서천군에 청년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며, 자신의 삶을 설계와 실현을 위한 기술들을 배우며 지역 내에서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만들어가는 학교임
- 4년 전 (주)자이언트가 한산모시문화제를 위해 구성된 문화기획단으로 참여하면서 서천군과의 관계를 맺게 되면서 지역 자원인 ‘한산모시’와 ‘소곡주’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프로젝트가 진행됨
- 청년 창업 기업인 (주)자이언트가 2019년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협업과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사업에 선정되어 충남 서천군 한산면에 ‘삶기술학교’가 만들어짐
- ‘삶기술학교’사업은 2019년 6월~12월 동안 진행되었으며, 취지와 비전은 도시청년들이 시골마을에서 자신의 삶의 기술을 교환하고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는 자립공동체로서 ‘나만의 삶의 기술하다’와 교수도 학생도 없는 학교에서 삶기술자(삶지니)가 되어 ‘삶’과 ‘일’을 배우며 자립할 수 있도록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실현하는 ‘당신의 삶 기술이 마을이 됩니다’로 함
- 삶기술학교는 ‘삶에 필요한 의식주를 기반으로 하는 기술’을 스스로 만들어 낸다는 목표 하에 ‘삶지니’로 활동하는데 삶지니는 엔지니어의 준말인 ‘지니’와 ‘삶’이 결합된 개념임
- 핵심 가치로 ‘비움: 대안적 삶을 통해 나를 찾는다’, ‘배움: 마을의 전통기술을 배워 자립한다’, ‘채움: 나만의 삶기술을 완성한다’를 설정하였음

10)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삶기술학교(2019). 2019 삶기술학교 결과보고집. 삶기술학교 한산캠퍼스.

추진 방향성



〈그림 3-2〉 삶기술학교의 추진방향

- 빈집을 리노베이션한 ‘노란달팽이’는 거점 시설로 활용되고 있으며, 행안부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필요한 공간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 5명의 청년을 고용되어 진행됨
- 삶기술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의 전통자원과 기술을 활용한 프로젝트는 ‘한 달 살기’로 서천에 내려와 ‘삶기술학교’에 입학하는 청년들에게 한 달 거주비를 제공하고, 일상에서 명인에게 기술을 직접 배워가며 자신의 기술과 접목하는 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삶기술학교 한 달 살기 과정의 크게 교육과정은 공동체교육(워크숍)과 프로젝트,로 구성됨
 - 공동체교육: 삶비움, 삶배움, 삶채움
 - 삶비움 워크숍: 자신의 삶을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산한몸(요가)’, ‘한산한맘(글쓰기모임과 자치회의를 통한 자신의 생각 표현)’, ‘한산한행(서천과 한산 여행)’을 주제로 진행됨

- 삶배움 워크숍: 함께 삶을 짓는 사람으로 성장을 위한 작업으로 ‘창작 D.I.Y.(장인의 전통기술을 직접 배우는 과정-소곡주, 모시, 공작부채)’, ‘짓기 D.I.Y.(삶코치들과 함께 삶에 필요한 의식주 기본적인 기술을 익힘-소셜 다이닝, 집짓기, 교복 만들기)’
- 삶채움 워크숍: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레츠 ‘I do HANSAN!’(워크숍), 명사초청, 마중물 한산(마을주민과의 교류시간)로 구성된 프로그램임
- 삶기술 프로젝트: 함께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실험 프로젝트
 - CO-썩킹: 자신의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전시켜보는 워크숍으로, ‘디자인썩킹’, ‘아이데이션’, ‘조사 및 연구’로 진행됨
 - CO-워킹: 프로젝트를 구체화하는 실무워크숍으로 ‘계획서 작성’, ‘팀 빌딩’, ‘예비실험실’이 진행됨
 - CO-액팅: 삶지니어의 삶기술을 실현하는 프로젝트로, ‘사업화’와 ‘실험’이 이루어짐
- 달팽이하우스가 만들어진 계기는 한산에 오게 되며 겪는 어려움 중 하나는 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기 때문에 빈집을 활용하여 거주 공간으로 고쳐가는 한산한가 DIY프로젝트가 시작됨
 - 집을 고쳐가는 과정은 지식과 기술이 없어 유튜브를 찾아가며 독학을 해가며 진행되었음
 - 고양이와 함께 살 집으로 만들어진 스테이 허송세월 또한 스스로 빈집을 고쳐가며 거주공간으로 발전시킴
 - 한산한 오늘은 다방이었던 공간을 삶기술학교 청년들과 한산 주민들이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코워킹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간임
 - 아성대장간은 150년 된 대장간에 기술, 사람, 장소 등을 리디자인해 로컬러 아지트로 만들기 위해 진행된 프로젝트임
 - 그림한담은 그림을 그리는 청년이 지속가능한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공간이지만, 심심하거나 한가할 때 나누는 이야기를 뜻하는 ‘한담’ 개념에 맞게 그림과 미술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함

- 사막여우는 삶기술 공유부엌으로 폐가 수준의 공간을 고쳐가며 청년, 마을 주민, 여행자들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 먹으며 식구가 되는 공간으로 만들어짐

○ 삶기술프로젝트

- 소곡 스토어 아트워크 프로젝트, 한끼 제빵소, 한산한 음악제작소, 모시명인의 손길이 깃든 업사이클링 가방 개발, 스테이 허송세월, 느린 여행사, 삶지니들의 VLOG

○ 공동체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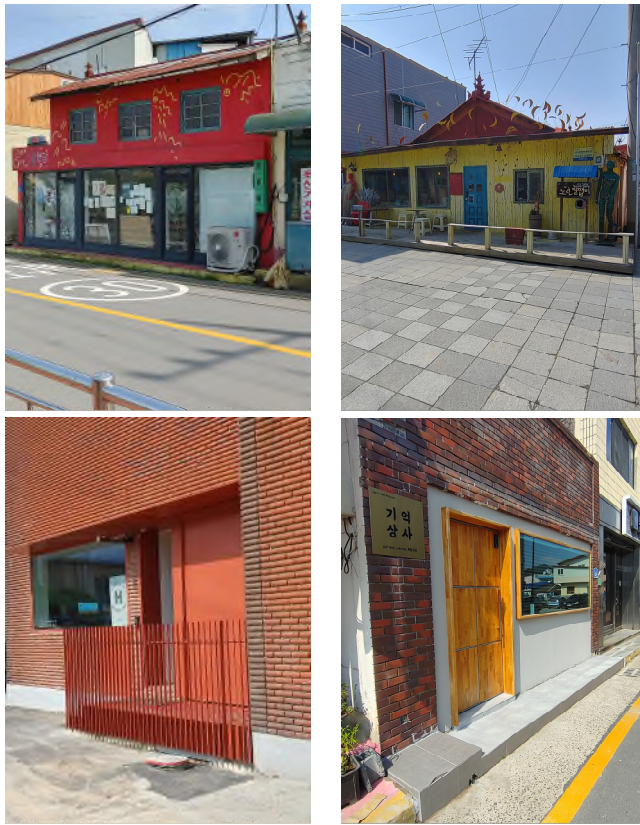
- 한산한맘, 한산한몸, 한산한상, 한산한행
- 창작 DIY 모시짜기, 창작 DIY 공작부채, 창작 DIY 한산소곡주, 짓기 DIY 한산한땀
- 삶채움 워크숍 DIY 가방만들기, 삶채움 워크숍 DIY 유리공예, 삶채움 워크숍 DIY 베이킹 클래스, 삶채움 워크숍 DIY 목공클래스
- 레츠
- 명사초청

○ 마을활동: 마을에서 놀다

- 메이커 페스티벌
- 주민환대잔치
- 마을마중물

○ 마을활동: 마을을 알리다

- SNS 및 홍보마케팅



〈그림 3-3〉 삶기술학교¹¹⁾

- 기존 농촌 관련 교육들이 농업기술에 치중되었던 것과 달리 삶기술 학교는 지역을 배우고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며 자신의 삶과 공동체·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의 적응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삶과 함께 공동체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할 수 있는 귀농귀촌교육이 구성될 필요가 있음
- 삶기술학교는 청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교육과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자신의 삶의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지원, 컨설팅하는 청년의 정착 준비과정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내에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동기를 실현해나가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들을 배울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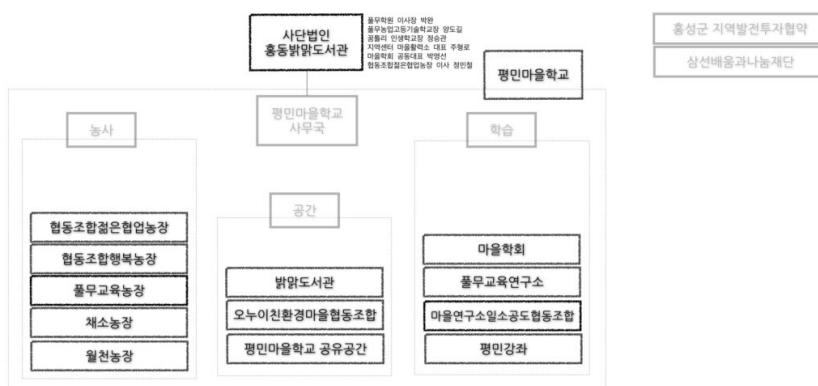
11) 방문일자: 2021년 5월 18일

교육이 귀농귀촌 정착 준비과정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음

- 삶기술학교는 장인에게 전통기술을 배우고, 배움과 지식의 품앗이 시스템 LETS(Local Energy Training System), 서천소재 학교의 청소년, 노인, 주민을 대상으로 강사가 되어 삶기술을 나누는 돌봄교육 공동체 등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로 기본기술(소셜다이닝, 바느질, 집 만들기 등)을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점에서 전북 귀농귀촌교육의 새로운 방향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역량을 교육하며, 공동체·지역사회, 환경과 함께 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함

3. 홍성 평민마을학교¹²⁾

- 홍성군 홍동면에 위치한 평민마을학교는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경직된 교과과목이 진행되어 온 기존 제도교육과 대안교육에서 벗어난 학교의 재개념화와 새로운 교육방식’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임
- 2015년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의 오후 일과를 ‘마을기반 학습과 활동’으로 구성하여 학습들의 묶음이 진행되며 ‘평민마을학교’가 시작됨
- 2016년 도시 청년에게 농사와 농촌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2박3일 ‘촌스러운 일 상상캠프’ 단기프로그램이 진행되었으며, 2017년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원의 ‘청년귀농교육농장 시범사업’을 협동조합젊은협업농장이 진행하게 됨
- 2018년부터 평민마을학교 평민강좌가 운영되었으며, 2020년 평민마을학교가 ‘마을학습생태계’로 확장되었으며, 마을학습생태계는 주변 농장과 지역단을 연결하여 농사와 학습을 마을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운영되기 시작함
- 평민마을학교는 농촌 마을을 터전으로 마을단체들의 운영협의체가 함께 운영되고 있음



〈그림 3-4〉 평민마을학교 운영단체 체계도

12) <https://commulearn.org/>

- 평민마을학교의 가치와 운영원리는 ‘농촌 마을학습의 새로운 틀에서 마을 단체들과의 학습을 목적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한 세대 간 교류’, ‘농사는 농민에게, 마을은 마을주민에게 배우는 학교는 마을과 지역사회’, ‘농촌 현실에 맞는 지식과 삶을 모색하여 마을 문화 형성’, ‘욕구와 상황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구성’에 중심을 두고 있음
- 농촌 마을은 젊은이들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교육공간으로서 일, 학습, 만들기, 놀기를 통해 농촌 마을을 이해하고 생활 문화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봄
- ‘일’은 홍동면과 장곡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농사에 직접 참여하고, ‘학습’을 위해 늦은 오후에 마을 세미나 토론회, 특강 등 다양한 학습모임과 마을 행사에 참여하게 됨
- 농촌 행사와 다양한 일에 직접 참여하며 ‘마을 주민 되기’를 경험하는 ‘만들기’ 과정과 다양한 여가활동 참여를 통해 마을의 생활 문화를 익히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경험하는 ‘놀이’ 과정이 운영되고 있음
- 평민마을학교 입학은 참여조건으로 ‘농사-학습-마을-일’에 마을주민과 동등하게 참여하는 학교의 취지와 원칙에 동의하는 40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 기간은 2주에서 3개월까지 가능함
- 2020년 평민강좌 커리큘럼은 ‘책읽기: 사기 열전’, ‘마을의 이해’, ‘생명수 읽기 모임’, ‘마을지 읽기’, ‘농업과 곤충’, ‘바이시클’, ‘성서모임’, ‘농촌의 인문-예술-과학을 준비한다’, ‘여름 농진로 학습회’, ‘현장실습’, ‘겨울 농진로캠프’ 등으로 구성됨
- 평민마을학교는 청년들의 대안적 삶의 방식을 모색하기 위해 농촌마을이 교육공간이 되어 생활이 하나의 교육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북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에게 전북 전체가 교육공간이 되어 농촌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생활역량을 교육하는데 닫힌 공간인 ‘학교’에서 벗어난 새로운 교육조직이 필요함
- 평민마을학교는 홍동면과 장곡면에 소재한 농장에서 농사 ‘일’과 다양한 삶 관련 주제에 대한 세미나, 강의의 ‘학습’을 통해 자신의 삶

과 공동체 삶을 이해하고 질을 높인다는 점에서, 전북 귀농귀촌교육 기관 또한 농업이외의 공간이 아닌 일상의 공간의 개인이 자신의 삶과 공동체·지역사회·환경을 이해하고 질을 증진할 수 있는 생활역량 교육 제공이 필요함

- 평민마을학교는 농촌을 ‘농사와 학습’의 공간으로, ‘교육’과 ‘일’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상호작용하는 삶의 공간으로 접근하고 있어, 농촌을 ‘학습의 공간’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데 교육 참여와 선주민과의 소통 및 교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평민마을학교는 마을이 청년의 삶과 교육의 공간이 되어 주민들과 협동하고 연대하는 과정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귀농귀촌교육은 농촌사회가 학습을 위한 ‘교육’ 공간만이 아닌 ‘교육’과 ‘삶’이 함께 하는 공간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선주민과의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3-5〉 평민마을학교¹³⁾

13) 농촌의 적정문화를 위한 적정기술 만들기(권병준)(2021.6.25.)

4. 농촌생활기술학교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¹⁴⁾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은 에너지, 경제, 환경위기에 처한 '생태적 전환'과 '지역의 자립적 순환경제'에 필요한 기술(전통기술, 적정기술, 생태적 현대 기술)인 전환기술을 연구, 개발, 교육, 보급 등을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2013년 4월 26일에 설립됨



〈그림 3-6〉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비전

-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학교
 - ‘귀농귀촌인을 위한 생활밀착형 기술 길라잡이’로 역할을 하는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학교’를 운영하고 있음
 - 농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사소한 일(배관 문제, 외등 설치, 수납장 만들기 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4박 5일 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음
 - 핵심 기술: 1) 용접, 2) 목공, 3) 전기, 4) 배관
 - 그 외 기술: 도끼질, 삽질, 호미와 도끼 자루를 위한 대장간 체험, 생활매듭, 날 갈기, 예초기와 엔진톱 사용법 등
 - 실습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농림부 귀농귀촌 교육기관으로 지정됨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생활기술 워크숍

14) <http://www.kcot.kr/>

- 농촌생활에서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기술을 배우는 워크숍임
- 빠레트 헛간, 벤치, 연장걸이대
- 가스화덕, 우리집 대장간 시작: 석탄이 아닌 LPG가스 대장간 화덕에서 칼을 만들기
- 태양광 센서등 만들기: 태양광으로 밤에 작동하는 야외센서등 만들기
- 폐목으로 만드는 리클라이너 소파!: 버리는 나무를 활용하여 소파 만들기
- 슬기로운 건축놀이, 다빈치브릿지와 지오데식돔, 스타돔까지!: 대안적인 건축구조물을 만들기
- 태양열건조기로 과일, 생선 말리기: 태양열건조기 만들기
- 월벤치, 로켓매스히터: 축열난방장치, 공간난방과 바닥축열의 효율적인 난로 만들기
- 폐하우스파이프로 만드는 돔비닐하우스



〈그림 3-7〉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¹⁵⁾

15) 방문일시: 2021.7.1.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은 귀농귀촌교육을 농촌에서 필요한 기술을 농업기술이 아닌 교육으로 적정기술에 주목하였다는 점에 전북 귀농귀촌교육이 농업기술이 아닌 일상에서 발생하는 생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교육은 농촌에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실용교육인 ‘용접, 목공, 전기, 배관’ 등의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다양한 농촌생활 부문의 생활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전환기술사회협동조합 교육은 농촌생활에 필요한 하나의 기술로, 생활역량교육의 하위 역량에 해당하여 생활기술 교육의 확장이 필요함
- 전환기술사회협동조합은 농촌 이주 도시민이 농촌생활에 적응하는데 농업기술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 중 하나로 적정기술을 교육하고 있으며, 귀농귀촌인의 요구도가 높다는 점에서 귀농귀촌 교육 역시 농촌에 생활하는 도시민에게 필요한 역량은 농업 직무역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아산시 귀농귀촌인 농촌생활 실용교육

- 아산시농업기술센터에서 5일 과정 ‘귀농귀촌인 농촌생활 실용교육’을 운영하고 있음
- 관내 거주 귀농귀촌인, 귀농아카데미 수료자, 아산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교육과정
 - 1일차: ‘농촌과 기술(적정기술의 의미와 사례, 로컬에너지센터 소개)’, ‘안전교육(연장사용법)’, ‘배관교육(엑셀/pb, 배관결합과 단열마감, 누수 점검)’, ‘전기교육(분전함 제작, 2구 스위치, 콘센트 연결해 전구켜기)’
 - 2일차: ‘생활잡기1(생활밀착형 매듭)’, ‘목공기술(연장사용법, 안전교육, 도면설계와 이해)’, ‘목공 실습1(재단)’
 - 3일차: ‘목공실습2(조립 및 마감)’, ‘생활잡기2(칼과 낫 날 세우기)’, ‘생활잡기3(체인톱과 예초기 관리, 사용법)’, ‘생활잡기4(장작패기)’
 - 4일차: ‘생활잡기5(대장간 썰기못 단조하기, 자루 끼워놓기)’, ‘용접기초(용접이론, 안전교육, 실습기초)’, ‘용접 기초실습(아크발생, 운행법)’
 - 5일차: ‘용접 실습제작1(구조틀 가접)’, ‘용접 실습제작2(구조틀 용접과 마감)’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기술교육

- 상주시, 진안군, 순창군 등
- 목공, 용접, 생활 농기계 사용법, 보일러 기술실습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운영됨

5.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¹⁶⁾

-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은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과 공익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아동·청소년 학습공동체와 연계하여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도내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강사를 양성하여 학습공동체에 교육 지원을 하는 공공형 일자리 창출을 하는 사업임
- 2017년 ‘지역공동체 학습플랫폼 지원사업’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8년 신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9년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로 사업명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음
- 이 사업은 ‘강사에게 일자리’, ‘청소년에게 교육’을 목표로, 1) 공공형 일자리 확산, 아동·청소년 학습효과 증대, 2) 강사의 일자리 연속성 확보, 3) 시군 강사와 수요처에 대한 총괄관리로 시군별 균형지원, 4) 강사교육 및 파견 전담 총괄기관의 일원화를 통한 학습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방향으로 하고 있음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공모 선정된 ‘교육운영기관’은 강사 선발 및 양성과 수요처에 무료학습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 2021년 기준 ‘찾아가는 배움교실’에서 지원하는 교육 분야는 ‘보충학습(국·영·수 기초보충학습, 영어뮤지컬), 창의과학(창의로봇과 피지컬코딩, 항공드론), 문화예술(도자기·클레이 공예, 우드·소품·미니어처 공예, 창의드로잉, 섬유미술, 자수·비즈 공예, 융합예술), 인성함양(세계시민교육, 독서토론 및 인성보드게임) 등이 해당됨
- 수요처의 경우, 경기도 내 미취학아동과 청소년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도서관 등 기관·단체가 해당됨(지역아동센터, 청소년지원센터, 작옹도서관, 다문화지원센터, 방과후 돌봄교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설, 청소년공부방 등)

16)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추진주체를 살펴보면, 경기도(평생교육과)가 ‘사업 총괄 지원’을 하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이 ‘사업 총괄 운영 및 관리’, 운영기관은 ‘강사양성과 학습지원관리’, 수요기관은 ‘학습지원 관리’의 역할을 하고 있음



〈그림 3-8〉 기관별 역할체계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은 ‘경기도 교육플랫폼사업’을 총괄 전담하는 기관으로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 성과, 실적 관리’, ‘사업 추진 예산 집행 및 실적관리, 홍보 등’, ‘강사교육 및 파견’, ‘강사양성 프로그램 운영, 지역·과정별 수요처 발굴 및 수요자와 매칭’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운영기관’은 ‘강사양성과 활동 강사의 학습지원 활동과 관련 교육서비스 총괄·운영’, 분야별 강사양성, 강사별 학습계획, 코칭프로그램 운영, 지역·과정별 수요처 발굴 및 학습수요자와의 매칭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경기도 교육플랫폼사업은 기존 교육기관을 설치하여 교육수요자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가 아니라 수요가 있는 곳을 찾아가 교육함으로서 교육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

- 또한, 찾아가는 교육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강사양성과 사업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기도 교육플랫폼사업은 대상과 지역에 맞게 교육을 구성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임
- 귀농귀촌교육 또한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찾아가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의 귀농귀촌인의 교육욕구에 따라 구성된 교육과정이 현장에서 진행된다면 지역, 계층에 따른 적절한 교육이 운영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귀농귀촌인이 교육에 참여하고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음
- 반면, 귀농귀촌교육은 시·군별 다양한 지역에서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 부문들의 종합 교육을 수행하는데 해당 부문의 강사를 파견에 의해 단순히 교육이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교육운영, 교육생, 교육의 질, 강사 등의 관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각 지역의 교육 운영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

6. 시사점

- 이 장에서는 농촌사회에서 필요한 생활역량 영역, 농업 외 교육 과정, 교육과정 운영 시스템 등의 사례들을 통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역량교육과 교육을 운영하는 교육시스템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자 함
- Life Skills for Europe은 개인이 새로운 문화와 환경에서 생존하기 위해 다양한 영역의 생활기술들에 주목하였으며,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각 국가별로 정해진 교육내용과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근거로 국가별 특성에 맞게 교육을 진행하고 있음
-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농업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농촌사회에서 개인의 일상과 연결된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다양한 역량을 증진시키는데 교육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각 국가에서 운영할 수 있는 교육자원 제공은 홈페이지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물리적 공간의 교육기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을 가지게 됨
- 삶기술학교와 평민마을학교는 지역사회에 적응에 있어 필요한 역량이 다각적인 접근과 지역 내에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음
- 삶기술학교는 지역사회 정착에 농업이 아닌 농업 이외 분야의 교육과 훈련을, 평민마을학교 역시 농업활동과 함께 농업 이외 활동을 통해서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음
- 이들 기관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역에 정착을 위한 목적보다 지역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점에서 적응과 정착에 필요한 생활역량을 갖추는데 한계가 있음
- 특정 연령계층에 따라 농업 이외 활동의 차별화가 요구되며, 농촌생

활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생애주기적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업 이외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며, 교육과정의 주요 내용은 용접, 목공, 전기, 배관 등 실용기술을 중점으로 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의 교육에 대한 욕구의 변화를 보여주는 예로서 귀농귀촌 교육과정 변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앞서 Life Skills for Europe에서 논의되었던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은 다양한 측면에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교육이 구성되어야 함
- 이에 본 교육을 모델로 하여 귀농귀촌인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영역의 교육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행되는 교육을 기반으로 귀농귀농인들에게 필요한 교육이 함께 운영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함
- 농업 이외 귀농귀촌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로 교육과 수요자간 연계될 수 있는 장이 부족하며, 이로 인해 교육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음
-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의 경우, 교육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과 지역에 맞게 찾아가는 교육이 운영되고 있음
- 경기도 교육플랫폼은 교육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하는데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귀농귀촌의 교육이 활성화되기 위해 수요자가 찾아가는 교육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콘텐츠와 교육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함
- 이에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과 운영은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을 제공하는 교육으로,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교육으로, 교육기관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와 교육을 운영·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제공으로 변화가 필요함

4

장

환경분석 및 전문가조사

Jeonbuk Institute

-
1. SWOT분석
 2. 전문가조사
 3. 시사점

제 4 장 환경분석 및 전문가조사

- 중년기 제2의 인생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귀농귀촌이 주목 받으면서 귀농귀촌교육은 활성화됨
- 현재까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은 ‘귀농인’ 육성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다양한 동기로 농촌으로 유입되고 있는 귀촌인에 대한 교육으로 한계가 있음
- 최근 귀촌인의 증가에 맞춰 농촌생활 적응과 농업 이외 경제활동을 위한 교육들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 접근성의 어려움이 존재함
-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설계하고 준비하고 있는 귀농귀촌인, 특히 귀촌인의 원활한 적응·정착을 위해 일상생활 관련 정보와 교육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해결과제가 됨
- 이는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고민은 ‘농업인’으로서가 아닌 ‘생활인’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역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 적응·정착을 위한 필요한 농촌생활역량을 습득,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교육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과 운영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환경 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해 현재 귀농귀촌교육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와 관련한 방향과 운영방식의 전환에 대한 제기된 논의 사항들을 토대로 새로운 개념의 귀농귀촌 교육과 체계 구축과 운영을 구상하고자 함
- 정책과 현장에서 현실화하는데 필요한 기준, 요소 등을 도출하고 이를 현실화에 필요한 운영체계의 역할, 기능, 운영 등을 구조화하기 위해 논리적 내용을 마련하고자 함

1. SWOT분석

- 전라북도 귀농귀촌 교육 환경 분석을 위해 SWOT를 실시하였음

가. 전북 귀농귀촌교육 SWOT분석

1) 강점요인

- 광역지자체 차원의 유일한 농업 종합교육기관인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이 운영되고 있음
 - 1970년 12월 17일에 설립된 ‘전라북도 새농민교육원’을 시작으로 2011년 12월 16일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으로 직제 개편됨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은 귀농귀촌인, 예비 후계농업인,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농업에 직·간접으로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 이론과 실습·훈련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마이스터대학이 동시에 운영되고 있는 전라북도 전문 농업인력을 양성하는 종합농업교육기관임
 -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의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전북 종합교육기관으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전문 인력과 운영의 노하우를 갖추고 있어 이는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생활역량 교육을 개발하고 교육과정을 운영에 무리가 없음
- 시·군별 귀농귀촌 관련 기관들의 농업 이외 실용교육사업에 대한 관심과 교육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현재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교육 욕구 충족과 지역주민과의 융화를 위한 농업 이외의 실용교육이 각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교육은 수업과 동아리 활동을 통해 시·군 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음
 - 시·군별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업뿐만 아니라 농업 이외 영역의 학습 및 훈련·실습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갖추고 있으며, 지역 특성을 반영된 교육 관련 자원을 보유하고 있어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을 위해 활용 가능함
- 광역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와 인력을 유일하게 보유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농축산식품국 농촌활력과 내 귀농귀촌 관련 정책 사업을 전담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귀농귀촌팀’을 설치·운영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유일하게 귀농귀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음
- 귀농귀촌사업에 대한 행정적 이해가 높으며, 귀농귀촌교육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 가능한 역량을 갖추고 있음

2) 약점요인

- 전북 내 농업 및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귀농귀촌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음
 - 귀농귀촌을 통한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교육이 양적으로 증가하며, 교육 운영 주체의 다양화가 진행됨
 - 현재 전북도 내 귀농귀촌교육을 운영하는 기관은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시·군별 '귀농귀촌지원센터'와 '농업기술센터'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이들 교육사업 운영기관들의 귀농귀촌교육은 농업 관련 이론과 실습·훈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음
 - 귀농귀촌인들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충족하고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을 학습하는데 한계가 있음
- 시·군별 다양한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 이외 실용교육 콘텐츠의 차별화가 부족함
 - 시·군별로 진행되고 있는 농업이외의 실용교육들이 양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교육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2021년을 기준으로 실용교육들이 운영되고 있는 기관, 단체들의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목공, 용접, 보일러교육 등 농촌생활기술교육, 도자기공예·목공예·가죽공예, 스마트 실용교육, 핸드커피, 천연화장품, 제과제빵, 발효식품 등이 주를 이루고 있음
 -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생활하기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물음에 대답이 될 수 있는 교육내용과 각 지역에서 생활하며 이해해야 할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귀농인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으로 귀촌인을 위한 교육은 기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 기초 농업기술 등에서 벗어나 귀촌인의 다양한

동기에 충족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가 부족함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인의 농촌 이주의 주요 이유는 ‘농산업 분야 외 직장 취업’, ‘정서적으로 여유로운 환경’, ‘자연환경이 좋아서’, ‘도시 생활에 대한 회의’ 등으로 다양한 것으로 나타남
- 2020년 기준 전북의 1,503 귀농가구에 비해 10배가량 14,887 귀촌가구의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의 결과에서 귀촌인의 절반가량이 ‘다양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함
-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교육내용으로 ‘주거 및 전원생활’, ‘관계 형성’, ‘제도 및 정책’, ‘텃밭 가꾸기’, ‘귀촌 창업’ 등 농촌 생활과 관련된 교육에 대한 욕구를 보이고 있으나 귀농인 중심의 교육으로 귀촌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3) 기획요인

- 도시민의 농촌 및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음
 -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¹⁷⁾’에 따르면, 도시민 응답자의 41.4%가 ‘향후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년 대비 6.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 증가는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삶 희망’이 주된 이유로 환경변화와 코로나19 발생에 따른 농촌에 따른 긍정적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 전국 및 전북 모두 2020년 귀농귀촌가구 수가 2019년에 비해 증가함
 - 귀농가구: 전국(11,422 → 12,489), 전북(1,315 → 1,503)
 - 귀촌가구: 전국(317,660 → 345,205), 전북(13,422 → 14,887)
 -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환경변화·코로나19 발생은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도시민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농촌 유입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는 전업농에서 전원, 대안가치 추구, 경제활동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

17) 우병준·박혜진(2020).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귀농귀촌은 1990년대 후반 IMF 외환 위기로 인한 실직과 사업 실패 등으로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고자 귀농하는 도시민, 청년농 지원사업 증가와 청년들의 농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주목받음
 - 최근 전업농뿐만 아니라 생태적 공동체 삶 지향, 전원생활, 대안가치 추구, 생계 및 경제활동 등을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의 다양한 귀농귀촌 동기는 연구들의 결과에서 확인되고 있음
 - 현재 귀농귀촌교육은 도시민의 다양한 동기를 충족할 수 있는 교육의 부재는 귀농귀촌교육의 방향의 전환을 의미하며, 다양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농촌사회에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
- 계층, 이주 동기에 적합한 귀농귀촌교육이 점차 진행되면서 귀농귀촌 교육의 주제가 세분화되고 있음
- 귀농귀촌교육은 전업농을 위한 농업이론과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귀농귀촌인의 계층이 다양화되면서 귀농귀촌교육의 주제가 이에 따라 새로이 구성되고 있음
 - 농업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찾고자 농촌으로 이주하는 은퇴자를 위한 귀농 교육, 청년농부 육성을 위한 청년농 지원사업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과 함께, 청년 여성 귀농인을 위한 특화 귀농학교가 증가하고 있음¹⁸⁾
 - 농업이 귀농귀촌의 주된 목적이 아닌 다양한 동기(전원생활, 경제활동, 대안추구, 생태적 삶 등)를 위한 귀촌인들을 위한 교육들¹⁹⁾이 등장하며 계층 및 귀농귀촌 동기에 따른 귀농귀촌교육이 세분화되고 있어 귀농귀촌교육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

4) 위협요인

- 귀농귀촌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접근하는 관점에서 타 지자체와의 도시민 유치 경쟁이 있음

18) 남원 여성귀농학교, 남원 청년귀농귀촌학교, 임실 귀농귀촌 교육(귀농귀촌 희망 은퇴예정자) 등

19) 진안 귀농산촌입문학교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에 대한 인구정책으로서 귀농귀촌을 주목하며 각 지자체별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귀촌 정책사업 및 교육사업을 발굴, 추진하고 있음
- 중앙정부의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지자체의 교육사업이 운영되고 있어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귀농귀촌 동기의 다양화에 따른 지자체 내 농업 이외 정책과 교육사업이 추진되고 있음²⁰⁾
- 전북 귀농귀촌인을 위한 경쟁력 있는 특화교육이 필요함

○ 전국 대비 전북 귀촌인구 규모가 작아 전북은 귀촌을 위한 적합한 지역으로의 인식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2020년 기준 전체 귀농인가구 수가 12,489가구로 집계되었으며, 전라남도가 2,347가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경상북도는 2,234가구, 전북은 1,503가구 등 순으로 나타나 전북으로 귀농하는 가구는 전국 3번째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²¹⁾
- 반면, 2020년 귀촌가구 규모를 살펴보면, 총 345,205가구로, 101,527가구로 경기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전북은 14,887가구로 전국에서 8번째 순으로 나타남²²⁾
- 전북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인의 비율은 타 지자체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귀촌의 경우 8번째 순으로 전북을 귀촌지로 선택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나타남
- 귀촌지로 전북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며 정책적 관심이 귀농인에 비해 귀촌인에게 상대적으로 낮아 교육사업 또한 부족함

○ 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적응·정착하는데 선주민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은 주요한 어려움 중 하나임

- 귀농귀촌인의 정착 과정에서 경험하는 어려움 중 하나는 ‘선주민과의 관계’로 나타났으며, 갈등 요인으로 ‘선주민의 전통적·보수적 성향과 귀농귀촌인과의 문화차이’, ‘농촌의 지나친 공동체 생활 특성’, ‘귀농귀촌인의 개인중심

20) 아산시 귀농귀촌 농촌생활 실용교육, 홍성 평민마을학교, 서천 삶기술학교 등

21) 2020 귀농어·귀촌인통계

22) 2020 귀농어·귀촌인통계

적 성향', '농촌사회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나타남²³⁾

- 농림축산식품부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 따르면, 귀촌인의 절반 이상이 지역주민들과의 관계 정도는 '보통'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을 활동 참여에 가끔 참여하거나 거의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귀촌인 또한 50% 이상으로 나타남
- 농촌생활에서 귀촌인들과 선주민 간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에 융화·통합될 수 있는 교육의 상대적으로 부족함

〈표 4-1〉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 광역지자체 차원의 유일한 전라북도 농업 종합교육기관(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운영 • 시·군별 농업이외 실용교육사업 관심과 운영 증가 • 광역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와 인력을 유일하게 보유	• 전북 내 농업 및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귀농귀촌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 • 시·군별 다양한 교육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농업 이외 실용교육 콘텐츠의 차별화가 부족 • 귀농인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으로 귀촌인을 위한 교육은 귀촌인의 다양한 동기에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 도시민의 농촌 및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농촌 유입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의 다양화 • 계층, 이주 동기에 적합한 귀농귀촌교육이 점차 진행되면서 귀농귀촌교육 주제의 세분화	• 귀농귀촌을 인구정책과 연계해 타 지자체와의 도시민 유치 경쟁이 있음 • 전국 대비 전북 귀촌인구 규모가 작아 전북은 귀촌을 위한 적합한 지역으로의 인식이 다소 떨어짐 • 귀촌인이 농촌사회에 적응·정착하는데 선주민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 어려움

23) 유영민·김용근·안민지(2017).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과 인식차이 분석. 농촌사회, 27(2), 93-136.

나. 전북 귀농귀촌생활 기관 구성 방향 도출

1) SO전략

○ 전라북도 농업 이외 교육 전담기관 또는 조직 운영

- 전북은 농업 종합교육기관인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어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과 함께 체계적인 조직 운영을 위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가지고 있음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업 이외 교육기관을 조직·운영하고 귀농귀촌의 다양한 동기에 따른 맞춤교육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사회·환경적 변화를 반영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

- 기후변화, 재생에너지, 코로나19 등에 따른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2019년 대비 2020년 귀농귀촌인구의 증가는 귀농귀촌교육의 변화를 의미함
- 전문 인력을 갖추는 종합교육기관 운영을 통해 사회·환경적 변화에 대응한 귀농귀촌교육프로그램을 개발 가능함

○ 변화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 욕구에 대한 신속한 행정 대응

- 전라북도는 귀농귀촌에 대한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부서 및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사회변화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요구에 대한 전북도의 정책적 판단과 이해도가 높음
- 귀농귀촌 교육욕구 변화에 대응하여 도차원에서 개발된 교육사업을 도의 총괄적 관리하에 각 시·군별 귀농귀촌 담당 부서 및 전담 인력이 운영할 수 있도록 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2) WO전략

○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채널의 일원화를 위한 체계 구축

- 농업 이외 실용교육에 대한 귀농귀촌인의 관심과 욕구로 각 시·군별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단체 등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2020년 귀농귀촌실태조사'에서 귀농귀촌인이 '교육에 대해 알지 못해서'를 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1순위로 응답함

-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이 있으나 귀농귀촌인들이 교육정보에 대한 수집이 어려운 이유는 교육정보 채널이 다양하고 체계화되지 못함
-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영역에 대한 교육의 욕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어 이에 대한 교육과정이 다양한 기관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됨
-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귀농귀촌교육이 각 시·군에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이 자신의 욕구에 맞춰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의 정보와 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다면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귀농귀촌교육 개발·운영

- 각 시·군별 교육기관은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이주 동기와 교육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 이외 실용교육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교육내용은 유사한 측면이 있음
- 귀농귀촌인이 적응, 정착하는데 있어 지역에 따라 문화, 역사, 지형 등에 따른 지역감수성이 요구되며, 교육을 통해 이를 증진시킬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 적응하기 위해 농업 이외 부문의 생활역량교육이 필요하나 지역에 따라 이들이 경험하게 될 문화, 정서 등을 이해, 체험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지역의 다양한 교육기관 또는 기관의 교육 등과 같은 자원들을 활용한 지역 특화형 교육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

○ 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해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개발

- 전라북도로 이주한 도시민 중 귀농에 비해 귀촌을 목적으로 농촌사회로 유입되는 도시민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 귀농귀촌교육은 귀촌인의 다양한 이주 동기를 파악, 반영하지 못한 채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제한된 교육 주제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귀촌인에 대한 전원생활을 고려하고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으로 이미지²⁴⁾, 귀촌인이 농촌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역량이 무엇인지에 대한 교육이 부족함

24) 서울시, 귀농-창업·귀촌-전원생활 준비 무료 맞춤교육 (한국강사신문, 2021.2.14.),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1203>

- 귀촌인에 대한 농촌사회 '생활인'으로 인식 전환을 통해 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 길라잡이로서 농촌생활역량교육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함

3) ST전략

-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귀농귀촌교육 개발 및 운영
 - 농촌사회의 고령화·과소화 현상이 타 지자체와 유사한 여건에서 귀농귀촌교육의 방향은 큰 차이가 없음
 - 종합농업교육기관과 귀농귀촌 전담부서를 운영하는 전라북도는 전북도의 교육자원을 발굴, 활용하여 지역 특성이 반영된 귀농귀촌교육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구성할 수 있음
 - 또한, 시·군별 중간지원조직, 귀농귀촌지원센터를 통하여 전북도 차원과 시·군별 차원의 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개발·운영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운영 가능함
 - 이를 통해 전라북도 농촌사회 내에서 다양한 삶을 제시 가능함
- 귀촌인-선주민의 소통·교류를 통한 협력과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 운영
 - 전북의 귀촌인 규모는 귀농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지만, 귀농귀촌교육은 귀농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농업교육을 매개로 한 멘토-멘티, 선주민과 함께 하는 교육 등으로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짐
 - 선주민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농업 이외 활동이 상대적으로 적은 귀촌인의 경우, 선주민과 귀촌인의 인식과 문화의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농촌 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경험함
 - 귀촌인의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은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통합과 융화를 이루는 것이며, 이는 귀촌인을 대상으로 일방적인 교육이 아니라 지역주민의 참여 가능한 교육을 통해 귀촌인 간의 교류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귀촌인을 위한 농업 중심에서 벗어난 농업 이외 실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북의 귀촌인구 규모는 전국 8번째로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지만, 전북 내 거주하고 있는 귀농인에 비해 그 규모는 큼
- 전국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귀농지역으로 귀농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귀촌인들에 대한 교육사업을 포함한 정책은 다소 미흡함
- 전라북도는 종합교육기관의 전문 인력과 운영 경험과 역량을 통해 귀촌인을 위한 특화교육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귀촌인들을 위한 교육 운영에 대응한 행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4) WT전략

- 전북 차별화되고 특색 있는 농촌생활역량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교육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귀농귀촌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타 지자체와 차별화를 두고 있는 전라북도 농촌생활역량교육은 귀농귀촌 관련 기관, 센터, 단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가 필요함
 - 귀촌인의 경우, 전북 농촌 생활에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생활역량과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농촌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제시 가능한 기회 마련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할 필요가 있음
- 전북도의 귀농귀촌교육인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추진
 -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은 귀농귀촌인뿐만 아니라 선주민에게도 필요한 역량이며,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통해 이들 모두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음
 - 사회 및 환경변화에 따른 농촌생활역량 습득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귀농귀촌인에게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되기 위해 교육 주제, 주체, 체계 등을 위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함
-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체계 구성 및 귀농귀촌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
 - 귀농귀촌의 변화에 따른 전북의 귀농귀촌교육은 '어떻게 농사를 지을 것인가'

가?’에서 ‘농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의문에 응답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전환되고 있음

- 귀농귀촌교육은 농업 이외의 실용기술이 증가하고 있으나 다양성과 차별성이 부족하여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영역의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함
- 귀농귀촌인의 교육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내용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이는 분산된 교육체계들을 일원화된 교육채널화가 필요함
- 농촌생활역량교육 방향과 목적이 유지·발전되고 귀농귀촌인의 전복 농촌사회에 원활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는 교육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교육체계 운영·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S • 광역지자체 차원의 유일한 전라북도 농업 종합교육기관(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 운영 • 시·군별 농업이외 실용교육사업 관심과 운영 증가 • 광역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와 인력을 유일하게 보유	W • 전북 내 다양한 교육기관들이 귀농귀촌교육을 자체적으로 운영 • 시·군별 다양한 교육기관 교육 콘텐츠의 차별화가 부족 • 귀촌인의 다양한 동기에 충족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 부족
O	SO • 도시민의 농촌 및 귀농귀촌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 농촌 유입 도시민의 귀농귀촌 동기의 다양화 • 계층, 이주 동기에 따른 귀농귀촌교육 주제의 세분화	WO • 다양한 귀농귀촌 교육 채널의 일원화를 위한 체계 구축 •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특화 귀농귀촌교육 개발·운영 • 귀촌인의 농촌생활 적응과 정착을 위해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 개발
T	ST • 타 지자체와의 도시민 유치 경쟁 • 전국 대비 적은 귀촌인구 규모를 가진 전북은 귀촌을 위한 적합한 지역으로의 인식이 다소 떨어질 수 있음 • 귀촌인의 선주민과의 관계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로의 편입 어려움	WT • 타 지자체와 차별화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귀농귀촌교육 개발 및 운영 • 귀촌인-선주민의 소통·교류를 통한 협력과 연대감을 높일 수 있는 교육사업 운영 • 농촌생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하여 귀촌인을 위한 농업 중심에서 벗어난 농업 이외 실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전북 차별화되고 특색있는 농촌생활역량 제고를 위한 귀농귀촌교육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전북도의 귀농귀촌교육인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운영·관리 전략 수립 및 추진 •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체계 구성 및 귀농귀촌교육의 패러다임 변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 계획 마련

〈그림 4-1〉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조직 구성 및 운영 방향

2. 전문가조사

- 전북 귀농귀촌교육의 한계를 바탕으로 귀농귀촌교육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과 역할, 귀농귀촌인의 농촌 생활에 필요한 능력과 교육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2021년 6월 22일부터 2021년 7월 9일 동안 1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근거로 서면조사 및 면접조사를 수행함
- 전문가조사는 지속가능하고 활력 있는 농촌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요인, 개인이 농촌 생활에 적응 사고, 기술, 태도 등,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농촌생활역량교육 영역 등을 중심으로 조사함
- 전문가조사에 참여한 조사대상자는 대학 교수 1명, 귀농귀촌 관련 연구자 3명, 귀농귀촌협의회 회장 1명, 전북 농어촌종합지원센터 귀농귀촌 실무자 1명, 전남 귀농산어촌종합지원 서울센터 실무자 1명,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 팀장,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 대표 1명, 협동조합 젊은 협업농장 이사 1명으로 총 10명으로 구성함

가. 농촌생활역량 필요성과 영역

- 고령화, 과소화, 이농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에 있는 농촌지역의 증가는 일상생활 인프라와 서비스의 열악함을 야기하며 이에 따른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인의 일상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음
- 농촌공동체와 사회는 단순하게 생산의 공간으로 인식되어 오면서 농촌주민의 일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이에 어떻게 대응하며 살고 있는지에 대한 일상의 단면을 살펴보는데 상대적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농촌을 생활공간에 비해 생산의 공간으로 연결하는 방식은 귀농귀촌인을 농업 인력의 증가에 대한 기대로 귀농귀촌교육의 방향은 농업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중심으로 한 농업교육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귀농귀촌인의 초기 정착기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은 농업이 아닌 농촌 생활공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야기되고 있음
-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역량은 농업을 위한 역량일 수도 있으나, 농촌생활에 적응, 정착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의미할 수 있으며, 개인의 생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공동체, 지역사회, 환경 등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맥락에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 포함의 필요성이 강조됨
-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은 이들이 살아가는 공간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다각적 차원에서 논의의 필요함이 강조됨
- 개인의 일상 및 공동체, 지역사회, 환경 등이 유지·성장하는데 필요한 농촌생활에 대한 이해와 실천은 주제와 영역이 다양하게 논의됨
- 미시적인 측면에서 논의된 생활역량은 개인이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편의성 및 안녕감 제고를 위해 개인 자신과 거주공간의 안전과 질 유지·증진과 관련이 있음
 - 먹거리와 거주지는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의 영역으로서 제시됨
 - 개인이 거주하는 환경에서 농작물 생산, 유통 등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지역의 생산물에 대한 고민과 함께 생산자, 소비자로서 두 입장에서 먹거리를 고민하며, 더 나아가 먹거리와 환경에 대한 고민과 연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함
 - 귀농귀촌인이 생활농사, 먹거리 선순환, 먹거리 윤리 등 교육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이해와 실천으로 개인의 건강, 농촌지역, 환경 등에 대한 고민이 농촌생활에서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음을 강조함
 - 거주지는 우선적으로 물리적 공간인 주택에 대한 농촌생활역량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농촌의 기초적인 주거환경과 인프라의 상대적 열악함에 따른 농촌 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역량으로 논의됨
 - 귀농귀촌인이 거주지 마련과 유지를 위한 이해와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필요한 농촌생활역량으로 거주지, 농지 등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주택을 보수·관리할 수 있는 적정기술들을 제시함

-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은 물리적인 공간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공간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인은 도시와는 다른 농촌의 문화와 사회 특성에 대한 이해와 적응을 위한 생활역량의 필요성이 강조됨
- 농촌 및 지역의 사회와 문화에 대한 이해는 개인을 둘러싼 다층적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에 적절한 역량으로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태도, 사고, 기술임을 강조함
- 사회적 관계 관련 생활역량은 환경 내에서 형성되는 모든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역량으로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의 구성원으로 생활하기 위해 선주민들과의 관계맺기와 상호작용하는데 필요한 태도, 사고, 기술 등이 해당됨
- 농촌사회에서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사회적 관계는 미시적으로 공동체 내에서 소속과 연대, 통합과 융화의 경험을 위한 태도와 행위를 강조함
- 공동체 생활은 다양한 이슈와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농촌 주민들과의 상호작용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으로 신뢰, 의사소통, 갈등관리, 리더십 등이 제시됨
- 농촌 및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또한 사회구성원으로 일상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역량 영역으로 제시되었으며, 지역에 대한 이해와 태도는 지형, 문화, 역사, 등 지역정서를 공감하고 수용하는 과정을 통해 개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이 유지·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될 수 있음을 강조함
 - 고령화와 과소화에 따른 농촌지역의 소멸은 사라져가는 사회적 서비스로 대체할 수 없는 공동체 문화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통해 농촌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지속가능할 수 있음이 강조됨
- 최근 기후변화, 환경오염, 농촌 뉴딜, 먹거리 등이 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음
- 사회적으로 농업과 농촌의 가치와 역할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생태감수성은 중요한 농촌생활역량의 하나로 논의됨

- 도시에 비해 개인의 일상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자연환경에서 개인이 자연 생태계와의 관계 맺기는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으로 강조되며, 농촌 일상에서 생태가치를 알고, 보존하고자 하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자 하는 태도, 사고, 행동을 의미함
- 귀농귀촌인은 단순히 자연환경 혜택을 누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연생태계에서 관계 맺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행동하는 것은 중요한 농촌생활역량으로 제안됨
-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와 산업은 농촌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는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 중 하나임
- 경제적 측면에서 농촌생활역량을 고려해보았을 때 농업만이 농촌사회를 이끄는 산업이 아니며, 농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정보화 사회에 따른 급속한 변화는 농촌사회에서 어떠한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필요할 것으로 봄
- 최근, 농업교육의 방향이 변화하면서 농촌에서 생활하며 경제적, 사회적 변화에 대한 대응 방식과 적용에 대한 태도, 사고, 행동 등이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것으로 논의됨
- IT기술에 따른 농업과 삶의 변화에 대한 대응과 활용에 대한 생활역량이 한 예로 제시됨
- 농촌사회의 고령화로 노인생산인구의 큰 비중이 커지며, 인간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농촌생활역량에 대한 논의가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음
- 특히, 자율감과 독립성은 청년의 중요한 발달과업으로 농촌에서 어떻게 발달과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함
- 농촌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에 관련하여 귀농귀촌 청년들을 위한 교육 콘텐츠 개발이 필요함
 - 농촌사회 또는 생활에서 발생하는 이슈와 문제들을 자유롭게 해결하고 대응해 나갈 수 있는 태도, 사고, 행동의 주체로서 청년들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나. 귀농귀촌교육의 역할과 기능

- 농촌에서 거주는 농업 활동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농촌이라는 일상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함
- 도시민의 농촌 거주는 새로운 일상 공간에서 삶터, 쉼터, 일터, 공동체의 터로, 다층적 환경 속에서 개인은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를 위한 역량이 요구됨
- 기존 귀농귀촌교육은 농업이 중심의 일터에서 개인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를 학습하였기 때문에 농촌에서 수행하게 되는 역할을 위한 역량 학습이 부족함
- 개인의 농촌생활역량교육은 농촌 생활에 어떻게 적응, 정착하는지를 결정하며, 농촌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설계와 실천이 가능함
-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이 농촌 일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다양한 생활역할에 대한 역량을 중심으로 귀농귀촌인들이 삶에 대한 하나의 길라잡이로서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의 공동체의 터에 거주한다는 점에서 귀농귀촌인이 농촌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주민들과 연대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함
- 교육은 귀농귀촌인이 공동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환경들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태도, 사고, 행동 등을 배울 수 있는 장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귀농귀촌인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 요구됨
- 귀농귀촌교육은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에 중심으로 농업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배워 나간다는 점에서 새로운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과 필요성을 제시해야 함
- 이는 귀농귀촌인들의 새로운 환경인 농촌에 대한 적응과 정착을 위한 교육들로 운영되어야 함

- 귀농귀촌교육은 농업 지식과 기술교육을 제공하는 교육이 아닌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제공하기 때문임
- 귀농귀촌교육은 농촌에서 생존을 위한 기술이 아닌 다양한 환경에서 ‘관계 맺기’를 통해 개인의 안전, 편의, 연대감 등을 경험하며 개인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교육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역량교육을 제공하는 기관이지만, 단순히 귀농귀촌인이 농촌지역에 이주하여 적응하는 교육이 아니라 지역주민에게도 필요한 역량으로 선주민과 귀농귀촌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함
- 귀농귀촌교육은 귀농귀촌인들에게 교육을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의 관계에서 소통과 교류를 통해 양방향적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들이 지역사회에 보다 수월하게 적응,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함
- 귀농귀촌교육은 사회적 변화와 귀농귀촌인의 교육 욕구에 맞춰 새로운 교육내용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를 활성화의 기회를 제공해야 함

다. 농촌생활역량의 영역

-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영역과 내용을 조사하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기초적인 주거환경은 귀농귀촌인이 농촌생활에 정착하는데 중요한 주제가 되며,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로 개인이 자신의 거주공간을 관리할 수 있는 기술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 생활목공, 전기배선, 용접, 생활건축, 공간 리모델링 등을 제안함
- 농촌사회에서 관계 맺는 다양한 환경들 내에서 공동체의 사회적 관계,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 환경 등에 대한 이해는 농촌생활역량 교육 중 중요한 영역들로 제시함
- ‘관계 맺기’를 통해 농촌의 가치와 자신의 삶의 철학을 고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으며,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계획, 실천해 나갈 수 있음
 - 공동체 내 선주민과의 관계 맺음은 농촌 생활 정착에 있어 중요한 기본 과업으로서 선주민과 공동체의 가치를 이해하고 소통과 교류를 통해 연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문화 이해, 의사소통, 공감, 갈등관리, 생활돌봄을 위한 협업 등의 교육이 있음
 - 농업·농촌의 가치, 인식 변화는 농촌의 지속가능성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먹거리, 생태계, 환경 등이 해당됨
 - 먹거리의 경우, 친환경적인 먹거리 문화, 먹거리 윤리, 먹거리 선순환, 건강 등을 제안하였으며, 생태계 및 환경은 재난 대비 및 대응교육, 가드닝, 친환경적인 농업기술, 에너지 전환교육, 환경생태보전교육 등을 제안함
- 급속하게 변화하는 정보화시대에 따라 변화하고 있는 농업기술과 농촌생활방식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과 문화 변화에 적응과 대응이 중요한 농촌생활역량임
 - 노동집약적인 농업의 기계화, 디지털화, 정보화는 일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와 실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IT, 디지털 기계 교육, 농업 관련 신기술 교육 등이 있음

- 생애주기별 요구되는 발달과업에 맞춰 요구되는 생활역량의 차이에 따라 농촌으로 이주하는 청년들을 위한 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이 필요함
- ‘자립성과 자율성’을 추구하는 귀농귀촌 청년들이 개인의 생각과 계획을 실험하고 실현해 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청년들을 위한 콘텐츠로 청년들이 스스로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을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농촌사회에서 취·창업을 위한 생활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함
 - 프로젝트형 기획, 창업, 마케팅, 회계, 조직경영 교육 등

3. 시사점

- 이 장에서는 전북의 SWOT 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농업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제를 담는 귀농귀촌교육과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짐
- SWOT 분석에 따르면, 종합농업교육기관인 ‘전라북도 농식품인력개발원’을 운영하는 전라북도는 농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전문 농업교육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보유를 첫 번째 강점으로 말할 수 있음
- 현재 각 시·군별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농업 이외의 실용교육을 개발·운영하고 있으며, 종합 교육기관과 다양한 교육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적·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 귀농귀촌 전담부서와 인력이 배치되어 있다는 점에서 큰 강점 요인을 가지고 있음
- 각 시·군별 도시민 유치를 위해 귀농귀촌인의 적응, 정착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기관이 있으며, 이들이 귀농귀촌인의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운영하는 농업 이외 실용교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유사하여 지역, 계층 등에 따른 차별성이 부족함
- 또한, 귀농인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은 귀촌인의 다양한 이주 동기를 크게 반영하지 못해 귀촌인을 위한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그러나 꾸준히 감소해왔던 귀농귀촌인구의 2020년의 증가는 최근 환경변화와 코로나19 등의 문제로 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논의되고, 도시민의 귀농귀촌 의향의 증가 또한 중장기적으로 귀농귀촌교육은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의 이주 동기와 계층의 다양화는 농업 중심의 귀농귀촌교육 중심에서 벗어나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대응한 교육이 등장하면서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과 주제의 변화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농촌의 고령화·과소화로 타 지자체와 도시민 유치 경쟁을 해야 현시점에서 경쟁력 있는 귀농귀촌교육이 필요하며, 전국에서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전북 귀촌은 귀촌지로서 전북에 대한 관심이 다소 낮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귀농귀촌인, 특히 귀촌인의 적응·정착 어려움 중 하나로 ‘지역사회 네트워킹’으로 언급하였으나, 현재 귀농귀촌교육은 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점에서 새로운 방향과 주제의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줌
- 이러한 전라북도 귀농귀촌과 교육 환경 분석을 통해 농업 종합교육기관과 귀농귀촌 전담부서 및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전라북도는 변화하고 있는 귀농귀촌의 변화와 이주 동기의 다양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귀농귀촌인의 다양한 교육 욕구에 대한 행정적·정책적으로 교육사업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있음
- 기존 시·군별 다양한 교육기관과 교육이 존재하고 있어 다양한 귀농귀촌인과 교육 사각지대에 있는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 채널의 일원화가 요구됨
- 농업 종합교육기관과 전담부서 및 인력이 있는 전라북도는 다양해지는 귀농귀촌의 교육 욕구를 행정과 현장에서의 이해도가 높다는 점에서 귀농귀촌교육의 방향과 영역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교육개발과 운영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기관을 구성·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음
- 전문가조사에 따르면, 귀농귀촌교육의 한계와 귀농귀촌교육의 방향, 기능의 변화 등의 필요성이 제기됨
- 귀농귀촌인의 동기는 전업농을 포함하여 다양해지면서 농업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귀농귀촌교육은 현재 계층별, 동기별의 동기를 만족시켜주지 못하고 있음
- 무엇보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도시민은 물리적,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이동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함

- 개인에게 요구되는 농촌생활역량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위한 역량으로, 다각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미시적으로 개인의 먹거리, 주택 부문의 안전과 건강 등에서 거시적으로는 생태계, 기후변화 등에 대한 이해와 대응을 위한 생활역량이 요구됨
- 청년 귀농인을 위한 교육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 역시 전업농, 창업농에 초점이 맞춰져 이루어지고 있어 청년 귀농귀촌인이 생애주기적 특성에 맞춰 다양한 이주 동기에 대한 교육학적 접근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전문가조사를 통해 귀농귀촌교육의 방향은 농업에서 일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음
- 즉, 농업인에서 생활인으로서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층적인 환경에서 개인이 환경과 원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으로 귀농귀촌교육이 전환되어야 함
-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농촌생활역량은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것인지가 아닌 농촌사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응답으로 다양한 생활 부문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귀농귀촌인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운영조직이 필요함
- 교육은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을 종합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하며, 귀농귀촌에게 기관별 유사한 주제의 교육을 제공하는 일방향적인 방식이 아니라 사회변화와 귀농귀촌인의 교육 욕구가 반영된 교육과정이 개발,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농촌생활역량은 귀농귀촌인이 다양한 농촌 환경과 상호작용에 유용한 생활역량으로 귀농귀촌인들이 농촌사회의 선주민 간의 소통 및 교류가 가능한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함

-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역량 교육영역은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에 따른 기초적인 주거환경, 관계 맺기, 정보화 사회에 대한 적응, 생애주기적 특성에 따른 생활역량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SWOT 분석과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귀농귀촌교육의 방향은 귀농인 대상의 농업교육 중심에서 귀촌인을 포함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농촌생활역량은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상 문제에 대한 대응과 해결, 관계 형성 및 유지·발전 등을 의미하며, 세부적으로는 이주 동기별, 계층별, 미시환경에서 거시환경 등에 의해 다양한 영역의 주제로 구성되어야 함
- 기존 농업 중심의 귀농귀촌교육은 다소 고정화된 교육과정인 귀농귀촌인이 교육정보를 탐색하고 참여하는 방식에서 농촌생활역량교육은 귀농귀촌인의 교육 욕구를 반영하여 농촌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 증진 교육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해당 귀농귀촌인을 위한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양방향의 교육설계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함
- 교육수요가 있는 곳에서 농촌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선주민과 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교육이 필요하며 교육 공간은 농촌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기관의 개념 변화가 필요함
- 농촌생활역량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 환경에서 필요한 농촌생활역량의 범위와 내용은 다양하므로 농촌생활역량 교육체계는 기존의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유사한 교육을 제공하던 교육체계와 차이를 가질 필요가 있음
- 귀농귀촌인에게 필요한 농촌생활역량은 지역, 계층, 동기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귀농귀촌인에게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교육을 컨트롤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이 필요함
- 전라북도는 광역지자체 차원의 귀농귀촌 전담부서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귀농귀촌교육의 전환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합한 행정적 대응이 가능한 동시에 농업 종합교육기관인 전라북도 농

식품인력개발원을 운영하고 있어 농촌생활역량교육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음

- 이를 통해 귀농귀촌교육의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 봄

5

장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
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개념 및 목적
 2.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제 5장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방안

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개념 및 목적

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개념 및 목적

1)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개념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개인이 농촌 생활 전반에 필요한 역량 강화 교육을 총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기반’으로 정의 내릴 수 있음
- 기존 귀농귀촌인 대상 교육기관은 농업에 대한 이해, 농창업, 농업기술 등 관련 이론과 실습을 중심으로 ‘농업인’을 육성하고 있으나,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귀농귀촌인을 농촌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생활인’으로 농촌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하는 운영기반임
- 귀농귀촌교육은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유사한 교육내용으로 운영되고 있어 분산된 교육시스템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탐색의 어려움이 있으나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다양한 영역의 교육과정 운영기반을 갖추고 있어 귀농귀촌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농촌생활역량교육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받을 수 있음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농촌생활에 필요한 역량인 농촌생활역량 제고를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 문제해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과 나눔의 공간을 마련함

2) 농촌생활역량의 개념

- 이병림(1987)은 ‘개인이 다양한 환경에서 특정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적합한 행동’, 노현미(1999)의 연구에서는 ‘외부세계와의 적절한 작용하는 반응’, 박선희(2005)의 경우 ‘일상생활 속에서 전반적으로 필요한 능력’으로 생활역량을 정의 내림
- 생활역량은 ‘개인이 일상에 적응하기 위해 발생하는 일상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행동, 감정,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으로 윤명희와 김진화(2008)의 연구에서 정의 내림
- 다양한 정의를 통해 생활역량은 ‘개인이 일상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농촌생활역량은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으로, ‘농촌사회에서 개인이 살아가면서 일상의 문제해결과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키는 힘’으로 개념화할 수 있음
- 개인이 속해 있는 환경은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는 다층적인 개념으로서 개인의 일상에서 발생하는 문제 및 이슈는 다양하며, 이에 대한 개인의 적절한 대응은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공동체·지역사회의 삶의 질,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경우, 농촌사회로의 유입은 물리적인 공간의 이동뿐만 아니라 개인의 사회경제적, 문화적, 환경적 삶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도시민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은 하나의 과업이 될 수 있음
-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의 제고는 정착 초기 농촌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통해 농촌 생활 원활한 적응을 이끌 수 있음
- 농촌생활역량은 농촌공동체 및 지역사회에서 선주민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힘으로서 선주민과의 소통과 교류를 통해 지역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과 연대감을 느낄 수 있게 됨

-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초기 정착은 이들의 농촌생활역량 정도에 의해 결정짓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
- 이에 전북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이 농촌생활에 용이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교육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이 필요함

3)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비전과 목적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비전은 ‘전북 농촌에서 다양한 꿈, 사람, 일상’으로 전북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인이 자신의 꿈을 키우고 다양한 이들과 함께 하는 일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생활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을 제공하는데 본 교육플랫폼이 그 중심에 있음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다층적인 농촌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일상을 유지·발전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을 강화함
- 귀농귀촌교육을 잠재적인 ‘농업인’ 양성을 위해 ‘귀농인’ 중심의 교육 방향에서 ‘생활인’으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귀농인’뿐만 아니라 ‘귀촌인’을 위한 교육 방향을 전환하고자 함
- 귀농귀촌교육이 귀농귀촌인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역량인 ‘농촌생활역량’을 통해 다양한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과 사회적 네트워킹을 위한 개인의 교육뿐만 아니라 선주민과의 교육 및 나눔으로 교육대상의 범위가 확장하고자 함
- 귀농귀촌교육은 지역주민과 함께 배우는 활동을 통해 지역주민과의 융화에서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이 상호 교수-학습자로 교육과 나눔을 통해 귀농귀촌인-지역주민 간의 협력과 연대 형성함
- 귀농귀촌교육은 과소화되고 있는 농촌 공간을 도시민의 경제활동을 위한 공간에 정착하는 교육에서 사람이 머무는 공간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함

4)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역할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농촌 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한 교육을 총괄적인 관점에서 기획하고 운영 전략을 구상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필요한 교육과 나눔의 공간, 교육 운영, 성과를 관리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 운영을 위한 자원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발굴·양성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 운영에 필요한 사회적 네트워크 구축과 사회 자본을 발굴하여 관련 개인, 기관·센터, 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관리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귀농귀촌인의 농촌생활역량 증진을 통해 선주민과 소통·교류, 협력할 수 있는 교육을 개발함

2.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교육영역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교육 주제는 농촌 생활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개인의 대응력과 사회적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량은 크게 구분할 수 있음
-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은 주거 공간, 공동체, 지역사회, 환경 등을 포함하고 있어 개인 생활뿐만 아니라 공동체, 지역사회, 환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각적인 접근에서 농촌생활역량 교육이 필요함
- 농촌생활역량 교육은 농촌사회를 포함한 다층적인 환경에서 논의되는 이슈와 지역정체성을 포함하는 주제로 구성되어야 함
-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기’는 심리적으로 창의적 사고, 문제 발견적 사고, 다원론적 사고, 확산적 사고 등이 발달하고 부모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자율성을 찾는 발달적 특성을 가지며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불안감을 경험하는 시기임²⁵⁾
- 청년기의 주요 과업인 경제적 독립은 직업 선택과정에서 개인의 선호, 이상, 현실 등을 청년은 동시에 경험하게 됨
- 농촌사회로 이주하는 청년의 경우, 농촌사회에서 앞으로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래를 설계하는데 청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 청년들이 학습자인 동시에 교육의 주체로 농촌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해결과 사회적 네트워킹할 수 있는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키는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교육의 방식이 요구됨
- 농업 및 사회변화에 따른 농업·농촌에 대한 다양한 이슈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사회경제적, 환경적, 문화적 논의들이 이루어지면서 개인이 농촌 생활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

25) 정옥분(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 학지사.

역량을 다각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기후변화, 환경오염, 코로나19 등에 따른 먹거리, 건강, 환경, 산업 등의 변화는 개인이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에 농촌생활역량교육과 귀농귀촌교육의 교육내용 구성의 변화가 필요함
- 전문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촌생활역량 영역과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구성되어야 할 교육내용을 제시함
- ‘먹거리’ 영역의 경우,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역량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하는 역량’으로 농업·농촌의 가치를 이해하고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실천함. 생산의 측면에서는 친환경, 생활 농사 등, 소비에서는 먹거리 윤리, 생산자 배려, 먹거리 선순환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건강 및 안전’은 ‘일상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으로, 열악한 인프라와 서비스에서 자신과 주변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게 됨. 개인 건강관리, 생활안전, 재난에 대한 대응 등을 포함함
- ‘개인·공동체’는 ‘개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내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대응하고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에서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역량’으로 정의되며, 개인중심적인 도시에서 공동체 중심의 농촌생활에 적응, 정착이 원활함. 주택관리, 가드닝, 갈등관리, 리더십, 적정기술, 사회적경제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지역이해와 정책’은 ‘농촌다움을 인지하고 보전·활용하는 능력, 공동체·지역사회의 삶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역량’을 의미하며, 농촌을 유지·발전하는데 중요한 구성원으로 활동함. 농촌에 대한 이해, 농촌 관련 사업 이해 및 사례분석 등이 있음
- ‘환경’에 대한 생활역량은 ‘일상생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역량’으로 농촌과 자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를 위한 생활실천을 이끌어 낼 수 있음. 그 내용으로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관련되어 있음

- ‘사회·농촌변화’의 생활역량은 ‘사회와 농업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량’으로 농업 이외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변화하는 삶에 대한 설계와 실천을 이룰 수 있음. IT, SNS, 농업 관련 기술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마지막으로 ‘자율성 및 독립성’은 청년들의 발달과업으로, 이에 대한 생활역량은 ‘자신의 자유의지 하에 행동의 주체이자, 문제해결의 역량’으로 개념화할 수 있으며, 자신의 삶의 설계하고 실천하며 자신의 꿈을 스스로 이뤄나갈 수 있음. 이와 관련하여 기획, 창업, 마케팅 등을 세부 생활역량으로 볼 수 있음

〈표 5-1〉 농촌생활역량 교육영역

구분	역량	하위 역량
먹거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소비에 대한 이해와 실천하는 역량	• 생산-친환경, 생활농사 등; • 소비자 이해, 소비-먹거리윤리, 생산자 배려, 먹거리 선순환 등
건강·안전	일상에서 자신과 타인의 건강과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역량	• 개인 건강관리, 생활안전, 재난 등
개인·공동체	개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내에서 협력과 연대를 할 수 있는 역량	• 주택, 갈등관리, 리더십, 적정기술, 사회적경제 등
지역이해와 정책	전북 농촌다움을 인지하고, 보전·활용하는 능력, 공동체·지역사회의 질 증진을 위한 정책 사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역량	• 전북 농촌에 대한 이해, 농촌 관련 사업 이해 및 사례분석 등
환경	일상생활이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역량	• 가드닝, 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사회·농업변화	사회와 농업의 변화를 인지하고 이에 대응하는 역량	• IT, SNS, 농업 관련 기술
자율성·독립성	자신의 자유의지 하에 행동의 주체이자, 문제해결의 역량	• 기획, 창업, 마케팅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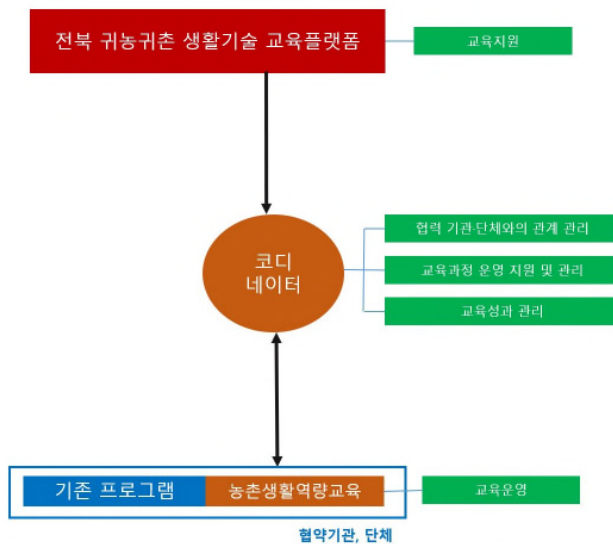
나.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유형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기관 또는 단체와 연결하여 운영되는 ‘연계형’과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캠퍼스형(캠퍼스형, 청년 캠퍼스형)’ 방식으로 운영됨

1)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이 (예비)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업 이외 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교육기관·센터, 단체 등과 협약을 맺고 기존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식임
- 연계형은 교육기관 또는 단체가 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교육을 통해 획득한 특정 역량 이외 농촌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역량교육을 제공하여 농촌생활역량의 범위를 넓히는데 목적이 있음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교육과정은 기존 프로그램 교육생의 다양한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켜 농촌사회의 ‘생활인’으로 성장하고 성숙의 기간을 제공함
- 연계형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소속의 도 인증 코디네이터, ‘협약 기관 또는 단체’ 간의 협력으로 ‘농촌생활역량교육’이 진행되며,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지원, ‘코디네이터’는 교육 운영 관리, ‘협약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운영 주체가 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농촌생활역량교육’이 협약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인적·물적 자원(강사 파견,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하게 됨

- 코디네이터는 농촌생활역량교육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과 '협약 교육기관 또는 단체'의 중간 지원조직으로 역할을 수행함
- 교육과정이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이 지향하는 교육 방향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 운영을 지원·관리하며, 교육 성과를 관리하게 됨
- 코디네이터는 연계형 교육 모듈을 기획하는데 기존 교육기관의 교육 프로그램 특성과 지역의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파악하고, 지역에 맞게 지역 자원을 발굴, 활용하게 됨
- 연계형 방식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에서 살아보기', 행정안전부 '청년마을사업', 귀농귀촌인 대상 지자체 교육기관 프로그램, 전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귀농귀촌인 대상 사업과 연계 가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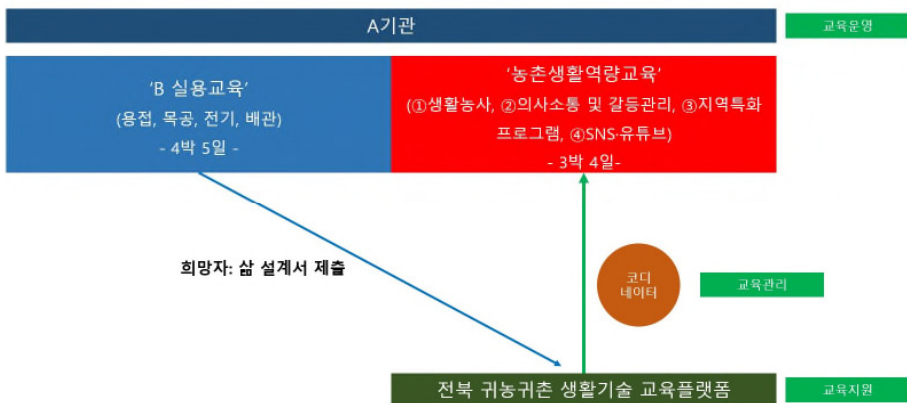


〈그림 5-1〉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예시 사례

■ A기관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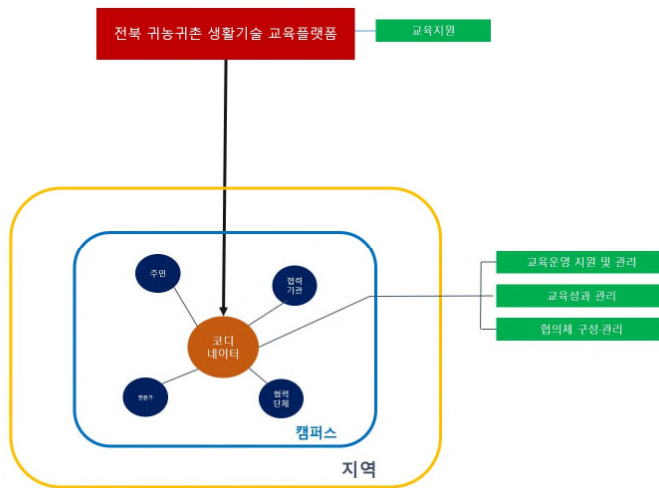
- A에서 운영하고 있는 ‘B 실용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본 프로그램 수료자 중 ‘농촌생활역량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운영됨
- 참여예정자들은 전북 농촌사회에서 귀농귀촌 삶 설계서를 제작하여 다수의 공통된 관심 영역과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구성한 기본교육과정 영역을 혼합한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커리큘럼을 구성함
 - B 실용기술 교육프로그램: 용접, 목공, 전기, 배관
 -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생활농사,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지역 특화 프로그램, SNS·유튜브 등
- 구성된 교육프로그램은 ‘B 실용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A기관에서 운영하게 되며,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는 필요한 자료와 비용을 제공하고, 교육 운영 지원 및 관리는 코디네이터에 의해 이루어짐



〈그림 5-2〉 연계형 농촌생활역량교육 프로그램

2)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임
- ‘캠퍼스’는 단순히 공간적 의미의 학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교육의 장(캠퍼스)이 되어 귀농귀촌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농촌생활역량교육’을 받으며 선주민과의 교육과 나눔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여 교육을 지원하고 학교에 소속된 ‘코디네이터’는 농촌생활역량교육의 운영 및 관리의 주체가 됨
- 코디네이터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과 기관을 파악하고,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개발하여 제공한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부족한 교육 및 지역 특화된 교육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형 교육 모듈을 기획하게 됨
- 코디네이터는 해당 지역에서 기획·설계된 교육과정의 운영 주체로서, 교육 운영 기간동안 강사, 강의, 교육생을 지원·모니터링하고 성과를 관리하게 됨
- 또한, 농촌생활역량교육의 사회적 네트워킹을 위해 해당 부문의 관련 기관, 센터, 전문가, 지역주민, 단체 등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교육 기간 동안 교육생의 농촌생활역량 향상을 위해 소통과 교류 가능한 현장을 마련해 줌
- 지역사회 내 지자체, 기관, 마을 등의 (유휴)시설을 농촌생활역량 교육과 실습·훈련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함
-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은 교육과 관련 기관 및 선주민과의 네트워크 협력을 통해 귀농귀촌인이 지역을 이해하고 농촌 생활에 적응 및 융화될 수 있는 귀농귀촌 준비기간으로 활용됨



〈그림 5-3〉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 예시사례

■ C군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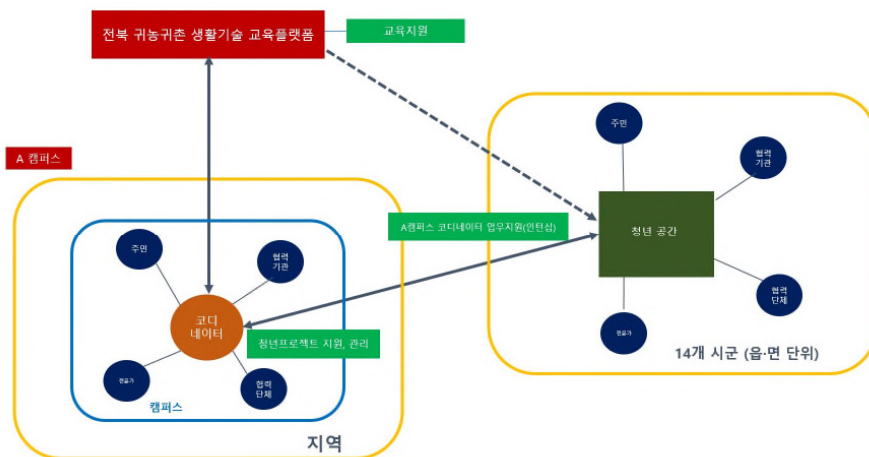
- 코디네이터는 C군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커리큘럼 구성을 위한 지역 교육과 자원을 파악하고 분석함
 - C군 귀농귀촌지원센터: ‘용접배우기’와 ‘생활인문학’과정 운영
 - C군: ‘은퇴자를 위한 목공 작업공간’ 운영
 - D읍 보건소: ‘건강관리 및 생활안전’ 교육과정 운영
 - C군 농업기술센터: ‘생활농사’ 교육과정 운영
- 코디네이터는 지역의 교육과정들을 확인한 후, ‘전북 귀농귀촌 생활 기술 교육플랫폼’의 교육과정 매뉴얼을 바탕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성, 기간, 장소를 설계함
 - 교육 구성: 1) 주택 관리하기(용접, 목공, 배선), 2) 생활농사, 3) 건강 및 생활안전교육, 4) 의사소통 및 갈등관리, 5) C군 둘러보기, 6) 환경과 우리의 일상(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7) SNS·유튜브, 8) 지역주민과 TALK, TALK, 9) 세미나 등

- 교육 장소는 이론과 실습·훈련과 분리해서 운영되며, 이론교육은 귀농귀촌인에게 접근성이 높은 지역의 시설을 활용하여 교육과정 관련 기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강사, 지역주민 등에 의해 운영되며, 실습·훈련은 해당 교육기관의 교육장 또는 실습장교육에서 진행됨
- 코디네이터는 강의, 교육생, 강사, 협력 기관·센터, 성과 등을 관리하게 되며, 지역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활동을 발굴하여 운영함

3) 청년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청년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이 시·군과 연계하여 각 시·군별 '청년 공간'을 만들고 청년에게 필요한 농촌생활역량교육을 청년 공간에서 자유롭게 진행하는 방식임
- 청년 캠퍼스형의 경우, '청년 공간'은 지역 내 활용도가 낮은 시설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귀농귀촌 청년의 교육뿐만 아니라 지역 청년과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나눔이 가능한 지역 거점공간의 역할을 하게 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을 위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고, 귀농귀촌 청년들은 자신들의 교육 욕구를 반영하여 교육 모듈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학습자이자 교육운영 주체가 되며, 코디네이터는 귀농귀촌 청년들의 교육활동을 지원·관리하는 '관리자' 또는 '멘토'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청년 캠퍼스형은 청년들이 농촌 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습득하기 위하여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에서 운영되는 강의와 실습·훈련 중심의 교육에 비해 강의, 실습·훈련, 프로젝트, 워크숍, 세미나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됨
- 청년 캠퍼스형의 농촌생활역량교육은 코디네이터의 지도하에 청년 자신들이 농촌 생활과 연계된 교육 욕구를 파악하고 발굴된 지역 자원들을 활용하여 농촌생활역량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을 기획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과정임

- 코디네이터는 청년들의 농촌생활역량 교육활동을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자원제공, 사회적 네트워킹 형성을 지원하게 됨
- 청년 공간은 귀농귀촌 청년의 교육공간이자 지역 내 적응 및 융화의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코디네이터는 선주민과 청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교육과 나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청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게 됨
- 선발된 청년 캠퍼스지기들은 농촌생활역량교육과 청년 공간을 관리하게 되며, 청년들은 이들을 지원하는 코디네이터가 활동하고 있는 캠퍼스에서 코디네이터의 업무를 지원하고 자신들의 새로운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
 - 코디네이터의 업무지원을 통해 귀농귀촌 청년의 활동비로 제공할 수 있음



〈그림 5-4〉 청년 캠퍼스형 농촌생활역량교육

■ 참조사례

■ 플래닛 완주²⁶⁾

- ‘플래닛 완주’는 완주군 청년거점공간으로 2017년 10월 게스트하우스 내에 개소를 시작으로 완주 청년들의 소통과 교류의 공간이 되었으며, 청년 공간기획단의 참여로 청년 공간이 만들어짐
- 2017년 삼례읍에 제1호점인 ‘완충지대’를 시작으로 2019년 고산면에 ‘림보책방’, 2020년 제3호 플래닛 완주 ‘별빛공방’이 이서면에 조성되어 운영되고 있음
- 완주 청년몰과 우석대학교 인근으로 확장 이전한 ‘완충지대’는 대학생 및 지역 청년 일자리와 관련하여 취업지원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며,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수요만찬’, ‘목표스포츠’, ‘마끄라매’, ‘상담치료’ 등과 같은 동아리 활동이 또한 운영되고 있음
- 고산청년공간인 ‘림보책방’은 ‘책방’을 매개로 하여 지역 청년과 귀농 귀촌 청년들이 머무르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이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발굴하고, 다양한 소모임,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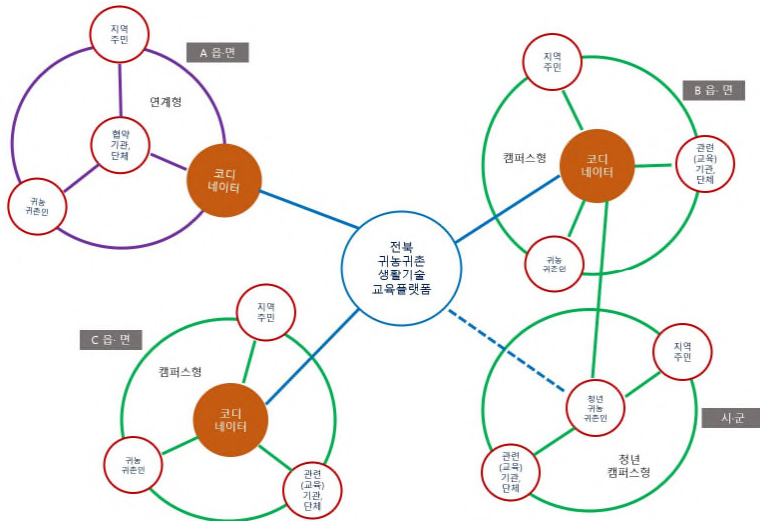
26) 청년메카 완주, <https://youth.wanju.go.kr/index.wanju>



〈그림 5-5〉플랫폼 완주

〈표 5-2〉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유형

구분	주요내용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코디네이터
연계형	- 협약 교육기관·센터, 단체 등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는 방식 - 본 프로그램의 특정 역량 또는 체험 영역을 넘어 농촌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의 생활역량 제고 - 협약 교육기관, 단체 등이 교육운영 주체임	교육지원 (인적·물적 자원 제공)	- 협력기관-교육플랫폼 간의 중간지원조직 -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 모니터링, 성과관리
캠퍼스형	- 교육 수요가 있는 지역 내에서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 -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을 위한 매뉴얼 개발 및 제공 - 귀농귀촌인의 교육 및 나눔을 통해 농촌 생활 적응	교육지원 (인적·물적 자원 제공)	- 지역 환경분석 및 자원 발굴 - 지역 협의체 구성 -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설계·운영·성과관리
청년 캠퍼스형	- 각 시·군별 청년 거점공간 제공 - 지역주민과의 교류와 소통의 프로젝트형 교육과 나눔	청년공간 지원 및 교육지원 (인적·물적 자원 제공)	프로젝트 모니터링 및 컨설팅



〈그림 5-6〉 전북 농촌생활역량 교육체계

다.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주체

1) 직접 운영

- 관리체제에 있어 기본 조직을 활용하여 사업비 이외 운영비 등 추가 비용이 적어 운영비용이 절감되고 운영관리가 용이함
- 비영리 추구로 공공성 확보와 기초단체, 공공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이 용이함
- 운영 인원의 순환보직으로 인하여 운영 및 관리가 전문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고 체제의 보수화 진행 가능성으로 비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음
- 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며, 추가 인원 확보의 어려움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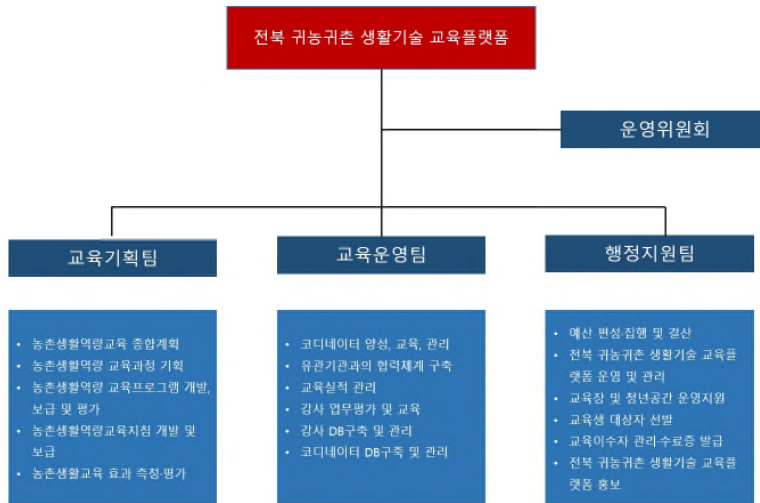
2) 위탁 운영

-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 효율 향상이 가능하며 전문 인력 고용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킴
- 적정 기관 선정이 어려울 수 있으나 역량이 있는 기관의 경우 기존 운영 노하우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이 가능함
- 도와 위탁 기관 간의 업무 구분이 명확해 관리의 효율성이 높음
- 운영에 대한 지자체의 개입 권한이 제한됨
-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에 따른 위탁을 위한 적정 비용 산정이 필요함

라.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조직구성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운영조직은 총괄 관리자, 교육기획팀, 교육운영팀, 행정지원팀, 운영위원회로 구성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은 교육 개발, 교육 운영, 행정의 업무분장을 하고 있으며, 원활한 운영을 위해 팀으로 구성함
- ‘총괄 관리자’는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목적과 방향을 이해하고, 농촌생활역량교육을 통해 귀농귀촌인의 전라북도 농촌 사회에 원활한 적응과 정착이 용이할 수 있도록 농촌생활역량교육 기획 및 설계, 운영, 성과관리 등을 수행함
- ‘교육기획팀’은 농촌생활역량교육에 앞서 교육과정 개발·연구를 담당하고 있으며, 주요 업무는 농촌생활역량교육 종합계획 수립,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기획, 농촌생활역량 교육프로그램(콘텐츠) 개발·보급·평가, 농촌생활역량교육지침 개발·보급, 농촌생활교육 효과 측정 및 평가, 농촌생활역량교육 실태조사, 농촌생활역량교육 개선방안 수립 등
- ‘교육운영팀’은 귀농귀촌인을 대상으로 농촌생활역량 교육 수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역할을 담당하며, 주요 업무는 코디네이터 양성을 위한 교육과 코디네이터 관리,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 성과 관리, 강사 성과평가, 강사 DB구축 및 관리, 코디네이터 DB구축 및 관리 등임
- ‘행정지원팀’은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과 농촌생활역량 교육 운영에 있어 행정적 지원을 담당하며 예산안 편성·집행·결산, 전북 귀농귀촌생활교육플랫폼 운영 및 관리, 교육장 및 청년 공간 운영 지원, 교육생 대상자 선발, 교육이수자 관리, 교육수료증 관리, 농촌생활역량교육 홍보 등이 주요 업무임
-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총괄 관리자로 하고, 전라북도, 도/시·군 의원,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전문가 4명, 삼락농정위원장 총 8명으로 구성하며,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자문, 심의 및 의결하기 위해 설치함

- ‘운영위원회’는 교육플랫폼의 중장기 발전방안, 교육플랫폼 운영 규정 개정, 예·결산 및 주요 교육사업 운영, 기타 전북 귀농귀촌 생활 기술 교육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결의함



〈그림 5-7〉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조직구성

마. 전문 인력

- 농촌생활역량교육 운영을 위한 전문 인력은 강사와 코디네이터가 해당됨

1) 강사

- 강사는 농촌생활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인력으로, 자격요건은 해당 분야에서 이론 및 실무 관련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이 있는 이로, (현장)전문가, 관련 활동가, 지역주민 등이 가능함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교육운영팀'은 강사DB를 구축하고 농촌생활역량 교육현장에서 특정 분야에 적합한 강사를 선발·파견하여 강의 및 실습·훈련을 교육하게 됨
- 강사는 코디네이터 지원 하에 교육을 진행하며, 강사 평가는 교육생의 만족도와 코디네이터의 평가로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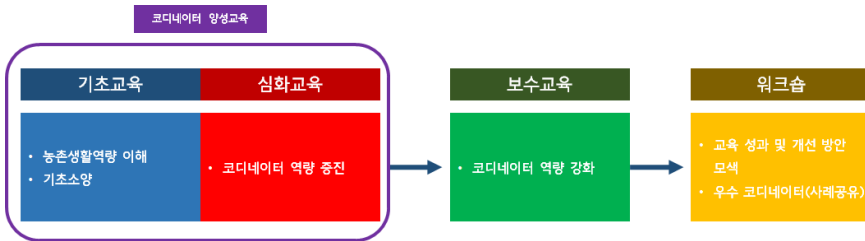
2) 코디네이터

- 코디네이터는 현장에서 농촌생활역량 교육을 총괄적으로 지원 및 관리하는 전문 인력으로 코디네이터 양성 교육을 수료한 교육생만이라도 인증 코디네이터로 활동할 수 있음
- 농촌생활역량 교육을 지원, 운영 및 관리하는 코디네이터로 요구되는 역량은 다음과 같음
 - 농촌생활역량을 이해하고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역량
 - 농촌생활에 필요한 생활역량 증진을 위해 교육의 필요성을 이해하는 역량
 - 농촌생활역량 교육 모듈을 기획, 운영, 관리, 평가할 수 있는 역량
 - 교육 수요를 파악하고 지역 인적·물적 자원을 발굴하고 적용할 수 있는 역량
 - 이해관계자들과 네트워킹과 상호작용·소통을 조정할 수 있는 역량
 - 교육생의 적극적 참여를 독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역량

- 농촌생활역량 교육을 지원, 운영 및 관리하는 코디네이터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농촌생활역량 교육 모듈 기획, 운영, 관리 및 성과관리
 - 유관기관과 협력 및 소통·교류의 중간자
 - 교육과정 중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문제해결
- 코디네이터는 양성교육과정은 ‘기초교육과 심화교육’, ‘보수교육’, ‘워크숍’으로 구성되어 있음
- 코디네이터는 기본적으로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운영하는 ‘기초교육과 심화과정’을 수료하고 도 자격인증제를 통해 자격을 부여받은 교육생(지역주민, 지역 활동가, 전문가 등)으로 함
 -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교육생을 대상으로 자격인정 인증을 부여하며, 이는 코디네이터의 생활역량교육의 필요성 이해, 농촌생활역량 교육 기획 및 운영·관리에 있어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 기초교육은 농촌생활에 있어 필요한 생활역량에 대한 이해와 코디네이터로서 갖춰야 할 기본 소양을 학습하는 개론적 성격의 이론과 실습·훈련으로 구성됨
 - 기본 1 (생활역량에 대한 이해) :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학습함
 - 분야 1 (농촌생활역량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생활역량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그 가치를 학습함
 - 분야 2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의 목표와 역할에 대한 이해) : 농촌생활역량 습득 및 증진을 위한 교육과 교육기관의 필요성을 이해함
 - 분야 3 (코디네이터의 역할과 역량에 대한 이해) : 농촌생활역량교육을 운영하는데 코디네이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역량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습함
 - 기본 2 (세미나) : 다양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강의 또는 토론 등이 진행
- 심화교육은 농촌생활역량교육을 운영하는데 코디네이터로서 필요한 역량과 전문성을 키우는 기간으로 심화 이론과 실습·훈련이 진행됨

- 기본 1 (코디네이터의 자질 및 역량 강화 교육) : 농촌생활역량교육이 운영되는데 코디네이터의 지원, 관리 및 평가에서의 역할과 필요한 역량을 학습함
 - 분야 1 (농촌생활역량 부문별 이해 교육) : 농촌 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부문의 생활역량이 무엇이 있는지와 그 가치를 학습함
 - 분야 2 (교육 모듈 기획 및 설계)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개발한 '교육프로그램'을 근거로 지역의 교육환경과 교육자원을 파악하고 지역 맞춤형 농촌생활역량 프로그램 개발을 학습함
 - 분야 3 (조직 운영 및 리더십) :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관리 역량, 관련 기관과의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발전시키는 역량, 교육생 관리 역량 등을 학습함
 - 분야 4 (트렌트 분석 및 정보화) : 농업·농촌의 변화에 따른 농촌생활역량의 트렌트 파악과 수요조사를 위한 역량을 학습함
 - 분야 5 (성과평가 및 관리) :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학습함
 - 실전형 교육 1 (교육환경 분석 및 자원조사) : 지역의 농촌생활역량 교육환경 및 교육자원 조사를 위한 실습·훈련을 실시함
 - 실전형 교육 2 (교육목표 수립 및 교육 모듈 기획) :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을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교육과정을 기획, 설계하는 실습·훈련을 실시함
 - 실전형 교육 3 (운영 및 성과관리) :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운영에서 필요한 지원, 관리 및 성과관리에 필요한 역량을 실습·훈련 실시함
 - 실전형 교육 4 (사례분석 및 모의실습)
 - 기본 2 (세미나) : 다양한 주제로 관련 전문가 및 실무자와의 강의 또는 토론 등이 진행
- 보수교육은 코디네이터의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으로 일정기간 간격으로 지역별 코디네이터 또는 기수별 코디네이터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또는 요청한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해 학습이 이루어짐
- 보수교육을 통해 코디네이터들은 사례분석과 의견·정보 공유를 통해 농촌생활역량 교육 관련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역량을 증진 시킴

- 워크숍은 (현장)전문가, 연구자, 공공기관 실무자, 현장 활동가, 코디네이터, 학교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농촌생활역량교육 성과 및 개선 방안을 주제로 연1회 개최하여, 우수 코디네이터 또는 지역을 선정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함



〈그림 5-8〉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 코디네이터 양성교육과정 특성

- 다양한 교육 방식으로 운영 : 강의식 교육, 실전형 교육, 토론식 교육, 세미나 및 워크숍 개최 등이 가능
- 표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 코디네이터의 질적 수준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에서 개발한 '코디네이터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교육생이 교육과 학교의 필요성, 교육 운영에 필요한 역량 등을 학습할 수 있는 양성프로그램 운영 매뉴얼 개발
- 교육 접근성 제고 : 생업에 종사하는 교육대상자의 평일 주간에 교육 참여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말반 또는 야간반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거나 강의식 교육은 온라인 강의로 개설하여 교육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음
- 도 자격인증제도 도입 : 코디네이터의 질적 수준 보장과 전문가로서의 활용 기회 부여
- 코디네이터 사후 관리 : 보수교육을 통해 코디네이터의 역량 증진을 통해 전문성을 높임
-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과 계약된 코디네이터 풀(pool)을 구축하여 관리함
- 매년 코디네이터 또는 지역의 성과를 평가하여 우수 코디네이터 또는 지역에 인센티브를 부여함

○ 코디네이터 활동 및 플랫폼

- 코디네이터는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운영에 있어 지역 교육환경과 자원을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함
-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현장)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며, 코디네이터는 해당 지역에서 활동을 함
- 기초자치단체(주 2~3회), 전북도(격주) 차원의 코디네이터의 거점공간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육 운영과 관련한 의견 및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회의 및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활용에 활용함



〈그림 5-9〉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거점지역 구성

■ 참조사례

■ 주거복지사²⁷⁾

- 한구주거학회의 자격인증 ‘주거복지사’는 프로그램 이수자 중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자격증 ‘주거복지사’ 자격을 부여함
- 주거복지사는 주거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주거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역할을 함
- 주거복지사는 주거환경의 주생활 관련 문제를 진단·평가한 후 주거 개선을 위해 주거복지서비스를 발굴하여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과 복지 증진 방안을 모색하는 역할을 함

■ 진안군 마을간사제²⁸⁾

- 2006년 3월 6일부터 시작된 진안군 ‘마을간사제’는 마을 개발과 귀농 선진지를 만들기 위해 12개 시범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된 신활력사업에서 시작됨
- 마을간사는 으뜸마을가꾸기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사업 등 정부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개발 관련 사업 활성화, 마을 단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마을 사무관리 및 컨설팅, 농산물 유통망 확충 및 마을 홍보 등 역할을 함
- 마을간사제는 귀농귀촌인을 우선적으로 채용하여 2020년 기준 지자체로부터 180원 수당(주5일 근무 시)을 받아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하고, 마을공동사업에 참여하면서 귀농에 필요한 정보를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²⁹⁾

27) 주거복지사 자격검정사업단, <https://www.housingwp.or.kr/user/Main.do>

28) 고령화 농촌 ‘마을간사제’ 새활력 (농민신문, 2007.3.12.),
https://www.nongmin.com/news/NEWS/FLD/NWS/101630/view?site_preference=normal

29) 2020년 마을간사(정천면 학동)모집 공고 참조

- 마을간사는 마을만들기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하며 마을 활동의 매개자, 촉진자로 활동함

■ 관광두레 사업³⁰⁾

- 2013년부터 시작된 관광두레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두레피디를 육성하고 있음
- 관광두레피디는 지역 고유의 특색을 지닌 주민사업체를 창업할 수 있도록 지역 관광정책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함
- 관광두레피디는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방문객과 주민 사이에서 중간지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별 주민사업체를 발굴하고 창업 활동에 주민을 참여시켜 주민공동체를 구축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됨
- 주요 업무는 창업상담, 경영실무교육, 상품 판로개척, 홍보 등이 해당됨

■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 코디네이터³¹⁾

- 2015년에 출범한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도시재생대학 운영,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육성, 문화해설 투어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도시재생코디네이터는 도시재생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마을 주민간의 갈등을 관리하며,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주민이 아이디어를 창출·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함
- 도시재생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은 기본과정, 심화과정 1, 심화과정 2, 심화과정 4로 구분하여 진행됨
- 기본과정은 도시재생에 대한 기본적인 소양을 배우고 다양한 사례를 학습하여 예비마을 활동가를 양성하는 과정으로 도시재생에 대한 입문과정임

30) 관광두레, <https://tourdure.mcst.go.kr/home/homeIndex.do>

31) 세종특별자치시 도시재생지원센터, <https://sj-urc.or.kr/>

- 심화과정 1단계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과정으로 예비마을활동가를 대상으로 마을경제활성화를 위해 마을기업, 협동조합, 기업경영실무, 마케팅, 회계 등의 주제로 교육이 구성됨
- 심화과정 2단계는 커뮤니티 디자인 과정으로 예비마을활동가가 마을현황파악, 마을비전구상, 마을디자인 등을 학습하는 과정임
- 심화과정 3단계는 퍼실리테이션과정으로 예비마을활동가는 마을갈등관리, 회의 운영, 협의 등 관련 주제를 학습하게 됨
- 2년간 기본과정, 심화과정 1, 2, 3단계를 이수하면 교육생은 세종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명의 예비도시재생코디네이터로 인증을 받으며, 2년간 활동경험을 마치면 도시재생코디네이터로 활동하게 됨
- 인력풀에 등록된 코디네이터는 연 1회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게 됨

■ 갯벌생태안내인³²⁾

- 갯벌생태안내인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해 2015년 순천시, 서천군, 한국생태연구원, (사)녹색습지교육원 등 기관에서 갯벌생태교육인 교육과정을 운영함
- 갯벌생태안내인은 ‘습지보전법 제22조의3’에 따라 연안습지(갯벌)의 보호활동 등을 수행하며 해양수산부 장관이 위촉하여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활동하게 됨
- 갯벌생태안내인 양성과정은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별표 1-교육과정의 구성 및 인증기준’에 따라 이론교육, 현장학습, 실습으로 구성되어 있음
- 교육생은 갯벌에 대한 이해 및 해설, 환경해설기법, 야외활동에서 안전교육, 안내활동 중 돌발 상황 대처능력 등에 대한 교육을 받게 됨
- 람사르고창생태센터는 고창군 해양수산과 소속으로 고창갯벌의 가치와 중요성을 갯벌주변 지역주민들과 대중에게 알리고 갯벌을 보전하

32) ‘갯벌생태안내인 교육과정 인증 및 위촉에 관한 규정’

기 위한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교육센터임³³⁾

- 해양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해양수산부의 민간연계 현장체험중심 해양 환경교육사업으로 람사르고창갯벌센터, (사)생태지평연구소, 해양환경 교육모임 ‘바다를 봄’이 함께 고창 갯벌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발됨
- 교육프로그램은 월별 프로그램(움직이는 갯벌 쉼니어, 바지락바지락 꿈틀꿈틀, 도둑게야 어디가니?, 바다쓰레기를 부탁해, 지구별 여행자 철새), 찾아가는 고창갯벌학교(고창갯벌보물탐사, 우리교실에서 만나는 고창갯벌)현재 4명의 고창 지역주민이 갯벌생태안내인이 활동하고 있음

33) 고창갯벌생태교육, <https://gotidalflat.modoo.at/?link=1hq02tub>

바. 성과관리

- 농촌생활역량교육 평가는 교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교육이 어떻게 실시되었는지에 초점에 맞춰져 이루어짐
- 협약 교육기관 또는 센터의 교육과정과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캠퍼스 교육과정의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운영에 대한 평가가 진행됨
- 농촌생활역량교육 평가는 교육시스템과 교육생 만족도 평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교육계획’, ‘교육과정’, ‘교육 결과’인 3단계로 구분하여 평가가 진행됨
- ‘교육계획 평가’는 교육계획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과의 적합도 또는 차이를 살펴보는 것으로 세부 지표로는 ‘농촌생활역량 교육과정 교육안과 운영’, ‘학생 모집률’, ‘강사 적합도’, ‘소요예산안 및 집행’ 등으로 구성함
- ‘교육과정 평가’는 교육시설과 교육내용을 중심으로 평가하며 세부 지표는 ‘협약 교육기관·단체, 캠퍼스 교육시설’, ‘교육 운영을 위한 인력 확보’, ‘교육활동 운영 및 참여율’, ‘교육생 강의만족도’, ‘행정적 처리 내용’ 등이 해당함
- ‘교육결과 평가’는 주로 교육생을 대상으로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평가되며, 수료생의 만족도는 ‘교육과정 구성’, ‘강의내용’, ‘강의 수준’, ‘교육환경’, ‘농촌 생활 도움 정도’ 등이 포함되며, ‘교육생 수료율’ 등 또한 평가지표로 활용됨

〈표 5-3〉 농촌생활역량교육 평가지표

구분	주요내용	평가항목
교육계획	농촌생활역량교육의 방향과 목적의 적합성	교육과정 구성안과 운영, 학생모집률, 강사 적합도, 소요예산 안 및 집행 등
교육과정	교육환경 및 프로그램 진행	협약 교육기관·센터 교육환경 및 교육활동, 인력 확보, 교육활동 및 참여율, 교육생 만족도, 행정적 처리 내용 등
교육결과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교육생 수료율, 수료생 만족도(교육과정 구성, 강의내용, 강의 수준, 교육환경, 농촌생활 도움 정도)

참고문헌

■ 참고문헌

- Baron, R. A., & Markman G. D.(2003). Beyond social capital: The role of entrepreneurs' social competence in their financial succes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8(1), 41-60.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2019). 경기도 교육플랫폼 '찾아가는 배움교실',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김기홍(2020). 청년 농업인의 지역 정착을 위한 정주 기반 지원 방안 연구. 충남연구원.
- 김부성(2012). 귀농귀촌 정보제공 및 교육체계 구축 개선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성학·서정원(2014). 산촌마을 귀농·귀촌인 정착 동기와 생활만족 요인 분석. 농촌계획, 20(1), 105-113.
- 노현미(1999). 아버지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생활능력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마상진(2012). 귀농·귀촌자의 영농실태와 교육요구 분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자료. 37-56.
- 마상진(2018). 귀농귀촌 동기 유형과 관련 변인.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50(1), 53-72.
- 마상진·김경인(2016). 귀농·귀촌인의 교육 참여 영향 요인 탐색.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8(2), 83-104.
- 마상진·박대식·박시현·최용욱·남기천·남승희·최윤지(2015). 귀농 귀촌 시기별 귀농 귀촌 과정 및 경제 지역사회활동 실태 변화 분석. 농업교육과 인적자원개발, 47(2), 1-21.
- 박선희(2005). 어머니의 심리적 자세와 유아의 자기조절력 및 생활능력의 관계.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성태·이태경·정남식(2020). 귀농어·귀촌 인식 및 관련 교육 실태에 관한 연구: 퇴직 예정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을 대상으로. GRI 연구논총, 22(4), 215-235.
- 박영일.(1998).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연구-귀농사례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삶기술학교(2019). 2019 삶기술학교 결과보고집.
- 우병준·박혜진(2020). 2020년 농업·농촌 국민의식 조사. KREI 농정포커스 제19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운명희·김진화(2008). 청소년의 생활역량 진단척도 개발과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효과분석. 한국청소년연구, 19(2), 173-197.
- 유상오(2012). 귀농귀촌 교육프로그램 진단분석 및 개발 연구. 농촌진흥청·그린코리아컨설팅.
- 유영민·김용근·안민지(2017). 농촌 원주민과 귀농귀촌인 간 갈등요인과 인식차이 분석. 농촌사회, 27(2), 93-136.
- 유학열(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등장. 충남논단, 봄호, 18-25.
- 유학열(2011). 충남지역 귀농귀촌의 실태 및 유형별 특징. 충남논단, 봄호, 18-25.
- 이민수·박덕병(2012). 도시민의 귀촌형태 유형화와 시사점. 농촌지도와 개발, 19(4), 1137-1170.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이중강(2004).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라북도·전라북도농어촌종합지원센터(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현장 간담회 자료.
- 채상헌(2013). 귀농정착 현황 및 귀농정착 성공요인 분석: 귀농귀촌교육수료생 대상 영농정착실태조사 사례 중심. 한국농산업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46-60.
- 한경혜·성미애·진미정(2014). 가족발달.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 농림축산식품부(2021). 2020 귀농귀촌 실태조사.
- 통계청(2021). 2020년 귀농어·귀촌인통계.
- 고령화 농촌 ‘마을간사제’ 새활력(농민신문, 2007.3.12.)
- 서울시, 귀농·창업, 귀촌·전원생활 준비 무료 맞춤교육(한국강사신문, 2021.2.14.)

정책연구 2021-07

전북 귀농귀촌 생활기술 교육플랫폼 운영 방안

발 행 인 | 권 혁 남

발 행 일 | 2021년 9월 30일

발 행 처 | 전북연구원

550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전화: (063)280-7100 팩스: (063)286-9206

ISBN 978-89-6612-331-5 93520

본 출판물의 판권은 전북연구원에 속합니다.

